

시로 읽는 성보순례
파문
국보 제36호 상원사동종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법의 깊은 뜻을 사유하는 게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중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4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80 호 2012년 5월 30일 수요일



불교계의 큰 별 한마음선원장 묘공당 대행 스님이 법랍 63세 세납 86세로 5월 22일 원적했다. 마음수행과 포교의 신기원을 이룩한 대행 스님은 그동안 쉽고 간결한 생활 법문을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다. 스님은 원적에 들었지만 생활속 마음 공부를 강조해온 스님의 법문은 대중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마음 공부법’ 혁신한 시대의 선지식

5월 22일, 한마음선원장 묘공당 대행 선사 원적

법랍 63 · 세납 86세… 26일 비구니장 엄수

한국 비구니계의 원로 한마음선원 선원장 묘공당 대행 스님이 5월 22일 오전 0시경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3세, 세납 86세.

대행 스님의 분향소는 안양 한마음선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전국비구니회장으로 5월 26일 10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엄수됐다. 〈영결식 기사 차주 상보〉

치악산 견성암에 머물며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현하던 대행 스님은 강원도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1960년 사미니계를 1961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50년대 말경부터 대행 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근처에 있는 한 토굴에 머무르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런 호소를 듣고 그들을 도왔으며 1963년 상원사 중창불사를 도맡아 했다.

그러다 대행 스님은 내면의 무한한 능력인 근본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스스로를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스님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스님의 원력은 1972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한마음선원의 전신인 대한불교회관으로 발현된다. 이곳에서 10년을 포교한 대행 스님은 1982년 대한불교조계종 직할사암으로 등록하고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으로 개칭, 선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30여년 넘게 한마음선원에 주석하며, 크고 작은 법회에서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근기와 여건에 맞추어 답을 해주며 불법의 진리를 가르쳤다.

생활선 ‘한마음 관법’ 대중교화
국내외 지원 25곳 자연발생
“삶이 곧 불법…둘로 보지 말라”

스님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항상 “자기 자신의 부처가 될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근본 마음을 철저히 믿고 그에 귀의하라”며 스스로의 불성(佛性)을 찾아야 한다고 설했다. 스님은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을 주창했다. 이 관법은 관념으로 궁리하는 이론이 아니었다. ‘삶이 곧 불법’이라는 말처럼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자성의 실체를 알게 하는 마음의 법이었다.

또한 마음을 지켜보고 활용하는 관법을 통해 스스로를 내려놓을 것을 강조했다. 믿고 내려놓고, 되놓는 작업을 하다보면 더불어 이익되는 삶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대행스님은 이를 공생 · 공심 · 공용 · 공식의 삶이라고 정의했고, 이 삶이야말로 진리 그대로의 삶이자 깨달음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즉 무주상 자비실천인 ‘공생’을 강조한 것이다.

해외불자 귀의 ‘관법’ 연구도
법어 여러 나라서 번역 인기
무주상 자비 실천 ‘공생’ 강조

대행 스님을 설명하는 수식어는 ‘마음공부법’을 혁신한 시대의 선지식이라는 것이다. 국내외 총 25개 지원이 차례로 개원되면서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 세계속에 전파되고있다.

이들 지원들은 모두 본원의 계획이 아닌 각지의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발심해 건립된 것이다.

포교대중화에 앞장선 대행 스님은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 한글뜻풀이 경전의 보급, 법문의 영상 포교,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인터넷 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 포교, 현대불교 신문 창간, 한마음과학원 설립 등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편들을 제시했다.

거사들을 위한 법형제 법회, 청년들을 위한 전국연합법회 등 당시에는 생소했던 계층 법회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스님은 불법의 홍포뿐만 아니라 교계 내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널리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여러나라말로 번역된 대행 스님의 법문집은 전법의 발걸음을 세계로까지 넓혀 나갔다. 독일인 의사 한스욕 등 수많은 외국인 불자들이 스님에게 귀의해 관법연구에 힘썼다.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의 본성을 발현하게 하는 스님의 가르침은 〈한마음요전〉 〈허공을 걷는 길〉 〈삶은 고가 아니다〉 〈생활 속의 불법수행〉 등 다수의 저서로 출간됐다. 또한 산하단체인 한마음국제문화원의 번역 작업을 거쳐 여러나라에서 현지 언어로 출간돼 인기를 끌었다.

대행 스님의 초재는 5월 28일, 49재는 7월 9일에 봉행된다.

신중일 · 이나은 기자

대행 선사 원적 지면 안내

추모특집 3
대행 스님 분향소
혜거 · 법산 스님이 본 대행 스님
추모사설 23

대행 선사 추모 특집 8면

스님의 발자취 1~2



각계 인사 영결사, 추도사 3
대행 스님의 주인공 관법 4
사진으로 보는 대행 스님 5



내가 만난 대행 스님 6
스님의 저서, 번역서 7
아! 대행 스승님 8

“기득권, 권력 내려놔라”

종단쇄신 요구… 사부대중 연대회의

승려 도박 문제에서 한국불교 승가 전체 문제로 번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쇄신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만초, 이수덕, 성태용, 이하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5월 24일 만해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종회 의원들은 권력화, 이익집단화한 계파를 해체해야 하며, 사부대중이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총무원과 본사 주지, 종단의 소임자, 종회 의원들은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종단은 범계행위 근절 위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 대책위 구성해야 한다”며 “총무원, 본사주지, 종회의원, 주요 사찰 소임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단 개혁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2010년 승적 반납 후 잠적했던 수경 스님은 ‘현 원장 용퇴’라는 강수를 던졌다. 수경 스님을 비롯한 연관(봉암사 선덕), 영진(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현진(전 봉암사 선원 입승), 원타(봉암사 주지), 함현(전 봉암사 주지), 철산(문경 대승사 선원장 및 주지), 월암(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혜안(선원 수좌), 성종(선원 수좌) 스님 등 10명의 수좌들은 5월

수좌 모임 “원장 용퇴”
계파 해산 한 목소리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회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먼저,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 누가 자성의 주체인지 반문한 수좌들은 “총무원장은 현상황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각적으로 용퇴해야 한다”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무와 책임을 순조롭게 넘겨주기 위한 수임기구를 설치해 종단을 정상화하고 명예롭게 퇴진하길 권고했다. 신중일 기자

“총무원장 재임에 관심없다”

자승 스님 “임기 연연 안해”… 본사주지 참회 정진서 밝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재임에 관심없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자승 스님은 5월 25일 열린 ‘승가공동체 회복과 종단 안정을 위한 교구본사 주지 108참회 정진’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고,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 임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재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임기에도 연연치 않는다”고 선언했다.

자성과 쇄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스님은 “종단 책임자로 있는 동안 완성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재임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이라며 “자성과 쇄신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조성되고 여법한 승계를 생각하면 소임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초에 수많은 관심 속에서 종단 쇄신안을 공포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고통의 시시간을 미래를 위한 성장통으로 삼아 역사적 노고를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108배 참회정진에는 참회정진을 마친 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승풍을 해치는 이들을 일벌백계해 세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공업중생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 헤쳐나가겠다”고 발원했다.

한편, 108배 참회에서는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을 제외한 교구본사 주지 24명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圓 妙空堂 大行禪師 全國比丘尼會葬 寂

訃 告

妙空堂 大行禪師께서 佛紀 2556(2012)年 5月22日(陰 4月 2日)
午前 0時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式 – 日時 : 佛紀 2556(2012)年 5月 26日(陰 4月 6日) 午前 10時
– 場所 : 한마음禪院 本院
■ 問 議 – 한마음禪院 本院 宗務所 031)470-3100, 3101
※근조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妙空堂 大行禪師 全國比丘尼會葬 葬儀委員會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36호 상원사동종



파문

우대식

첩첩의 산을 넘어
상원에 산다
어두워져 가는 고원,
희미해져 가는 몇 개의 불빛과
눈발을 만나 악수를 나눈다
오래 헤어졌던
길고긴 강물처럼 울려나오는 동종 소리에
몸을 싣고
잘못했다
아름다운 고통이었다
몸을 구부려 빌고 또 빌었다
악기를 타는 비천의 보살이여
천 개의 손을 보여다오
화엄으로 돌아가는
서른다섯 개의 젖꼭지여
어지러운 꿈속에서 젖을 물려다오
발등에 먼지가 고여 수레처럼 쌓일지라도
상원의 동종이여
소리여
일 개, 만 개의
파문이여,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우대식 시인은… 1965년 강원도 원주 출생. 1999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늙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보다〉, 〈단검〉등.

쇄신부터 용퇴까지 조계종 '자정 앓이'

수좌 일부, 시민단체 등 잇달아 쇄신책 촉구

"살을 도려내는 아픔 속에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몸부림의 첫 단초로 총무원장은 현금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각적으로 퇴진해야 한다."

"종단 총무원, 본사 주지 종회의원과 주요 사찰 소임자는 무소유 정신에 입각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단 개혁에 앞장서라."

최근 수좌 스님 일부와 사부대중 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중 일부다. 승려 도박으로 시작된 사태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조계종이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종회 차원의 대중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초반의 참회와 자성의 목소리는 종단 쇄신을 요구하는 격문으로 변했다.

특히 현 상황의 조계종의 '구원투수'로 예상됐던 수경 스님과 중진 수좌들의 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는 종단을 강하게 압박했고,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우리는 선우 등이 출재가 단체도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는 개괄적인 의견만 제시된 상황이지만 추후 종단 대응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도흠 연대회의 기획위원은 "연대회의는 종권쟁취가 아닌 한국불교의 쇄신과 미래를 위해 존재한다. 이에 세간에서 떠돌고 있는 총무원장 사퇴 촉구 등을 성명서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총무원장이 한국불교 쇄신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론이 불거진 직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재임하지 않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자승 스님 "임기 연연하지 않아"
정면 대응… 6월 초 쇄신안 발표
재정 투명화 등 자정 계기 삼아야

자승 스님은 5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승가 공동체 회복과 종단 안전을 위한 교구본사주지 108배 참회 정진' 인사말에서 "총무원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고,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다보니까 저의 재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종단 쇄신안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스님은 "6월 초에 수많은 관심 속에서 종단 쇄신안을 공포할 예정에 있다"며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이 무엇보다 종단의 큰 동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간 과거의 행동과 사고방식으로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지금의 고통의 시간을 미래 성장의 토양으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 같은 자승 스님의 발언은 현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본인이 스스로 재임과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불거질 대로 불거진 '원장 용퇴론'과 각종 폭로 후폭풍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결사추진본부 자문회의, 사부대중 연대회의 등에서 제시한 △종단 사부대중 의식 개혁 △종헌에 입각한 사부대중 공동체 확립 △출가자는 수행, 재가자는 운영 시스템 정립 △중앙종회 종책모임(계파) 등 종단 혁신이 자승 스님의 과제로 부각되게 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출재가로 구성된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5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쇄신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6월 21일 개회

23일 중진회의서… 의원 불징계권 등 논의

종회 계파 해산 각자 결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가 6월 임시 회의를 열고 도박사태로 불거진 종단 현안들을 논의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각 계파 중진 의원 스님 연석회의를 열고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190회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특권'으로 문제됐던 종회의원 불징계 조항의 폐지, 축소 등을 임시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 종회 당시 의견 수렴 미비로 이월된 산중총회법, 선거법, 교구종회법, 법인법 개제정안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은 종헌 종법 테두리 안에서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사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부처님오신날 직후 종회 차원의 연석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 자문회의에서 권고한 종회 종책모임(계파) 해산에 대해서는 "종회 계파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는 5월 22일 문경 봉암사 보림당에서 제3차 자문회의를 열고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종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종단의 사부대중 의식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청정성을 바탕으로 한 소욕지족의 생활문화를 정립하기로 했다. 의식 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로의원 고우스님에게 위임했다.

신중일 기자

불기 2556년 불자대상 민병덕, 장미화 씨

5월 28일 봉축 법요식서 시상… 신행 · 포교에 귀감

불법홍포와 종단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불자를 격려하기 위한 불자대상의 올해 수상자로 민병덕 국민은행장과 가수 장미화 씨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불자대상 선정위원회)는 5월 17일 "'불기 2556년 불자대상' 수상자로 KB국민은행장 민병덕씨와 가수 장미화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행장은 사원으로 입사해 '원칙과 소신'을 삶의 기준으로 최고경영자까지 오르는 등 수처작주의 삶을 실천해왔다. 또한 국군불교후원회장으로 군포교 후원과 독실한 신행활동 등이 타의에 귀감이 돼 불자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표 불자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장미화 씨는 불교TV 사회자, 연등회 리포터 등 불교영상포교에 동참해 왔으며, 자신이 설립한 봉사 단체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행을 전하고 있다.



민병덕



장미화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5월 28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됐으며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시상했다.

2004년 처음으로 시작된 불자대상은 故 앙드레 김, 탤런트 김혜옥, 작가 방귀희, 대한수영연맹회장 이기흥, 방송인 이수근,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 · 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내가 본 대행 스님

“마음 활용법 가르친 스님”

한국불교의 큰스승이었던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은 비구 스님과의 교류도 활발했다. 특히 당신의 계사였던 탄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혜거 스님과 자신의 제자들이 의탁했던 법산 스님과는 돈독했다. 스님의 원적 소식에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은 분도 두 스님이었다.

5월 22일 오전 10시, 원적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스님은 평소 오고감이 없는 도리를 늘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스님은 “그 경지에서 자유자재로 생사에 임하셨다. 우리 사부대중들도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하자”고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시공을 초월한 큰 원력으로 불도량을 이루신 대행 스님은 가고옴이 없다’ 는 뜻을 지닌 만장을 쓴 혜거 스님은 40여년전 탄허 스님과 각별한 사이였던 대행 스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스님은 “탄허 스님께서 각별히 대행 스님을 아끼셨다. 늘 스님을 모시고 다녔던 나도 탄허 스님을 시봉하며 대행 스님의 포교활동을 지켜봐왔다. 대행 스님은 60 · 70년대 안양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수백가마의 쌀을 나눠주며 보시행을 실천 했는데 지금의 안양시를 발전 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탄허 스님도 이런 대행 스님의 모습을 보고 큰 그릇이라고 극찬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아태불교문화연구원장 법산 스님(前 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대행 스님의 법문에 학문적 이론을 제공한 도반이다. 스님은 ‘주인공 자리’ 는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중생의 근본 자성에서 하나가 되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행 스님 제자들의 동국대 석, 박사 졸업논문 지도하며 ‘주인공’ 의 의미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는 공사상, 반야 사상이 들어있어요. 스님이 강조한 생활 속 참선수행은 자성을 찾아가는 포교 일환인 것입니다.”

법산 스님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부처님 말씀과 옛 조사 스님 말씀에서 어긋 나는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스님은 대행 스님의 현대적인 교육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모아 새로운 불교과학을 개발해 연구하고 해외포교를 하는 등의 모습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숙 · 이나은 기자


혜거 스님


법산 스님


최대호 안양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 왼쪽)과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포교원 종무원들과 분향소를 찾았다.


인천 경기지역 포교사 50여 명은 기도를 올리며 스님의 전법원력을 기렸다. 조문 행렬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변성묵 원불교 교무가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스스로 눈뜨라고 초파일 즈음 가셨나

안양 한마음선원 빈소

대행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는 오전 9시부터 입적 소식을 들은 전국의 신도들과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국내외 25개 한마음선원 지원도 일제히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22일 오후 3시에는 제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입관식이 진행 됐다. 이어 오후 8시 경에는 안양본원 4층 법당에 재단을 국화로 장식한 공식 분향소가 마련됐으며, 임시 분향소로 사용되던 3층 법당에는 대행 스님의 온화하신 생전 영상 법회 모습이 상영돼 신도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종무원, 인천경기지역 포교사단 포교사들과 한마음선원을 찾아 분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이날 한마음선원은 조문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이외에는 다른 화환은 받지 않고 돌려 보내기도 했다.

비구니 승단의 큰 어른 스님 입적 소식에 후배 비구니 스님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등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빈소를 찾은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어른 스님이 조금 더 계셨어야 하는데…”라고 울먹이며 끝내 말문을 잇지 못했다.

정목 스님은 “스님의 초재가 부처님오신날 진행되는데 평소 ‘한마음으로 주인공 자리를 찾아 너 스스로 눈을 뜨라’ 는 말씀처럼 단순히 기쁜 부처님오신날이 아닌 자신을 성찰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남겼다.

23일 오전에는 학계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스님의 분향소를 찾았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고려

사회 각계 조문행렬 이어져
조문객 분향 후 영상보며 추모
국내외 25곳 지원에서도 분향
마음공부 등 가르침 실천 다짐

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前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봉녕사 승가대학장 도혜 스님, 경주 동국대 박물관장 청원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 · 혜원 스님 등이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추모했다.

분향을 하며 스님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아낸 아태불교문화연구원장 법산 스님(前 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대행 스님의 현대적 교육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대행 스님은 교육방식이 신선했다.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모아 새로운 불교과학을 개발 연구하고 해외포교를 하는 등 기존 조계종단의 교육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복지계 인사들도 대거 분향소를 찾았다. 정토마을 자재병원 능행 스님, 프라미스 공동대표 도진 · 종화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이 스님을 추모했다. 이와 함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내원사 선원장 자광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등이 방문했다. 이밖에 최대호 안양시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평소 오고감이 없는 가르침을 펼치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선원 신도들은 스님의 열반소식에도 담담했다. 하지만 현실 속 깊이 다가온 스님의 큰 자리를 지울 수는 없어 보였다.

강미남 보살은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을 잃은 것같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대행 스님이 계실 때나 안계실 때나 항상 스님 말씀대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 라는 각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나동현 씨는 “대행 스님은 내게 부모님과도 같다. 그런 스님이 열반하셔서 마음 아프지만 분향소에서 스님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또다른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원내 구정탑을 돌고 3층 법당에서 영상법문을 들으며 스님의 원적에 대한 슬픔을 달래기도 했다.

노덕현 · 이나은 기자

妙空堂 大行禪師 年譜

1927 정묘(丁卯)년 1월 2일(음력) 이태원 출생
1950 상원사서 한암(漢岩) 큰스님을 친견하고 출가의 뜻을 세움
1950~1960 강원도 경기도 일대 산야에서 10여 년간 산중 고행
1960 탄허 스님 계사로 월정사서 사미니계 수지
1961 탄허 스님 계사로 월정사서 비구니계, 보살계 수지
1963 치악산 상원사 중창 불사
1972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대한불교회관’ 건립
1981 무량사 우진(宇振)스님을 은사로, 탄허 스님을 계사로 소실된 승적 재정리
1982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찰 등록
한마음선원 개칭, 선원장 취임
1982 충북 음성군 금왕에 첫 국내지원 개원
제5차 국제불교학술회의에 증명법사로 참석 (중국불교연구원 주최)
1984 본원 합창단을 창단, 음성 포교 시작
1985 비디오 법문을 통한 영상포교 시작
1986 금왕지원에 최초의 한마음 영탑공원 설립, 이후 제주, 진주, 중부경남지원 영탑공원 조성
1987 〈천수경(千手經)〉과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뜻으로 풀이한 한글 경전 보급
미국 캘리포니아에 첫 국외 지원 개원 (모건힐지원)
1992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설립
1994 주간 불교신문 ‘현대불교’ 창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주창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설립
불교계 최초의 거사합창단 설립(본원)
1995 〈뜻으로 푼 한글 금강경〉 발표
1996 국내 최대 불교 포털사이트 부다피아 ‘Buddhapia’ 개설
불교계 최초로 홈페이지 개설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 설립
첫 유럽지원 독일 카스트(Kaarst) 지원 개원
1999 안양 본원 대법당 준공
HBTV 한마음불교방송국 개설
2000 8월 UN본부 세계종교지도자 회의 참석
2001 국제 포교 및 영문 법어집 제작을 위한 한마음국제문화원 설립
스리랑카 종교복지재단 LJSSS에서 세계적으로 불교를 널리 알린 외국 스님에게 시상하는 사르보다야 명예상 수상
제1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한마음합창제 ‘임의 소식’ 개최 (세종문화회관)
2002 UN에서 제정한 ‘위대한 불교 여성상’ 수상
사보(寺報) ‘한마음저널’ 발간
2004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비구니의 수행과 삶’ 개최 (본원)
제2회 간암환자돕기 한마음합창제 ‘그 마음 그대로’ 개최 (세종문화회관)
2005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매년 참가
2009 한마음불교문화회관 준공
2011 제22회 포교대상 수상(대한불교조계종 종정상)
제3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한마음음악제’ 개최(세종문화회관)
2012 현재 부산 광주, 통영 강릉 등 15곳의 국내지원과 독일, 캐나다, 태국 등 9곳의 국외지원을 개원
2012 5월 22일, 세납 86세 법랍 63세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입적(入寂)

www.wfb26korea.org
T. 061-654-1008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회

개회식
6월 12일(화) 오후 4시 30분 / 여수 흥국체육관

WFB아카데미 포럼
6월 13일(수) 오전 8시 30분 / 여수 디오션호텔(그랜드 볼룸)

세계고승수계대법회
오후 2시 / 여수 흥국체육관

창작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6월 14일(목), 15일(금) 오후 7시 30분 / 여수 흥국체육관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Korea Conference
2012.06.11(월)~16(토)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여수시 주관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회 조직위원회

전국은 지금 부처님 자비 물결

부처님오신날 맞아 전국 봉축행사 다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도 진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봉축행사가 이어졌다. 대구에서는 5월 19일 두류야구장에서 제등행진이 진행됐다.

전국에서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전하기 위한 봉축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5월 20일 광주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2빛고을관등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관등축제는 광주천에 한국의 토종 물고기를 형상화한 장엄물을 설치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진행된 대동한마당은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중국 기예단,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전남 보성도 같은 날 보성체육공원 다향체육관에서 '보성군민 화합 한마당 연등축제'를 열었다.

보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보리)는 보성북소리예술단, 판소리, 법고시연(송광사 일봉스님, 일각스님)의 식전행사에 이어 봉축법요식과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강진군도 역시 봉축법요식과 제등행진을 봉행했다. 강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현)는 5월 23일 강진아트홀 대강당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스님을 비롯한 지역불자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행사를 열었다. 강진불교연합합창단, KCC음악봉사단의 식전행사에 이어 진행된 법요식은 불교의례, 헌화 및 관불, 봉행사, 축사, 법어, 축가가 진행됐다.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5월 19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연등축제에는 3천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익산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광)도 5월 20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연등축제를 펼쳤다. 연등축제는 익산문화원 '서동풍물'의 신명나는 농악놀이를 시작으로 전통문화 가·무·악 공연과 익산시립풍물단, 익산연예인 협회 회원들의 공연에 이어 봉축법요식을 펼쳤다.

이밖에 전북 향토사단 35보병사단(사단장 정한기)이 5월 23일 세병호 호국 충경사에서 1천여 개의 연등을 밝히고 연등제를 개최했다.

또 선운사(주지 법만)는 군산 교도소에서 봉축법회와 재소자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했다. 이날 선운사는 수계자를 받은 재소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대구는 5월 19일 두류야구장 일원에서 2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과 제등행렬을 진행했으며, 경북 경주는 5월 18일 경주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 19일 한국불교대학 대법당에서 2천여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또 한국불교대학은 지역 소년·소녀 가장 3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 동화사 신도회 역시 5월 20일 초중고 108명 학생에게 총 5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5월 21일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구대교구 조환길 대주교가 동화사를 방문해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종교간 화합을 다졌다.

부산에서는 5월 20일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시민 2만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대재를 시작으로 부산연등축제 및 봉축연합대법회가 봉행됐다.

부산연등축제를 주관한 박도환 행사집행국장은 "올해 연등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약 5천여 이상의 일반인 참가자가 늘어났다"며 "연등제가 부산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손문철 대구지사장 ·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불교대, 3보1배 수행 정진

(사)부산불교교육대학(이하 교육대학)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거진 불교계 도박파문으로 인한 "자성과 쇄신 결사"의 동참으로 삼보일배 정진을 수행했다. 5월 19일 부산 동백섬에서 교육대학총동창회 회원 250여명은 개회식을 갖고 약 1km의 동백섬 산책로를 일주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우경 총동창회장은 "2005년 재학 당시에 삼보일배 수행을 처음 했는데, 그 때 얻었던 그 감명이 지금의 불교계에도 필요한 것 같아 회장으로써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되었다"며 "차량통제가 동반되는 수행이라 예전에 비해 관공서의 허가를 얻기 쉽지 않은데, 동백섬의 경우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돼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선태 학장은 "이번 수행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이, 일심으로 하심하는 마음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삼보일배에 담긴 참된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는 이론에서 벗어나 불교를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교육 커리큘럼의 하나이며, 이를 계기로 해마다 정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보일배는 불보(佛寶)·법보(法寶)·승보(僧寶)의 삼보(三寶)에 귀의한다는 뜻으로 1보에 이기심과 탐욕을 멸하고, 2보에 속세에 더럽혀진 진심(塵心)을 멸하며, 3보에 치심(恥心)을 멸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면서 자신이 지은 모든 나쁜 업을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생명을 돕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 삼보일배 수행법이며 최근에는 비폭력시위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정토원, 故 노무현 3주기 추모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3주년을 맞아 5월 23일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추모제가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장영달 민주경남도당위원장과 봉화마을 주민을 비롯한 50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

추모제에 참가한 정성태씨는 "아버지 제사에 오는 마음으로 회사직원 8명과 기차를 타고 왔다"며 이날 자신이 직접 만든 열쇠고리를 조문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모의 제사에 참석하는 것은 자식 된 도리로써 당연하다"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일본스님 "일본 정부 첨병노릇 참회합니다"

군산 동국사, '치욕의 36년, 일제강점기 유물전' 개최


동국사 내부에 마련된 '일제 강점기 치욕의 역사 유물전'이 열리는 전시실

국내 유일의 일본식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에서 일본 조동종이 한국불교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는 '일제강점기 치욕의 역사 유물전'이 5월 23일 열렸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본 아오모리현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一戶彰晃) 스님은 개인적으로 수집해 온 조선총독부 발행 금강사(현 동국사) 창립 인가 서류를 비롯해 조선사찰 31본산 사진첩(앨범 23X30), 세계 제2차대전 말 조동종(曹洞宗) 사찰서 참배를 강요했던 황금 도금 전사자 위패 등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희귀자료 110여 점을 전시했다.

일본 조동종의 한국침략 첨병 역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치노헤 스님은 지난 가을부터 일본서 동국사 지원 모임을 결성하고 꾸준히 일본 조동종의 한국 침략 사료들을 수집한 뒤 이에 대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 불교계는 과거 정치적 종교적 침략 사실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일 불교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불교계가 식민지 정책이나 전쟁에 가담 한 것을 성실하게, 진실된 참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제자로서 당연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료들이 사라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영구 기증하게 되었다" 며 관련 자료들이 수집되는 데로 계속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동국사 주지 종명 스님은 "전시회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관람해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치노헤 스님은 9월 일본 조동종(曹洞宗)이 한국에서 저지른 패악을 골자로 하는 〈조동종은 한국에서 무엇을 했나?〉를 출간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일붕선교종, (사)통합선교종으로 이원화

명백한 종단 해종행위 vs 분한 신고후 정식 출범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이 (사)통합선교종으로 이원화 되는 등 일붕선교종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일붕선교종 창종주인 일붕 스님 유지로 1988년 출범한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이 지난 4월초 내부 갈등으로 종정 정각 스님, 총무원장 화엄 스님 등이 주축이 된 (사)통합선교종을 출범하면서 부터다.

종정 정각 스님은 4월 중순 '종단발전을 위해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과 (사)통합선교종으로 이원화하고 종정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종도들에게 발송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종단명칭 변경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강력 반발한 재단이사장 경원스님, 3세 종정 무찰 스님, 현 원로의장 지공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과 종회의원 및 각 교구 종무원장 등이 5월 15일 인천 호불사서 모여 회의를 갖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중심체제 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경원 스님은 "종단 상위기구인 재단이사회의 동의 없이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명칭변경 및 일체행위는 명백한 해종행위"라고 주장하고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총무부장 광은스님은 "(사)통합선교종을 중심으로 군소종단의 통합과 연대를 위해 거듭날 것"이며 "봉축이후 전 종도 분한신고를 통해 정식 출범선포를 통해 일붕 종도의 발전을 지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법상종 봉축전야법회 및 생전예수재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5월 12일 총본산인 안성 쌍미륵사에서 종정 자봉 스님, 총무원장 해월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전야법회 및 생전예수재 회향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부 전야법요식, 2부 생전예수재 회향, 3부 린포체 마정수기 및 스리랑카 무용단 공연으로 진행됐다.



법상종은 5월 12일 생전예수재 등을 봉행했다.

특히 2부에 진행된 생전예수재 회향은 생전에 참회하고 인로왕보살님과 염부제 시왕에게 선법을 닦는 법회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봉축사에서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행복해야 한다"고 함께 나누는 나눔의 봉축을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국제선불교조계종 총본산 성주사 개산

국제선불교조계종(종정 목탁)은 5월 12일 여주 강천면 도전리에 총본산인 성주사(주지 진성)를 개산하고 주지 진산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목탁 스님을 비롯해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이사장 지산 스님,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 여주사암련 회장 성곡 스님, 선불교조계종 종도 및 불자 800여명이 참석해 1부 부처님 이운 점안의식, 2부 개산의식, 3부 스리랑카무용단 공연, 산사음악회로 진행됐다.



국제선불교조계종은 성주사를 개산하고 주지 진산법회를 봉행했다.

교육원장 현담 스님의 종법법맥선포에 이어 종정 목탁스님은 법어를 통해 "아상을 버리고 나를 깨달아 부끄럼 없는 불자가 되어 생활불교, 생산불교, 중생교화,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참 종단이 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정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아 총본산 성주사 초대주지로 취임한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 총본산으로서 위상을 다할 것이며 성주사 추가 부지에 종단을 불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법한 다비장과 부도탑을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부처님 진신사리 박물관 개관, 아미타 대불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진리가 되살아나는 인간방생 도량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031)886-5560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광주법륜사, 어르신 효도잔치 마련

광주지역 포교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5월 22일 금호동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음식과 문화공연, 선물을 증정하는 효도잔치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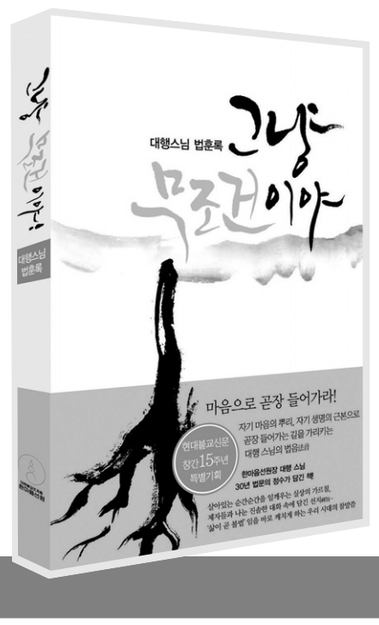
올해 3회째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관장과 연계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참가한 어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주지 월인 스님은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 어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라며 "늘 건강해서, 사회의 많은 경험들을 후세들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월인 스님도 "도심의 아파트 속에서 생활하시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우리 법륜사를 찾아달라"며 "앞으로도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많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월인 스님, 김종식 서구청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 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오색연등 아래서 축구로 한마음된 천진불심

5월 23일 제1회 포교원장배 동자승 축구대회

어설픈 동자승들 플레이에 조계사 앞마당은 웃음바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신도들 응원열기 뜨거워
경기 진행될수록 부상자 속출 경기초반 홍법사 선전에도 불구
체력좋은 신흥사 축구팀 우승 축구화도 없이 멋진 경기 펼쳐


5월 23일 조계사 앞마당서 조계사, 신흥사, 대구불교총연합회, 홍법사 등 4개 사찰팀이 참가한 '제1회 포교원장배 동자승 축구대회'가 열렸다. 신흥사와 홍법사 2팀이 결승전 경기를 하는 모습. 신흥사팀이 홍법사팀을 2:0으로 꺾고 우승했다.

"스님~ 그쪽으로 공차시면 안돼요~. 골대는 이쪽이에요."

"스님~ 공을 손으로 잡으시면 어떡해요. 발로만 차셔야죠."

스님들과 신도들이 대웅전 앞에 둥글게 모여 "아이고 스님~" "안돼요" "얼른 뛰세요"를 연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1주일 앞둔 5월 23일 오후 2시 오색 연등이 수놓아진 조계사 앞마당. 스님들이 절에서 왠 축구를 할까 참배하러 온 신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가 봉축을 맞아 동자승 간의 친목과 우애를 다지고 사찰 간 교류 확대 및 불교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1회 포교원장배 동자승 축구대회'자리다. 머리를 빡빡 깎은 동자승들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오른 채 조계사 앞마당을 열심히 뛰어다녔다. 응원나온 신도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는 동자승들이 마냥 귀여운지 입가에는 연신 미소가 끊이질 않았다. 부모님 앞에 어리광이나 피울 나이에 자신의 몸집만한 법복을 입고 공을 이리저리 차는 모습은 단연 이날 조계사에서 큰 화제였다.

이번 대회는 동자승 단기출가를 마련한 서울 조계사, 대구불교총연합회, 속초 신흥사, 부산 홍법사 등 총 4개 사찰서 37명의 동자승이 참가했다. 경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각 팀 5명의 선수가 전·후반 10분씩 경기를 했다.

첫 경기는 홍법사 1팀과 조계사 경기. 홍법사는 이날 참가팀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해 2개 팀으로 나눠 출전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각 팀 후보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을 꽉 쥔 채 목청껏 응원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심판의 휘슬이 들리자 동자승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며 공 쫓기에 바빴다. 그렇게 경기 시작 후 5분이 지나자 드디어 골이 터졌다. 홍법사의 자살골이었다. 경기를 지켜본 신도들은 배를 움켜잡고 웃어댔다. 1대 0으로 이겨 나가기 시작한 조계사 쪽에서 오히려 신이 났다.

잠시 후 후반전이 시작되자 동자승들도 경기에 어느 정도 적응됐는지 골키퍼도 제자리를 찾고, 전반전보다 안정된 모습이었다. 자살골을 만회하듯 홍법사는 후반 3분에 골을 넣어 동점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어 5분이 지나 한 골을 더 추가해 홍법사팀은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조계사 팀에 참가한 혜호 스님(5)은 "에이 우리 팀이 1등할 줄 알았는데, 경기에 져서 기분이 안 좋아요"라며 격한 감정을 토로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어 홍법사 2팀과 대구불교총연합회의 경기는 1대 0으로 홍법사 2팀이 이겼다.

이어 열린 대구불교총연합회와 조계사는 순위를 정하는 승부차기 끝에 조계사가 5대 3으로 이겨 4위를 차지했다.

예선 뒤 곧바로 준결승이 이어졌다. 준결승에는 부전승으로 올라온 신흥사와 홍법사 1팀의 경기가 진행됐다. 신흥사는 경기시작 2분 만에 골을 넣으며 경기를 리드해 갔다. 결국 경기는 3대 0으로 신흥사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잠시 휴식 후, 신흥사와 홍법사 2팀의 경기가 있었다. 경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동자승들은 지친모습이 역력했다. 부상자들도 속출했다. 경기 도중 선수 교체가 계속 이뤄졌다. 하지만 동자승들은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하나가 되는 돈독한 자리였다.

드디어 후반 10분이 지나며 양 팀 모두 치열한 접전 끝에 신흥사가 결국 홍법사 2팀을 2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서 가장 활약이 돋보인 신흥사 명진 스님(6)은 지친기색 없이 "축구가 정말 재밌어요. 더 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라며 "우리 절 신흥사가 우승해 기분이 정말 좋아요"라고 싱글벙글 했다.

신흥사에게 아깝게 패하고만 법흥사 등진 스님(5)은 "계속 연달아 경기를 하니 너무 힘들어요"라며 "열심히 운동해서 다음에는 꼭 우승할 꺼에요"라고 외치며 아쉬움을 달랬다.

신흥사 팀 명근 스님의 어머니 김미숙 씨(37)는 "축구연습도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축구화도 없이 경기를 해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동자 스님들이 예상외로 멋진 경기를 보여줘 정말 기쁘다"며 "공기 좋은 속초 설악산에서 지내서 인지 스님들이 체력이 좋아졌다. 이런 점이 축구 경기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법사 동자승들을 지도한 이재제 씨(38)는 "이번 경기를 위해 전문 축구강사 선생님을 초청해 연습했다. 참가에 의의를 두고 왔지만 우승을 눈앞에서 놓치니 아쉽다.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연히 조계사에 들러 경기를 관람한 한금옥 씨(65)는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동자승들이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천진난만한 동자승들의 경기를 보니 부처님의 가피를 얻은 듯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인솔담당자인 보리월(법명) 동화사부설 동원어린이집 원장은 "행사가 동자승들의 우애를 다지고 사찰 교류 확대를 위한 자리인 만큼 행사 전 각 사찰의 동자승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템플스테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민희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팀장은 "축구대회는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동자승관련 행사를 통해 2015년까지 동자승 단기출가 참여 사찰 을 20개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포교원 어린이 청소년 위원장 송묵 스님이 신흥사팀에게 우승컵을 수여하고 있다.


조계사에 참배하러 온 신도들이 동자승들의 축구경기에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육각초 7.0ƒ × 34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화 大 9.5ƒ × 11㎝, 연화 中 9ƒ × 10㎝, 연화 小 7ƒ × 6.5㎝

밀납연화 小 7ƒ × 6.5㎝


백목향,목향



향수림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用에서 体로 눈 돌리는 것' 성철사상

5월 24일 백련불교문화재단 제6차 성철 학술포럼

성철 스님이 밝힌 돈오돈수에서의 견성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6차 성철 스님 포럼 '돈오돈수와 퇴옹성철의 수증론'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언쟁을 막고 선수행 풍토를 다시금 펼치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외국인 가톨릭 신부로서 성철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명원 서강대 교수는 '돈오돈수의 견성과 구경각'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성철 스님이 돈오돈수를 강조하신 것은 올바른 견성(見性)을 밝히기 위함"이라며 "스님은 최종 단계에서만 깨달음을 논할 수 있다는 구경각을 통해 깨달음에 대한 언어적 소모를 막고자 했다"고 말했다. '구경각'은 수행이 원만하여 궁극적이고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경지를 말한다.

서 교수는 구경각에 대해 "모든 집착과 미세망념까지도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구경각은 유명한 위빠사나 명상법 스승들과 그리스도교도의 권위 있는 신비가들도 그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명원 교수는 성철 스님의 견성 체험이 원인이 없는 '비인지적 순수한 의식의 체험'인 만큼 그 체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한 일 일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서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은 '역설의 화신(化身)'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역설적 화법을 구사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화두참구 만이 그 불가사의한 체험을 이끌 수 있다"며 "한국불교사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불교 역사상에서까지도 좀처럼 넘보기 힘든 고유한 역할을 했던 성철 스님은 육조 혜능과 같은 스님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했다.

선수행 풍토 다시 펼치자 한목소리

박성배 "문자문화 혹평 이유 있어"

서명원 "수행 펼친 역할 인정필요"

윤원철 "오매일여 취지 이해해야"

이제 수행 자체에 눈을 돌려야

성철 스님의 출가제자였던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는 성철 스님이 불립문자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충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평생 사람만 속이다가 이제 떠난다'고 고백하셨는데 이는 당신까지 포함해 문자문화를 고발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 서문 첫 구절에서 '고금 선지식들의 현언묘구(玄言妙句)가 모두 눈 속에 모래를 뿌리는 짓들'이라고 혹평했다"고 스님의 입장을 설명했다.

"구구한 잠꼬대가 어찌 이렇게 많은고. 둥근 달 밝게 비친 맑은 물결에 뱃놀이 장단 맞춰 금잉어 춤을 춘다."

박 교수는 〈선문정로〉 마지막 문장을 예로 들며 수행실천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용(用)에 눈길을 맞춰왔다. 이제 우리는 체(體)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이것이 성철 스님이 강조하신 '돈오돈수' 사상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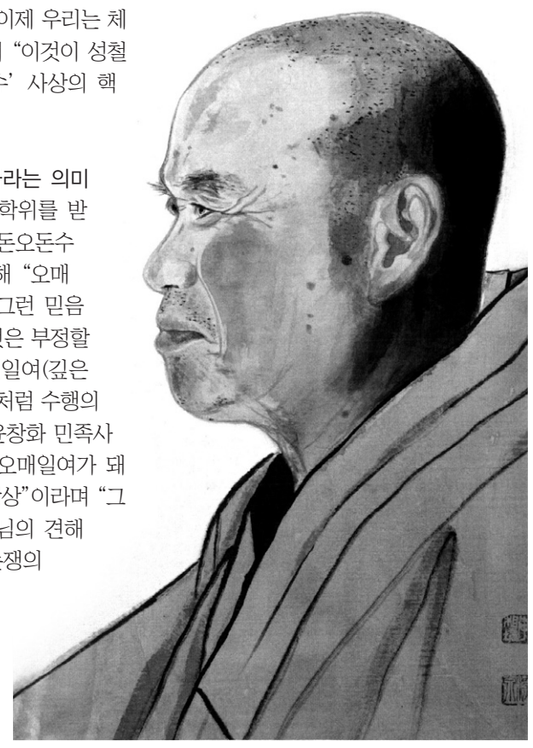
오매일여 진위 떠나 정진하라는 의미

'선문정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윤원철 서울대 교수는 '돈오돈수와 오매일여'란 주제를 통해 "오매일여의 실제 여부를 떠나 그런 믿음이 정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매일여(깊은 잠에 들더라도 깨어있을 때처럼 수행의 자세를 유지하는 경지)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화두참구 상태가 오매일여가 돼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분별망상"이라며 "그렇게 오도된 데는 성철 스님의 견해가 역할을 했다"고 주장, 논쟁의 불을 붙인 바 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오매일여는 화두 참구하는 수좌들의 자기 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성철 스님의 목적은 깨달음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게 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성철 스님이 선사임을 염두에 두고 법문의 취지와 의도의 맥락 속에서 왜 그리 하였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청, 민간 문화재 재단 설립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환수 국제회의 등 개최예정

해외 소재 문화재 14만 9000여 점에 대해 문화재청이 민간재단을 설립해 환수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문화재 환수, 활용 민간 전담기구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7월 중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민간 분야의 장점을 활용해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환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과 긴밀한 사전 협력체계를 상시 유지하는 한편 각 국의 환수 전문가와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해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회의 등을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10월 중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인 '서울 컨퍼런스'를 연다.

한편, 문화재청의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14만 9126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천여 점이 증가했다. 지금까지 환수된 우리 문화재는 지난해 일본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297책과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1천 205책을 포함해 9749점이다.

문화재청은 해외 문화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외문화재 실태조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문화재청은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리랑 로드'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금강경〉 현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자현 스님, 5월 19일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 세미나서

"〈금강경〉 안에 개인화된 현대문화가 내재돼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젊은이들에게 맞는 〈금강경〉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자현 스님은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상임공동대표 현해)가 5월 19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개최한 '조계종 종지종통의 근원적 재인식'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이날 발제에서 "남종선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이 집단적인 북방문화에 비해 개인적인 남방문화를 대변하고 있다"며 "서구화의 과정에서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가치 기준을 재창조 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은 "〈금강경〉이 장례에서 〈아미타경〉 보다 더 독송되고 이사, 개업 등 사회현장에서도 널리 읽히는 것은 연기의 깨달음에 의하면 모든 현상이 해결 된다는 논리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금강경〉에 대한 이런 관점은 현대사회라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치 속에서 항구적 옳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현 스님은 "〈금강경〉의 개발은 모두의 옳음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행복론의 완성과도 통할 수 있다"며 "포교원 주관 하에 여러 판본 대조를 통해 〈표준금강경〉이 완성됐지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금강경〉은 현대적 관점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서양철학과 만나다

6월 1일 동국대 불교문화硏,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한국 고승들의 사상을 서양 철학가들의 사상과 비교 대조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6월 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와 서양철학'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한국 고승들의 사상을 서양철학의 여러 분야와 비교·분석한 발표들이 진행된다.

학술대회에서는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가 '신라 원측 스님의 유식사상과 독일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 비교' △김종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가 '신라 원효 스님의 불교사상과 독일 하이데거 철학사상의 상호관계' △권서용 부산대 철학과 강사가 '신라 의상 스님의 화엄철학과 영국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비교' △김영필 대구교대 다문화교육센터 전임연구원가 '고려 지눌 스님의 돈점사상과 미국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비교'를 각각 발표한다.

또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만해 스님과 독일 니체의 불교이해의 상통·상이점' △홍창성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교수가 '성철 스님과 영국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을 비교분석해 발표한다.

불교문화연구원은 "한국 고승들의 사상이 현대 철학자들의 사상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관점에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세계사상사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포럼

한국불교사를 어떻게 기술 할 것인가? 한국불교사 기술에 대한 학설을 총괄해 다루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6월 2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한국불교사 기술의 몇가지 문제들'을 주제로 제1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몇가지 문제들'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목판연구소장이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제' △김용태 동국대HK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주제와 쟁점'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학통과 인물'을 주제 발표한다. 세미나에서는 '사관'과 '주체', '학통'과 '인물' 등 기술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02)2260-3583

노덕현 기자

'다문화사회와 불교' 학술세미나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곽만연·박문현)는 6월 3일 오후 1시 양산 통도사 반야암에서 '다문화사회와 불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지안) 개원을 기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준호 부산대 박사가 '다문화 담론과 불교정신-초기불교 입장에서' △윤종갑 동아대 교수가 '원융무애와 불교 다문화-대승불교 입장에서' △김선임 동국대 박사가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불교적 대안' △김영필 대구교육대 다문화교육센터 전임연구원이 '한국적 다문화 교육과 불교'를 각각 발표한다. (055)382-3211**노덕현 기자**

부산 장안사 대웅전 보물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5월 24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사(長安寺)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원효대사가 창건해 '쌍계사'로 불리다 애장왕(809) 이후 '장안사'로 불린 사찰이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돼 조선 인조 8년(1631) 의월 스님과 인조 16년(1638) 태의 스님이 각각 중창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7호인 '장안사 대웅전'은 건물의 중건과 중수연대가 명확히 규명된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 건축물로서, 곡선이 강한 지붕과 공포의 짜임새, 창호 구성 등이 건축양식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노덕현 기자

나눔과 공생으로 큰 하나 되어가는 공생실천 캠페인

'공생장터'

법우님들의 경기 부양과 재능 나눔을 위하여 **현대불교 협찬**으로
공동 운영 쇼핑몰 '공생장터'를 운영합니다.
법우님 또는 신행단체에서 생산하시는 제품과 상품,
농산물, 문화 활동, 재능과 기능 등 홍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천여 개의 품목을 상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간단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품목은 사진작업과 온라인 이미지 작업,
쇼핑몰 주문 및 배송관리, 행정업무 등을
본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홍보와 함께 천여 명의 공생인들과 신행단체들이
여러분의 재능과 상품을 홍보하여 드릴 것입니다.

공생장터

참가 자격: 불자 및 각 종 신행단체
문의: 070-4122-0041 공생장터
www.gongseang.com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6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6월 5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정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IT PLUS + ONE
ELSWIVER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을 관리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비스 개선
+ 시스템 보안관리
+ 서버운영 및 관리
+ 업무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PC 유지보수

http://www.elswiver.com http://www.itplusone.com

Venture for Tomorrow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IT PLUS + ONE 으로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IT PLUS + ONE 은 (주) 엘스위버의 정보보안 및 전산 통합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5-1 목련프라자 401호 TEL : 070-4067460 FAX : 0505-507-7460

©Copyright 2012 ELSWIVER co.Ltd. ALL RIGHT RESERVED

ELSWIVER
IT PLUS + ONE

② 마곡사 신록축제, 생태적 상생을 그리다

신록 안의 만물이여 '상생의 합창' 불러라



마곡사 신록축제 개막장면. '천지는 한뿌리 만물은 한몸이니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슬로건에서 상생의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마곡사의 목표가 보인다.

5월 그리고 축제

생각만으로도 푸른 기운이 차오릅니다.

짙을 대로 짙어 가는 연둣빛 숲 속 산사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마곡사 신록축제' 입니다. '춘마곡(春麻谷)' 이라는 수식어가 아니어도 태화산 계곡의 봄은 싱싱하게 물이 올라 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찬란한 풍경의 중심을 장엄하는 천년고찰 마곡사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5월 20일 일요일 아침, 어느새 공용주차장엔 차가 가득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차들이 몰립니다. 바쁜 일이 전혀 없는데도 절로 향하는 발걸음에 속도가 붙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길가에서는 지역 농산물들이 눈길을 잡아당기고 엿장수의 가위소리는 신바람을 타고 박자를 몰아갑니다.

'마곡사 문을 열다' 를 주제로 열리는 본격적인 축제마당은 해탈문에서 시작됩니다. 봉축 연등 아래 연꽃 사진이 전시되었고, 천막 안에서는 아이들이 얼굴에 그림을 그려 넣고 있습니다. 종이컵 연등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느새 손가락 끝에 빨갛게 꽃물이 들었고 염주를 꿰는 아가씨의 손길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천왕문 옆에 줄을 선 사람들은 서원지에 소원을 적기 바쁩니다. 건강, 대입, 성적, 사업, 가정화목, 백년해로 등등 소원은 다양하기도 한데 누군가 커다란 글씨로 '로또 대박!' 이라 써 들고 함박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모든 이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상생의 생활공동체 설립

극락교를 건너며 다리 아래를 살펴봅니다. 팔뚝만한 잉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광객들에게 물고기 밥을 팔았지만 지금은 팔지 않습니다. 인공사료를 던져주는 잠깐의 유희가 시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장난삼아 먹이를 던져주지 않아도 시내에 사는 어족과 미물들은 나름대로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먹이 사슬이 바로 자연의 질서입니다. 인간의 개입은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생명, 나눔, 수행' 근래 마곡사는 이 세 단어를 기반으로 변화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수행하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주변의 모든 생명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것은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화두입니다. 마곡사의 생태적 상생운동은 그 자체가 수행이고 청정국토 건설의 출발인 것입니다.

상생의 생활공동체 구현, 이를 위한 마곡사의 대표적인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곡' (이하 '복지법인 마곡')과 '십승지 소농 마을공동체' 입니다. 복지법인 마곡은 미래를 계획하는 복지 생태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복지라는 이름의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한 셈입니다.

"복지법인 마곡의 사업은 몇 가지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행복나눔 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검진과 틀니 지원, 생계 및 난방 지원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사업 분야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비나 물품을 지원하고 지역 아동들에게 운동화와 교복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장애인 가정의 재활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지요. 장난감 도서관이나 어린이 북 카페는 농촌의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나눔과 배분 사업으로 지역

'마곡사 문을 열다' 주제 다양한 전시 체험
친환경 상품, 자연 에너지 활용법 등 눈길

민들과 함께 설날이면 떡국을 나누고 사월초파일에는 쌀을 나눕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김장철에는 김장을 동지에는 팥죽을 나누고 겨울철에는 옷을 나눠 입으며 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며 모든 사업이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계획 중인 사업들도 금년에는 실행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마곡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근 샘골에서 펼쳐지는 21세기 사하촌 프로젝트 '십승지 소농 마을공동체' 입니다. 소농이란 기계나 화학 비료, 농약 등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노동을 통해 무공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는 버거워 마을 공동체가 필수입니다. 마을공동체는 품앗이와 수확물 나누기 등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통 농경사회의 자연친화적 삶이 구현되는 것이고 연기적 질서의 삶을 훈습하는 것입니다.

마곡사는 이미 마을공동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백범 김구선생이 거닐던 마곡사 솔바람 길이라고 불린다.


신록축제 참가자들이 연등을 만들며 '빈자일등' 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갖추었습니다. 마곡사가 소유한 농지 33만여㎡(10만여 평)를 귀농자들의 생태적 삶을 돕기 위해 내놓고 두레배움터에서 집짓기를 가르치고 전국귀농운동본부가 농사 기술을 가르치는 3자 협력 시스템이 '십승지 소농마을공동체' 의 근간이라 합니다. 지난 1월에 3자 협약이 이루어 졌는데, 마곡사는 농경지를 분양한 것이 아니라 무상대여 형식으로 내놓아 '경작권' 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옥도 공동주택 형식으로 하고 대소변과 음식 찌꺼기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최대한 생태에 순응하는 마을이 될 것이라 합니다.

즐거운 참여 유익한 추억

대광보전 앞마당도 줄을 이은 축제 부스와 색색의 봉축연등이 극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길이 닿는 곳은 일섭문도회가 마련한 불교문화 체험 부스입니다. 유치원에 다닐 것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가 동그란 나무판에 연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청체험입니다. 물감이 자꾸 선을 벗어나 꽃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아이는 진지합니다. 그 옆의 여자아이도 입을 꼭 다문 채 조심스럽게 색칠을 합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집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곡사에서의 추억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환경 책 전시회, 친환경생활용품 전시 판매, 자연미술교실(손수건 꽃물들이기, 에코

마곡사 '생명·나눔·수행' 청규 종무혁신
지역 단체 등 교류 활발 포교에 큰 효과

백 만들기), 대한 에너지 체험학교, 적정에너지 활용기술 시연회. 대부분의 부스들이 생태적 삶의 지혜를 주는 아이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마곡사가 추구하는 '생명, 나눔, 수행' 의 의지가 축제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적정에너지 활용기술 시연회에서는 나무젓가락 3개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고효율의 로켓 스토브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식 가마솥 화덕과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 햇빛온풍기, 자전거 발전기, 순간온수기 등이 자연의 에너지를 생활에너지로 바꾸어 쓰는 지혜를 보여 줍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때 출가하여 지낸 마곡사. 이번 축제 마당에서 김구 선생 관련 역사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청소년들은 김구선생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쓰기 대회도 가졌습니다.

김구 서생이 은거했던 요사를 지나니 마곡천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마곡사 솔바람 길입니다. 백범명상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길은 김구 선생의 산책로였습니다. 민족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바친 선각자의 고뇌가 어린 길입니다.

청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약속

마곡사에는 청규가 있습니다. 청규란 수행집단에서의 공동 규약입니다. '사람의 숲 마음의 숲 태화산 마곡사 수행공동체 청규' 가 그것인데, 대중화합, 종무행정, 재정운용원칙, 기타사항 등 교구본사의 전체적인 살림살이의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살림을 위한 실천 청규 세칙' 은 '생명살림을 위한 불자들의 여덟 가지 청규' 와 '3S+3S의 삶'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청규는 △모든 생명은 나와 한 몸임을 깨달아 공경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 △자연은 미래세대와 뭇생명의 미래를 고려하여 이용한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살리는 공생의 삶을 산다.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아름답고 소박한 삶을 산다. △항상 자신을 살피며 마음을 닦는 수행의 삶을 산다. △분별하는 삶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풍요로움으로 여기는 삶을 산다. △불편함을 즐기며 천천히 사는 삶을 누린다. △잘 썩는 삶, 순환적인 삶을 산다 등입니다.

또 '3S+3S의 삶' 이란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life is Beautiful) △천천히 사는 것이 아름답다(Slow life is Beautiful) △나누는 삶이 아름답다(Share life is Beautiful)의 3S에 생명과 정신, 지구를 생각하는 (Save Our Life, Save Our Soul, Save Our Earth) 불자되기 등입니다.

마곡사 신록축제는 푸른 신록의 기운을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흥겨운 자리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바쁜 일상, 자연을 등지고 달려가는 문명,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거대한 벽이 쌓이는 첨단 시대의 고독과 불안은 5월의 신록 안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서울 첫 전시회

업장소멸 법륜대 法輪臺

불교친환경작품

일시 : 불기 2556(2012)년 6월 21일(목) ~ 27일(수) 오전까지
장소 : 서울 백악미술관(조계사 앞) 1층 / 전화 : (02)734-4205
문의 : 덕유산 청다향(055)941-1083, 010-4595-0017, 010-3852-9500(청오스님)

법륜대 유래와 의미

양나라 때 선혜대사 부협 현풍으로부터 제작, 대정 17년 고려 명종에 건립, 그리고 티베트 사원에서는 법륜대에 경전과 소원을 비는 글을 넣고 돌리면 소원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비전으로 전하여 오는 전생록(경전)을 살펴 보면 이생에서 각자가 갚아야 할 전생의 빚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의식으로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리하여 금반 조성되는 업장소멸법륜대에 수많은 경전을 봉안하여 법사리로 친견하고 있습니다.

– 덕유산 청다향 청오합장 –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11)

아쇼까왕 생명존중 복지에 경탄하다

행실 바른 사람, 죽을 때 허둥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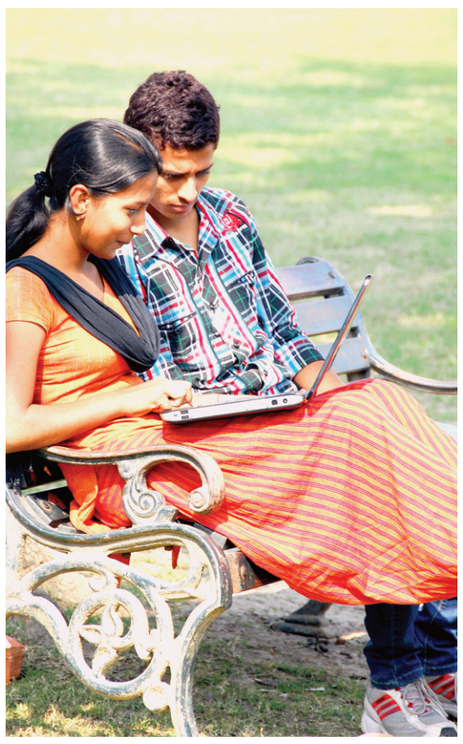
라즈기르에서 파트나까지는 90km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다. 그러나 인도의 교통 사정을 감안하면 3시간 정도 잡아야 한다. 파트나는 비하르주의 주도로서 강가강 남쪽에 있는데, 일행이 그곳을 답사하려고 하는 까닭은 거기에도 아쇼까왕 석주가 있기 때문이다. 파트나의 옛 이름은 빠딸리뿌뜨라, 혹은 꾸수마뿌라이다. 한역경전에는 꽃들이 많다고 해서 화씨성(華氏城)으로 나온다.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왕이 수도를 라자그리하(왕사성)에서 빠딸리뿌뜨라로 천도한 이후 도시는 더욱 번성하게 된다. 마가다국이 멸망하고 마우리아왕조가 인도를 통일한 이후에도 계속 번영했지만 7세기 중반쯤에 순례한 현장은 유적지만 남아 있을 뿐 황폐한 도시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마가다국의 수도 빠딸리뿌뜨라는 원래 '빠딸리'라고 불리는 조그만 마을이었던 것 같다. 부처님이 사리불 고향 나란다마을의 망고동산에 머물면서 바라문교를 믿는 주민들을 교화한 뒤, 다시 이동하여 멈추었던 곳이 빠딸리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설법을 했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행실이 나쁜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손실이 있다. 첫째는 재산이 크게 줄어든다. 둘째는 평판이 나빠진다. 셋째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 겁이 나 두려움이 생긴다. 넷째는 죽을 때 괴로워한다. 다섯째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이와 반대로 계율을 잘 지켜 행실이 바른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둘째는 평판이 좋아진다. 셋째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더라도 자신 있게 처신한다. 넷째는 죽을 때 허둥대지 않는다. 다섯째 죽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난다.

부처님이 빠딸리마을 사람들에게 왜 계율과 행실을 강조하셨는지 궁금해진다. 계율을 지키지 않아서 행실이 나쁜 사람은 죽을 때 괴로워하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와 같은 설법이 재가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출가수행자들도 자문해 봤으면 좋겠다.



쿰나하르 벤치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인도 젊은이들

아쇼까왕, 삼고초려해 무질서한 승단 정화

일행을 태운 버스는 파트나 시내에 진입하자마자 서행한다. 도로변에는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달동네다. 마을사람들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릇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는 듯하다. 대부분 집들의 마당에는 물레가 하나씩 있고, 실제로 작은 잔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잔의 크기로 보아 짜이 잔들이다. 홍차에 우유와 설탕을 넣어 달달하게 마시는 음료수가 짜이다. 인도를 여행하려면 짜이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그래야 인도의 풍토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행이 지금 답사하려는 곳은 파트나 시내에 있는 쿰나하르(Kumnahar)다. 쿰나하르에는 마우리아왕조의 궁전 터도 있고, 아쇼까왕의 이름을 붙인 아쇼까라마(Asokarama)도 있다. 아쇼카라마를 한역하자면 아육왕사(阿育王寺) 혹은 아육원사(阿育園寺)가 된다. 물론 사원 터만 남아 있을 터이지만 파괴된 아쇼까왕 석주가 있다니 답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육원사에는 6만 명 이상의 수행자들이 머물렀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이교도들이 많았다. 이교도들도 노란 색 가사만 입으면 아육원사에 들어와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교도들은 불교수행자들을 비방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다녔다. 뿐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갖는 우뽀사따(Uposatha; 포살법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포살법회란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함께 모여 계율을 외우며 장로의 설법을 듣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참회법회인데, 이교도들은 참석하기를 거부하며 법회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마침내 불교 장로들은 아쇼까왕 즉위 10년에 더 이상 법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목갈라뿟따띳사 장로가 아육원사의 관리를 제자인 마힌다 장로에게 맡기고는 강가강 상류인 아호강가의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 이러한 사실은 곧 아쇼까왕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이교도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포살법회를 하도록 명을 내렸다. 왕의 취지는 여러 종교 수행자들이 서로 화합하라는 것이었다. 그리해 아쇼까왕은 신하를 보내 포살법회를 감독케 하고 왕명을 거부하는 불교 장로는 궁으로 데려와 사형을 시켰다. 나중에는 아쇼까왕의 동생 띳사꾸마라 장로가 잡혀왔다.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고 아쇼까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사형을 중지시켰다. 아쇼까왕은 동생 띳사꾸마라 장로에게 그간의 사정을 보고받고는 참회했다. 부처님 법에 의지하여 통치하고자 인도 전역에 8만 4천 개의 사원을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장로들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아육왕사 터에 있는 동간 아쇼까 석주. 정복 군주면서도 불교에 귀의해 승단을 정화하고, 생명 존중의 통치 철학을 펼친 아쇼까왕의 통치철학은 현대 정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아쇼카왕 '佛法 통치철학'
현대 정치인에게도 귀감

지계 지킨 공덕 5가지
현재 수행자들 자문해야

7년 간의 아육왕사 분란
승단 정화의 어려움 전해

그런데 아육원사의 정화는 쉽지 않았다. 마힌다 장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할 수 없이 아호강가 동굴로 은둔한 목갈리뿟따띳사 장로를 불러오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 띳사 장로는 아쇼까왕이 세 번이나 사신을 보내자 그제야 왕의 부름에 응했다. 띳사 장로는 먼저 아쇼까왕에게 7일 동안 설법한 뒤 자신이 제안한 방법으로 아육원사를 정화했다. 먼저 사원 안에 설치된 이교도들의 신상(神像)들을 치웠다. 그러고 나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불법을 물었다.

"가장 온전하고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한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수행자들의 견해를 들어 본 뒤 이교도들을 가려내어 노란색 가사를 벗기고 흰 옷을 입혀 사원 밖으로 추방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6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당시 승단이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짐작이 간다.

목갈리뿟따띳사 장로가 승단을 정화하고 난 뒤, 그러니까 7년 만에 포살법회는 다시 시작되었다. 아쇼까왕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은 띳사 장로의 공은 승단정화 뿐만 아니라 또 있다. 경전결집이 바로 그것이다. 띳사 장로는 삼장에 통달한 1천 명의 장로들을 선발하여 9달 동안 경전결집을 하였던 것이다.

아쇼까왕, '만물 행복 추구' 생태복지 펴다

답사일행은 버스를 길가에 주차한 뒤 쿰나하르로 입장한다. 안내판에는 파트나 주변의 불교 유적지 사진들과 함께 설명이 영문과 힌디어로 쓰여 있다. 왼쪽으로 몇 십 걸음 걸어가자 동강 난 아쇼까왕 석주가 보호각 속에 누워 있다. 현장은 〈대당서역기〉에 다음과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각문은 희미했나 보다.

'불족석 정사 옆 가까운 곳에 큰 돌기둥이 있다. 높이는 30여 척이고 각문은 흐려져 있으나 그 내용은 '아쇼까왕은 신심이 깊어서 세 번이나 잠부주(인도)를 스님에게 보시한 다음 세 번 모두 진귀한 보물을 주고 사들였다.' 고 쓰여 있다.'

아쇼까왕 석주 옆에는 마우리아 왕조의 궁전 일부로 추측되는 유적지가 있다. 동서로 8열, 남북으로 10열의 돌기둥이 선 흔적이 보인다. 아육원사로 추정되는 터는 현재 연못이 있는 부근이라고 한다. 그러나 파트나 주민들이 사원 터를 잠식하여 지금은 극히 일부만 남아 있다. 저 조그만 터에서 어떻게 6만 명의 수행자가 살았겠는가.

천인결집(千人結集)이라고 부르는 제 3차 경전결집을 할 때 1천 명의 장로가 머물렀던 사원 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협소하다. 답사일행은 연못가에 앉아서 아쇼까왕이 왜 전륜성왕으로 추앙받고 있는지 서로 얘기해 본다. 그의 업적은 이렇게 모아진다.

첫 번째는 재위 4년에 목갈라뿟따띳사 장로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8만 4천의 법장(法藏)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법문을 듣고는 인도 전역에 8만 4천 개의 사원을 짓기로 결심한 뒤 실제로 그만큼의 전법사원을 건립했다는 점이다. 아육원사도 그때 짓기 시작하여 3년 만에 회향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이 건립한 아육왕사 터 일부. 이곳에서 아쇼까왕은 경전결집, 승단 정화 등 불교 발전에 힘썼다.



아육왕사 가는 길에 만난 파트나 주민들. 이제 아육왕사 터 일부는 이들의 생활터전이다.

두 번째는 종교 간에 화합을 도모하되 부처님 정법으로 승단을 정화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포살법회의 전통을 지속하게 하여 계율정신을 되살렸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자신의 아들(마힌다)과 딸(상가밋따)을 출가시키어 수행케 한 뒤 전법사 자격으로 스리랑카에 파견하여 불교를 세계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남인도와 서인도, 그리스까지 전법사를 파견한 사실로 보아 왕의 신심에 경외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다섯 번째는 제 3차 경전결집을 하여 훼손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하였고 특히 각 부파의 논장을 결집하였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는 세계 3대 대왕으로 평가되는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대왕과 비교했을 때 정복왕의 면모는 같으나 그들과 달리 통치철학이 있었다는 것인데, 무력을 버리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여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행복을 더불어 추구하는 생태복지를 실현한 최초의 제왕이라는 점이다. 기원전 3세기경의 제왕이지만 21세기를 사는 정치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아닐까 싶다.

쿰나하르는 파트나 시민들에게 공원의 역할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젊은이들이 벤치에 앉아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일행은 마지막으로 박물관에 들러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을 살핀다. 전시된 유물들이 초라하다. 중요 유적들은 모두 주립 파트나박물관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일행은 파트나박물관을 다음에 들르기로 하고 바이샬리로 향한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콧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헤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 고품격 상품 *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210만원
출발일 :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 일, 6월21일, ~~6월23일~~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핀)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SK broadband IDC
www.coredata.co.kr COREDATA

코어테이타 와 SK 브로드밴드 IDC 가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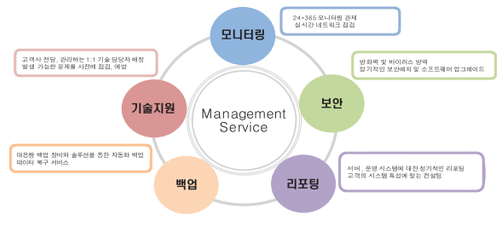
코어데이타 소개
(주)코어데이타는 국내최고의 인터넷 데이터센터 SK Broadband IDC에 입주하여 최고의 인터넷 전산 환경에서 고객사의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대행해주는 IT 아웃소싱 전문업체입니다.

"귀사를 위한 통합 IT 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다양한 고객들에게 얻은 축적된 기술
시스템 안정화 지원

인력지원
고객 당면 고제를 해결하는 파트너
적재적소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력 지원

통합관리
고객의 E- Business
사업 파트너로서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 기대효과
⇨ IT시스템 운영 원가 절감
⇨ 최신기술의 전문 인력과 고품질의 IT역량 확보
⇨ 안정된 네트워크 보안 및 인프라 환경은 원활한 서비스 보장
⇨ 최적의 성능유지로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화 된 IT 체계구현
기업(전략적 경영)
업무효율화
핵심역량강화
기업가치 상승
기업 경쟁력 강화
고객서비스 혁신

서비스 문의 02)6266-3178
긴급 H·P 010-4272-9851 / E-maill : master@coredata.co.kr
위치 : 137-88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SK Broadband IDC 5층 (주)코어테이타





아들을 내려준다는 관음송자(觀音松子) 연화(年畵)〈왼쪽〉와 시대의 미인들을 표현한 미인도 연화〈오른쪽〉. 중국 연화는 무속부터 세시풍속, 생활상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줬다.

풍속부터 미인화까지 중국 생활상 그린 연화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⑦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아름다운 고탑들이 시내 곳곳에 위치한 정정현을 뒤로 하고 고판화박물관과 자매결연한 무강연화박물관이 있는 무강현을 향했다. 지난 2006년에 고판화박물관과 무강연화박물관이 교류를 진행하였던 일들이 달리는 버스 차창 너머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경주대학교의 정병모 교수님과 국립민속박물관의 도움으로 생면부지의 북경중앙미술학원 보송년 교수를 만나기 위해 자택인 북경의 왕부징 거리 뒤편에 위치한 아파트를 찾아 헤매던 일과 보 교수의 서재에서 중국의 다양한 연화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일, 다음날 보 교수의 자가용을 타고 무강으로 향했던 일 등이 새삼 떠올랐다.

이번 무강연화박물관의 방문했을 때도 현재 중국국가주석인 후진타오 주석이 어린 학생들과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무강연화박물관의 연화목판을 인출한 연화 작품을 들고 학생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박물관의 영상을 통해 보면서 중국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 문화발전을 중국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전략이 우리의 문화 정책에 비해 한발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부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 연화(年畵)는 중국 문화의 원형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으며, 중국 연화의 발생은 한 대로 까지 올라가지만 우리와 친숙한 판화기법으로 만들어진 연화는 내몽고 흑수성에서 발견된 사미인도와 관우도이며, 이후 다양한 장르와 쓰임에 의해 발전된 연화는 중화인민공화국 시절에 까지 발전해 왔다.

연화는 우리나라의 세화(歲畵: 동국세시기에 보면 주로 동지 날 임금이 도화원 화원을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신하들에게 동짓날 나눠 줘 정월 초하룻날 대문이나 집안에 붙였던 다고 한다)와 달리 주로 인쇄술에 의해 다량으로 생산돼 집집마다 보급됐으므로, 자연스럽게 판화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

당나라 때부터 조판인쇄가 유행하기 시작해 아무리 늦어도 송대에는 이미 목판으로 인쇄된 연화가 존재했다. 명대에는 채색조판기술도 성숙되기 시작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량으로 채색판화를 인쇄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문인들이 사용하는 시전지(詩箋紙)에 응용됐으며, 후에 연화의 인쇄에 도입됐다. 농업경제가 발전하고 장기간 사회가 안정됐던 청대 초기에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궁정의 왕공대신으로부터 민간의 소상인과 심부름꾼에 이르기까지 새해 연화를 사서 붙였다.

연화 생산의 중심지로는 북방의 천진(天津) 양류청(楊柳青)과 소주(蘇州)의 도화오(桃花塢)는 남북에서 가장 커다란 연화생산의 중심지로 발전했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산동(山東) 양자부(楊家埠), 개봉 주선진, 하북 무강(武強), 사천(四川) 면죽(綿竹), 산서 임분, 복건(福建)의 장주(漳州)와 천주(泉州), 광동(廣東)의 불산(佛山), 후난성 소양(邵陽)의 난두(灘頭), 대만 대남(臺南)등이 연화 산지가 됐다.

각지의 연화는 모두 서로 다른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발전해 왔으며, 중국의 연화도 사회의 발전에 맞추어 문에 붙여서 벽사용으로 사용하였던 초기의 단순한 문신연화를 벗어나 풍부하고 다채로운 제재와 내용으로 발전하게 됐다.

중국연화를 간략하게 분류해 보면, 첫 번째로 신상(神像)의 모습으로 명절에 신령에게 제사지낼 때 붙여 사용하도록 제공됐다. 대표적인 연화로는 관음, 재신, 조왕신, 복록수 삼성도등이 있다. 연화 가운데 가장 일찍 출현한 문신(門神) 양식은 초기에는 귀신과 괴물을 진압할 수 있도록 괴이한 형상으로 그려졌으나, 훗날에는 현실세계에서 무장(武將)의 형상을 흡수해 갑옷을 입은 무문신(武門神)으로 변화돼 집의 대문에 붙여 집을 보호했다.

중국에서는 설을 보내며 문신화를 붙이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풍속으로 발전했으며, 모든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연화가 되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생활의 표현에 중점을 둔 풍속화로 표현됐다. 온 집안이 다 모여 즐겁게 설을 보내거나, 원소절(元宵節:정월 대보름)에 꽃등(花燈)을 구경하거나, 단오에 용선(龍船) 경기를 하거나, 농사에 풍년이 들어 의식주가 풍족하게 하는 등이 표현됐으며, 이러한 풍속화 연화는 중국의 지난날의 여러 가지 모습과 풍부한 사회풍속에 관한 장면을 남겨줘,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소설과 희곡의 줄거리를 표현한 그림(小說戲曲故事畵)으로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백성들은 주로 시비선악과 미추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가 함축되어 있는 희곡을 통하여 오락을 즐기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을 증가시켰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매우 익숙하여 친밀감이 가득했으므로 소설과 희곡을 표현한 연화는 특별히 환영을 받았다. 연화의 내용에는 유명한 문학작품과 민간의 전설 등이 포함돼 있어, 사람들의 도덕심에 중대한 감화작용을 일으켰다고 한다.

연화(年畵), 인쇄술로 다량 생산 보급
중국 판화발전 형성의 한 축 담당
서로 다른 지역적 특색 반영해 발전

다섯 번째로는 장기간 유행한 전통적인 제재로 미녀와 어린이의 모습이다. 미녀는 고대복장의 미녀와 유행복장의 미녀 두 종류로 구분됐으며, 고대복장의 미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대에 간 무란(木蘭)이나 적을 죽여 나라에 보답한 무꿰이잉(穆桂英)등과 같은 여장부로 그려지고, 유행복장의 미녀는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채 유행을 따라 생활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중국에서는 자손과 가문이 영구적으로 발전하기를 중시하였으므로, 어린이를 묘사한 연화는 특별히 환영을 받았다. 어린이는 건강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각종 이야기와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아름다운 축복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는 경전과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經史故事)를 소재로 하였으며, 일부 연화에서는 유가경전에서 내용을 따오기도 했다. 전통미덕을 선양하거나 효도를 제창하는 이십사효고사화(二十四孝故事畵)는 연화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일곱 번째로는 산수와 화조화 연화로 명산대천과 화조충어(花鳥蟲魚)도 연화에서 유행하는 제재였다. 보통 4폭이 한 조를 이루는 화면을 이용해 화조와 산수는 춘하추동으로 구분돼 그려졌으며, 산수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다.

여덟 번째로는 그림의 형상으로 문자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문자도(文字圖) 연화로 표현됐다. 문자도 중에는 신화의 인물인 팔선(八仙)을 조합하기도 하고, 화조와 산수를 삽입하기도 했으며, 주로 대련을 이루도록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신연화를 하나의 분류체계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연화는 일 년 내내 집안에 붙혀 놓을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해 교육의 효과를 높인 게 신연화다. 신연화의 발생은 독일의 콜비츠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루신에 의한 신목판 운동이 전개돼 중국의 계몽운동에 목판이 활용되면서부터 시작됐으며, 중국 공산당에서는 연안시절부터 마오쩌둥에 의해 중국 전통연화를 활용해 공산주의 사상 주입교육에 활용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다양하게 발전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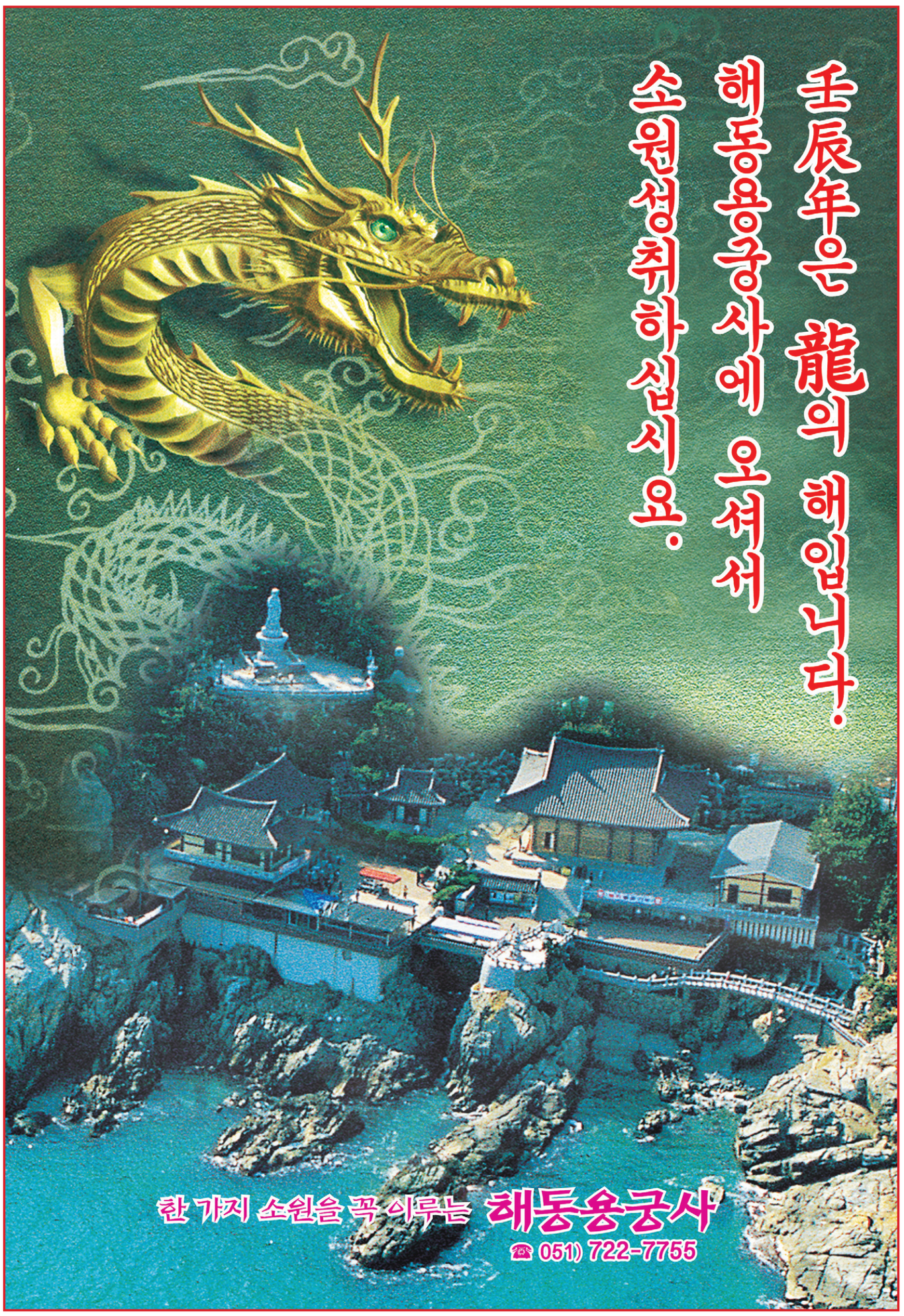
다양한 제재를 통해 현재까지 중국 사람들의 삶을 가장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연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무강연화박물관의 방문이 고판화학회 회원들에게는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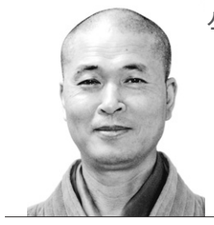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액을 막아준다는 산동지방의 민속 연화. 우리나라의 세화(歲畵)와도 흡사하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제공=고판화박물관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충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의 어머니는 추하고 못생겼다."

問 如何是忠言 師云 你娘醜陋

백 마디의 설명보다 직접 체험한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선사들은 학승이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교육을 즐겨 사용한다. 조주 선사가 그대의 어머니를 면전에서 욕했다면 그대의 심리는 어떠하겠는가? 중생은 충언에 분노가 일어나고, 깨달은 자는 충언에 담담하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도 초월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은 박장대소했다.

問 如何是佛向上事 師便撫掌大笑

계율에 출가 수행자는 대저 큰소리로 웃고 떠들면 안 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사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좌선이나 경을 읽고 있는데 나 혼자 떠들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출가 수행자의 계율은 그것을 범하면 갑자기 하늘이 내려앉을 정도의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자비심을 내게 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계율은 상당히 융통적이다. 역사적인 인물을 볼 때 원효 스님, 진묵 스님, 경허 스님 등은 다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자신에게 더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는 스님이라 해도 마셨던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런 행위는 일단 부처님의 계율을 벗어난 행위이다. 당연히 문제가 될법한데도 고승들이 한결같이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 마지막 단계는 부처도 넘고 조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저 계율이라는 것은 유치원에 간 어린 자들에게 질서를 위해 설정해놓은 것이지, 부처도 뛰어넘고 조사도 뛰어넘은 향상인(向上人)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향상인들이 많을수록 이 땅이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불교가 되는 것이며, 태평한 세계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향상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일까? 향상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계율도 무시하고 조사도 밟아버리고 우주의 주인이 되어 하하하 박장대소를 할 수 있는 기개 있는 자이다.

학승이 물었다.
"하나의 등불이 백천 개의 등불을 불붙인다고 합니다만 그 하나의 등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자, 조주 스님은 한쪽 신발을 발로 툭 차버렸다. 그리고 또 말했다.
"선장(禪匠)이라면 그렇게 묻지 않아."

問 一燈燃百千燈 一燈未審從什麽處發 師便趯出一隻履又云 作家即不與麽問

노대가의 답변이 뒤로 갈수록 지극한 선기(禪氣)를 담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등불은 한 사람의 붓다이다. 한 붓다가 나오는 것은 한 밤중에 횃불을 가지고 나타난 것과 같다. 중생들은 암흑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불빛을 보면 모두 다가와 불을 붙여간다. 그리하여 암흑의 세상이 환한 대낮과 같이 밝아지게 된다.

그런데 수많은 등불을 붙이는 그 하나의 등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붓다가 나와 세상을 밝힌다면 그 붓다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만 가지가 나온 근원을 묻는 것이다.

조주 선사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었다. 바로 신발 한 짝을 발로 툭 찬 것이다. 납자들은 즉시 신발을 발로 툭 차보라. 거기에 수많은 등불을 밝히는 최초의 등불이 있으니 학인들은 그때 즉시 깨달으라.

또 본분을 아는 선문의 작가(作家: 禪匠)라면 그렇게 묻지 않는다 했으니, 선(禪)을 아는 납자는 어떻게 묻겠는가? 본 납자라면, "스님은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하고 묻고, 선사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바로 염화실을 나와 버릴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15〉

팔정도–⑦ 정념(正念)

'무상·고·무아' 늘 통찰하는 바른의식 작용

팔정도의 일곱 번째 덕목 정념(正念)은 흔히 '바른 의식'으로 번역된다. 그러다보니 정념은 두 번째 항목 정사유(正思惟)와 다소 혼동되곤 한다. 정사유가 부처님이 설한 사성제 등의 진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정념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주의집중' 하는 것이다. 즉 정사유가 생각에 의한 판단작용과 관련이 있다면 정념은 주의를 기울이는 작용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는 뜻이다. 찰나의 짧은 시간에도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불법(佛法)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염두에 둔다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념에는 '주의와 기억'이 함께 작용하는 덕목이 된다.

정념의 산스크리트어는 삼약-스리띠(samyak-smṛti)로 삼약이 정(正)이고 스리띠가 염(念)을 뜻한다. 스리띠는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기억한 것을 다시 상기 시키는 등의 기억작용 전반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스리띠가 염(念)으로 한역된 것인데, 염(念)은 지금[今]과 마음[心]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형성자로, 이 순간, 바로 이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념은 산스크리트어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린 한역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불교적인 의미에서 정념은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 등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정념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것과 둘째,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내고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념처(四念處)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념처는 몸[身], 감수작용[受], 마음[心], 마음의 대상[法] 등의 네 가지를 가리키는 말로, 이 네 가지가 무상·고·무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즉 육체[身]와 정신[受·心]과 마음의 대상[法]에 대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계속해서 지니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을 네 가지 관상법(觀想法)이라고도 하는데, (1) 이 몸은 부정한 것이며, (2) 감수작용은 고통을 수반하고, (3) 마음은 무상하며, (4) 법[대상]은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통찰하는 수행법이다. 이 네 가지를 잊지 않고 항상 염(念)하는 것이 정념인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사념처는 일승도(一乘道)라고 하여, 수행의 출발점에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사념처관(四念處觀)의 수행만으로 충분하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중요한 불교수행법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정념을 출가자들의 엄격한 수행방법이 아닌 세간적인 시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에게 있어서 정념은 항상 주의를 태만하지 않고, 깜빡 잊거나 희미하게 기억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큰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위험한 사건이 터지는 것은 작은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부주의는 때로 아주 미미한 것일 수 있고, 큰 죄악으로 볼 수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작은 부주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연결 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큰 재산피해를 보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의 흉악범보다도 수십, 수백 배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정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세간적인 삶과 출세간적인 삶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정념은 한결같이 마음을 주시하는 것이다. 이는 선불교에서 화두를 간(看)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깨어있는 마음과 평상심을 늘 유지함으로서 얻어지는 바른 의식작용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⑳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숫타니파타(經集)〉

일부러 지나쳐 보고자 했다. 멀리 달아나고 싶다. 그런데 자꾸만 되돌아 보게 된다. 몇 번을 돌아보다가, 할 수없이 항복하고 만다.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 앞에 발을 멈추었다. 속으로, 말없이, 몇 번이고, 외고 또 외운다.

누가 이처럼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 "현대시는 메타포(metaphor, 은유)다." 어느 시작법 교재의 지침이다. 그럴진대는 "---과 같이, ---과 같이"라고 하는 직유(simile, 直喩)는 좀 시대착오적인, 시인으로서는 피해야 할 것만 같은 수사법으로 생각되어 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보라. 여기 시인 붓다의 절창(絶唱)을! 더 이상 아름다운 비유를 또 어떻게 만들낼 수 있을까. 어느 시에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 절구(絶句)를 토해낸 미당 서정주(1915~2000) 시인 정도가 버금간다 할 것인가. 그 역시 이 부처님의 비유로부터 변용(變容)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의 제목으로 쓰기에 너무 길어서 앞뒤를 뭉턱 잘랐는데, 사실 직유는 세차례나 반복되고 있다.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라는 구절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런 뒤에 제목에서 인용한 구절이 이어진다.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 그리고 진흙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라고 말이다.

사자, 바람, 그리고 연꽃의 이미지를 통하여 부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 "남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남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 답하고 계신다. 지금 내 눈앞에는 어디에도 걸림없이, 광야를 표표(飄飄)히 방랑하는 나그네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일찍이 "절친한 관계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줄 알아서, 무리 짓기를 저어하고 "홀로 걸어가"는 유행자(遊行者)! 그러면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수행자" 말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제기되는, 어떤 목적을 갖고서 외쳐지는 구호나 "편협된 주장들을 이미 간파하여 /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려 하지 않는 사람" 역시 바람('바람'의 이미지가 여기서처럼 긍정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를 일찍이 본 적이 있던가?)과 같은 사람이고,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 편협된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의 편협한 주장들에 모여들어서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것을 우리는 일러서 당(黨)이라 말한다. 승가는 결코 당이 아니며, 수행자 역시 당인(黨人)일 수 없으리라.

편협한 주장을 매개로 해서,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편당(偏黨/片黨)을 형성할 때, 그런 편당이 많을수록 세상 안에서든 승가 안에서든 평화는 멀어져 가는 것 아닐까. 그들은 저마다 천하의 일통(一統)을 노래하면서, 그들의 방책(方策)만이 민(民)을 살찌우는 일이라 말하리라. 그러나 여기 "그러한



그림 · 박구원

편협된 주장들을 이미 간파하여", 그 어느 곳에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오직 그들 당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칭찬에도 비난에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 그리고 진흙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과 같"은 사람은 한 바탕 웃고 말리라. 저 피비린내는 나는 강호(江湖)의 무림(武林)을 비웃어 (笑傲)줄 수 있으리라.

천하일통(天下一統)의 미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표표히 떠돌면서 자비를 베푸는 수행자, 그가 '진정한 성자'이다. 지금 우리 역시 그런 어른을 대망(待望)하고 있다. 타는 목마름으로.

(" "로 표시된 모든 인용구는 석지현 옮김, 〈숫타니파타〉, 56-57쪽으로부터 인용한 것임.)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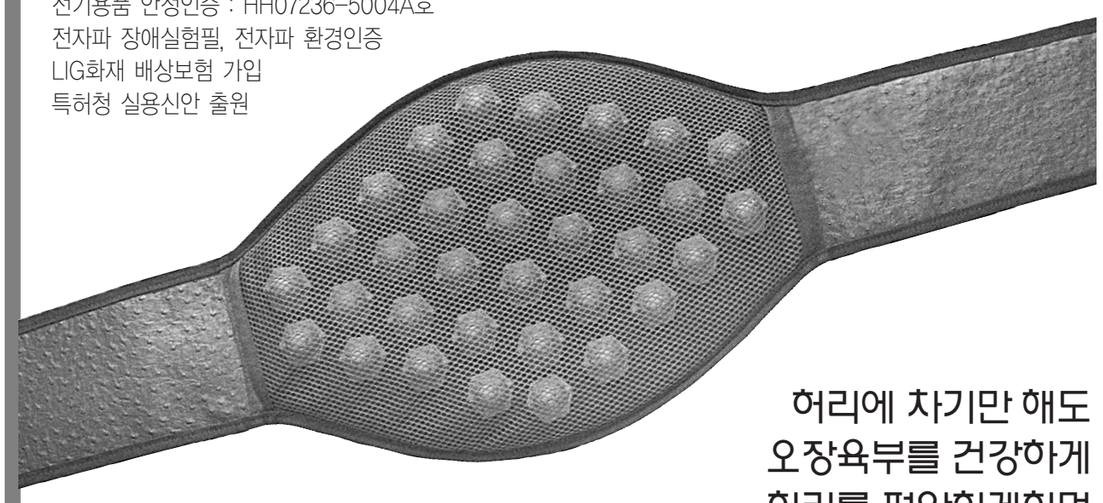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부도전 꼭 참배하신 스님 모습 '무언의 가르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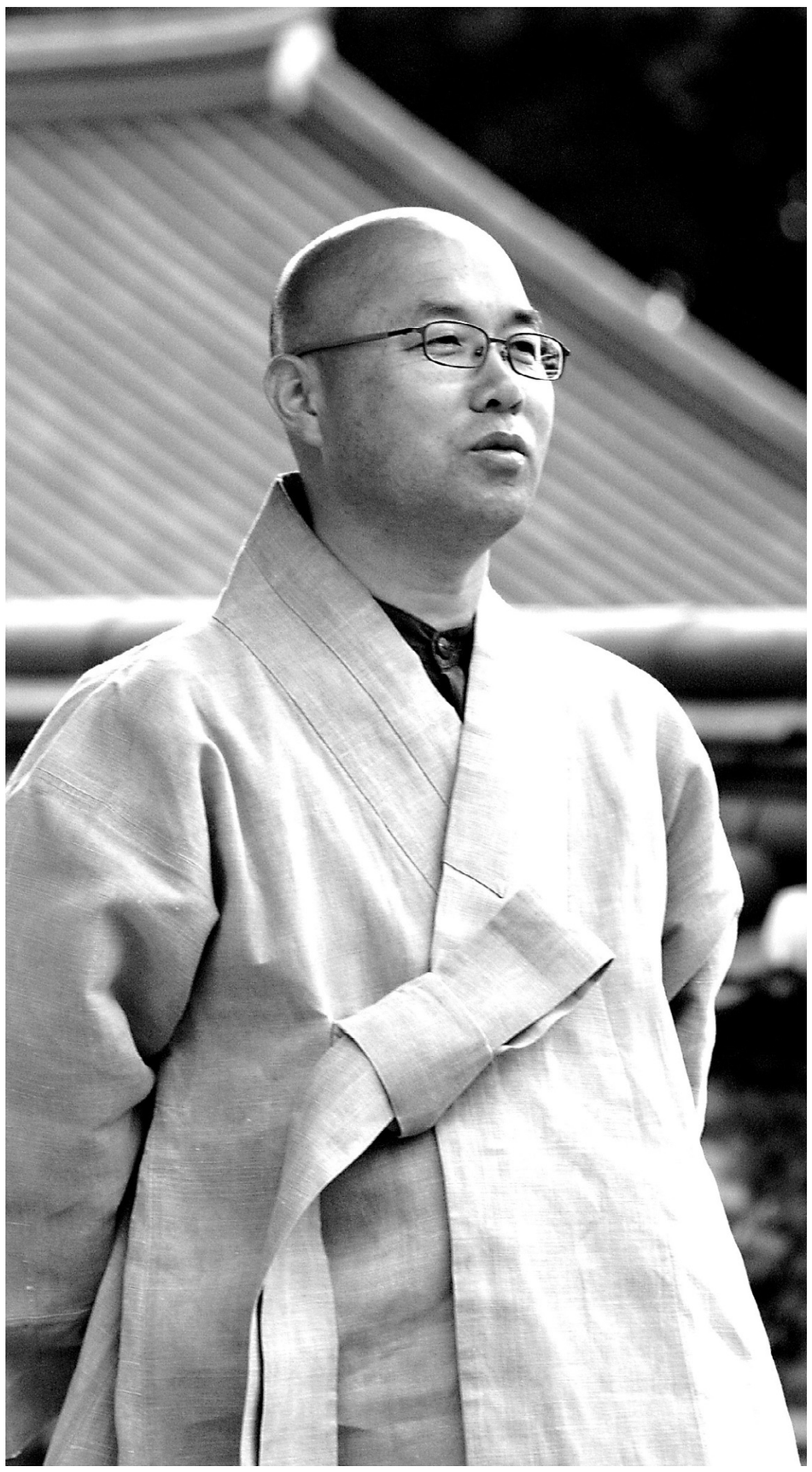
법정 스님이 열반에 들기 하루 전 음악가 노영심씨는 스님 병실에 눈 맞은 동백꽃과 매화를 꽂아드렸다. "저녁에 꽃을 보시고는 '내가 못가니까 네가 왔구나. 예까지 올라오느라고 고생했다.' 고 말씀하셨답니다. 고향에서 온 꽃이잖아요." 노영심씨에게 꽃을 들려 보낸 해남 땅 끝 마을 미황사 금강 스님(47) 말씀이다.

2010년 2월 초 미황사를 찾은 노영심씨에게 법정 스님이 병원에 계시다는 말을 처음 들은 금강 스님은 남달리 꽃을 좋아하는 법정 스님 모습을 떠올리고는 동백꽃을 꺾어 보내드렸다. 그 뒤 다시 미황사를 찾은 노영심씨가 불일암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소리에 함께 불일암을 찾은 금강 스님, 마침 눈만 박혀 있는 매화가지가 눈에 띄자 바로 꺾어 노영심씨 편에 보냈다. "스님께 불일암 매화라고 말씀드리면 '왜 꺾었느냐' 면서 벌떡 일어나지 않으실까? 농을 하면서 보내드렸는데 병실에서 피었대요." 그 뒤에 법정 스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은 금강 스님은 새벽예불 전에 동백꽃과 매화 가지를 꺾어서 첫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스님께 드리면서 '남도에는 꽃

동백꽃과 매화들고 병실에 가서
"남도에 꽃 피었는데 일어나셔야죠"
스님 다비식과 부처님 열반이 겹쳐
목탁도 없이 계향 · 정향…예불을

이 활짝 피었는데 스님도 어서 털고 일어나셔야지요.' 그랬더니 스님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병실에서 가사장삼을 수하고 삼배 드리고 돌아왔어요."

일본큐슈박물관에서 열리는 괘불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아 출국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차안에서 법정 스님 열반 소식을 들은 금강 스님은 일본행을 취소하고 바로 길상사로 달려가 참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튿날 운구를 따라 송광사로 내려갔다. 다음날 다비식에서 하화(下火)하자마자 김해공항으로 가서 출국, 그날 밤 일본에 도착했다. "이튿날 큐슈박물관에 갔어요. 우리나라 괘불은 모두 영산회상도를 모시는데, 박물관 로비에 펼쳐져 있는 괘불은 높이가 12미터 폭이 8미터나 되는 부처님 열반도였어요. 무성한 나무 아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동서남북을 외호하던 사천왕도 모시던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 이젠 모실 분이 없다는 상실감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더군요. 동물들까지도 슬피 우는 도상은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선 천에다가 괘불탱화를 모시는데 일본은 종이에다 그렸더군요. 미황사 괘불탱화역사하고 비슷한 시기인 270년 전에 고전사



고등학교시절 사찰의 서가에 꽂혀진 법정 스님 책 덕분에 불교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금강 스님.

란 절에 모셨던 괘불탱화인데 너무 낡아서 보존처리를 하고 새 단장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커다란 괘불이 한국에 100여점 있고, 일본엔 10여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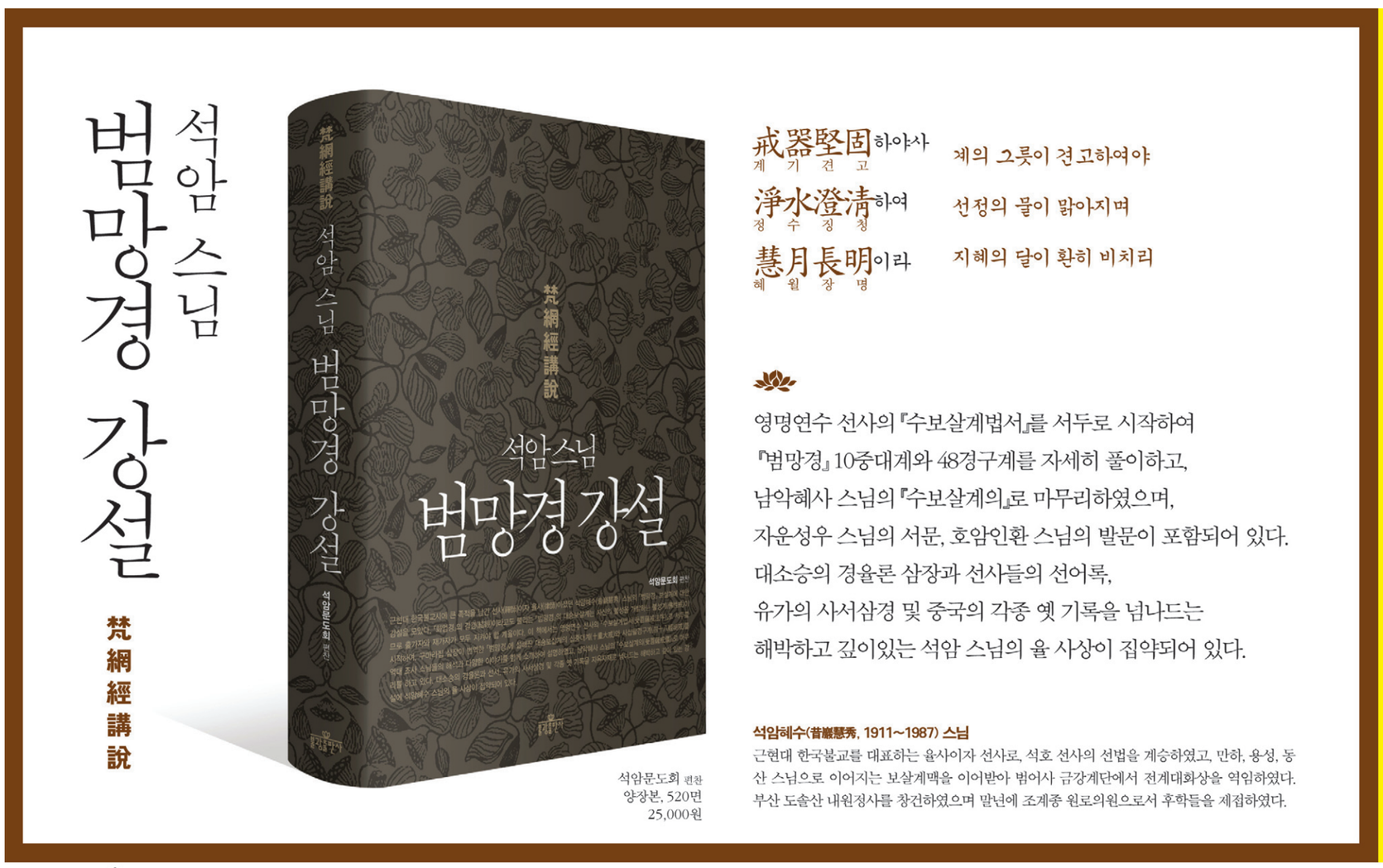
"석가모니부처님 열반도를 보는 순간, 바로 전날 치룬 법정 스님 다비식이 겹치면서 그야말로 무여열반, 남아있는 것이 없는 세계로 가셨으니 더는 만날 수 없다는 상실감으로 휩싸였어요. 살아계시면 다음에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늘 있잖아요. 만남은 언제나 그 자체로 완성된 만남이고 그 다음 만남은 또 새로운 만남으로 순간순간 끝나는 것이지만, 일본에서 열반도를 보니까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끊겼음을 실감했어요. 단절. 열반도 앞에 아무것도 차려있지 않았어요. 기념품가게에서 돗자리를 빌려다 펴고 향을 사르고 한국식으로 예불을 했어요. 간절하게 혼자서. 목탁도 없이, 목소리로만 '계향…정향…해탈향…' 예불을 올렸지요." 금강 스님이 예불을 마치자 예불하는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던 노스님 한분이 곁으로 다가와 당신은 가사를 만드는 스님이라면서 명함을 건넸다. 예불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 스님이 그해 12월에 꼼꼼히 손으로 바느질한 가사와 좌복 깔개를 지어 보냈어요. 향에 편지까지 넣어서." 금강 스님이 펼쳐 보이는 가사와 깔개는 은은하게 향이 배어 그윽한 황금 빛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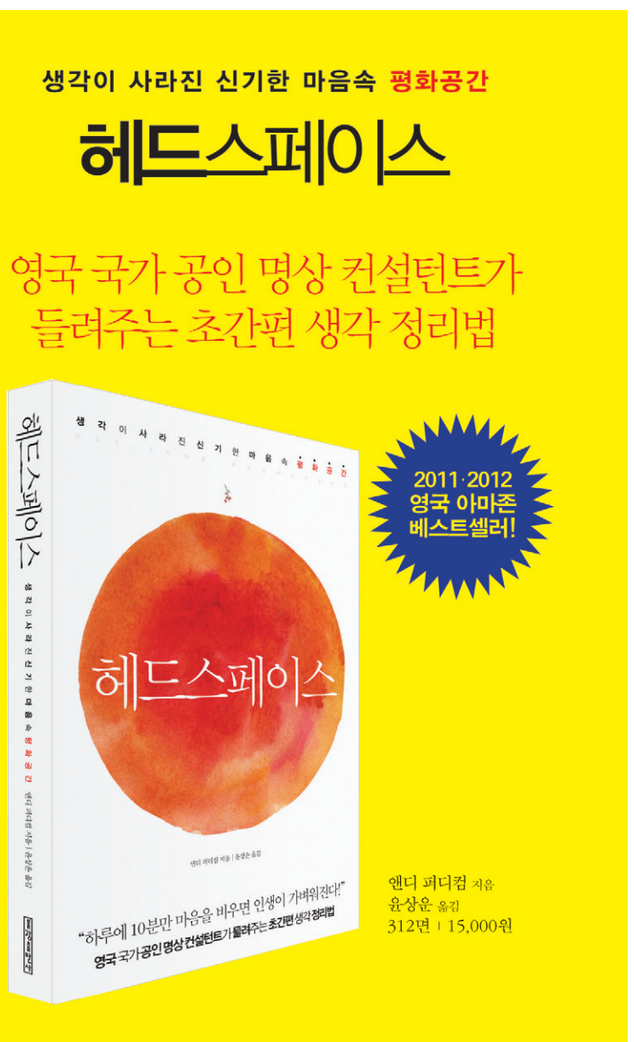
처음만난 불서 육조단경에 취하고
법정 스님 〈말과 침묵〉 읽으며
부처님에 끌려 불교 매력 푹 빠지다
내려가면 못 올 것 같아 절에 눌러앉아

중학교 때 아버지를 잃은 17살 소년은 함께 신나게 놀던 친구들이 다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버리고, 혼자만 덩그마니 남았다. 하는 수 없이 중학교와 담하나 사이를 두고 있어 가기 싫어했던 고등학교에 진학, 공부에 흥미를 잃고 어영부영 한 학기를 보냈다. 2학기 초, 점심시간이면 늘 교무실에 앉아 좌선을 하던 물리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뭐하세요?" "참선" "참선은 왜 해요?" "참선을 하면 행복해져서 뭐든지 잘 할 수 있지." "참선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나요?" "그럼" 문답 끝에 선생님이 건넨 책이 〈육조단경〉이다. 그 책을 하루 밤새 다 읽고 일주일에 세 번이나 볼 만큼 푹 빠져버린 소년은 선생님에게 참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대흥사로 지운스님을 찾아가라고 했다. "토요일에 바로 찾아갔어요. 스님이 지게를 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이호곤 선생님이 찾아뵈라고 해서 왔습니다.' '뭐하려고?' '참선을 배우려고요.' 그랬더니 씨익 웃고는 지게 지고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스님을 쫓아 산에 올라가 나무하는 것을 도왔죠. 스님이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스님과 같이 자고 일요일에 내려올 때 다음 주에 올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책꽂이에서 책을 두 권 뽑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뒤로 주말마다 올라가 돌아올 때는 늘 책을 두 권 뽑아오곤 했어요. 서가에 법정 스님 책도 여러 권 있었어요. 〈서있는 사람들〉과 〈말과 침묵〉도 그때 읽었는데 특히 〈말과 침묵〉은 생생히 살아있는 부처님 말씀에 끌려 여러 번 거듭 읽었어요." 술술 읽히는 법정 스님 책 덕분에 불교가 지닌 매력에 푹 빠졌던 소년이 바로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다. 그렇게 한 학기를 절에 오르내리다가 겨울방학부터는 다시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출가하겠다고 했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중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절에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 스님 밥 차려 드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빨래 해가면서 학교를 마쳤다. "내려가서 학교를 마치고 올라와도 되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내려가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죽어라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졸업식을 한 다음날 첫차를 타고 해인사로 간 금강 스님은 해인사에서 정식으로 행자생활을 다시 했다.

1986년 구산스님 재일에 법정 스님과 처음 현품대조를 했다. "모시고 간 약사암 주지 종일 스님과 송광사 뜰에 서있는데 어떤 보살이 법정 스님한테 가서 '법정 스님이시죠?' 하고 물으니까 법정 스님이 종일 스님을 가리키면서 저 스님이 법정 스님이라고 그러시고는 휘적휘적 가버리세요. 두 분이 닮으셨거든요. 종일 스님은 내가 아니라 저 스님이 법정 스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주고받는 말씀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빙그레 웃고만 있었지요. 어른들 일이라." 만남이라기보다 가벼운 마주침이었다. 그리고 1993년 길병원에서 운영하는 가천연수원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사범교육연수에 교육생으로 참석한 금강 스님은 강사로 오신 법정 스님과 사제 연을 맺는다. "스님이 반기면서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교육생일 뿐인데도 공양을 하거나 차담을 나눌 때 꼭 당신 옆자리에 앉히셨어요. 알고 보니까 법정 스님이 스님들을 잘 챙기지 않으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스님은 저를 늘 살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차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려 애쓰는 모습을 어여삐 보셨나 봐요."

1996년 금강 스님은 해남 옥천면 청룡리라는 마을 앞을 지나다 연잎이 떠있는 것을 눈여겨 봐 두었다. 얼마 뒤 연꽃이 필 때쯤 다시 가보니 끝이 파르라니 눈이 시린 백련이 곱게 피었다. "무안 백련은 붉은빛이 도는데 끝이 파랗고 무척 탐스럽고 고왔어요. 법정 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내려오셨어요." 이어 금강 스님은 어째서 이곳에 백련이 피게 되었는지 수소문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한 분이 강진 성전 금당리라는 마을에서 시집올 때 연 다섯 뿌리를 가지고 와서 집 앞 저수지에다가 심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강진 금당리를 찾은 금강 스님은 '백련당' 이란 정자 앞에 있는 연못을 발견했다. 그 뒤에 법정 스님이 연꽃을 또 보러오셨을 때 '원조 연못이 있다.' 며 스님을 모시고 금당리에 갔다. "귀한 손님 왔다며 차 한 잔 대접하겠다는 연못을 관리하는 할머니를 따라 집에 갔더니 다방 커피







법정 스님이 생전에 해남에 올때마다 들리며 그토록 감춰두고 싶은 절이라 말하며 아껴둔 해남 미황사 주지를 1998년부터 맡은 금강 스님은 '참사람 향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 해 10만명이 넘게 찾는 대가람으로 만들었다.

를 타주더라고요. 스님 표정이 묘하세요. 그래도 정성이니까 말없이 드시더군요. 그때 집 주인이 독립기념관 연못에 우리 연씨를 받아다가 심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불교 꽃이라고 해서 다 캐내버려 씁쓸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 하는 글을 쓰셔서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면서 이야기를 한참해요. 앞에 계신 스님이 법정 스님인지도 모르고. 한바탕 웃고 나서 이 어른이 바로 법정 스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정 스님은 해남 나들이 길에 꼭 고즈넉이 미황사를 다녀가시면서 감춰두고 싶은 절이라고 말씀했다. "다른 스님들은 대개 대웅전만 참배하고 가는데 법정 스님은 남다르셨어요. 오시면 꼭 부도전부터 참배를 하셨어요. 서산대사 이후로 소요대사 법맥으로 100년 전까지 최근세 선사들 부도가 쫙 모셔져 있어요. 역사에도 밝으신 법정 스님은 옛 선사들을 모시는 마음이 지극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길을 닦아놔서 그다지 멀게 느껴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주 좁다랬어요. 길이랄 것도 없는 길이라 고개 넘어가다말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 갈등을 하다가 거의 되돌아와요. 그런데도 빠뜨리지 않고 꼭 참배하시는 스님이 몹시 존경스러웠어요."

금강 스님이 1989년 절이 비었다는 소리를 듣고 은사 지운 스님을 모시고 미황사에 처음 살러왔을 때만 해도 나무와 잡풀이 절 마당까지 들어차 법당에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망가진 절이었다. 2년여에 걸쳐 마당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이곳 저곳을 다듬고 가꾸자 햇살이 경내를 어루만졌다. 예불시간을 빼고 일만 하는 금강 스님을 가리켜 사람들은 '지게 스님' 이라고 불렀다. 금강 스님은 미황사 주지가 되기 바로 전인 1999년 참선수행에 빠져 내내 삼매에 들다시피 했다. "그 전에는 제가 얘길 해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없어지고 사람들이고 사물들이 인정되어지고 마음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이제는 속지 않겠구나. 모양이나, 들리는데, 경력에 속지 않고 살겠구나.' 명확해지더군요. 그 뒤로 책을 보면 확연히 알겠어요. 법정 스님 수필집에는 자비심이 너무 많이 담겼고, 법문집을 보니까

미황사 오신 법정 스님, 부도전부터 참배
송광사수련대회 발전시킨 '참 사람 향기'
"행복과 평화로움 가꿀 사람은 나뿐
깨달음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

'아! 이 분이 확실하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 어른, 뛰어넘으셨구나.' 법문이 연기 · 중도 · 무아 · 공에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금강 스님은 미황사에서 어린이를 위한 '한문학당' , 쉼을 만끽할 수 있는 편안하고 넉넉한 산사체험 '템플스테이' , 나를 찾아가는 수행 '참사람 향기' 프로그램을 운영, 너와 나,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펴뜨린다. "템플스테이 원조인 참선프로그램은 법정 스님이 송광사에서 처음 만드셨지요. 현대인들이 경쟁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내려놓고 힘을 얻어가는 것이 참선 수련이잖아요. 지금은 법정 스님이 수련대회를 시작하셨던 때보다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과학과 정보가 뒤섞여서 경쟁이 더 치열해서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송광사에서 시작된 수련회는 여름에 한철만 할 뿐이지만, 미황사 '참 사람 향기' 는 다달이 셋째 주 토요일에서 넷째 주 토요일까지 7박 8일 합니다." 그 바람에 법정 스님이 그토록 감춰두고 싶어 했던 미황사는 이제 한 해 10만도 넘는 사람이 찾는 대가람이 되었다. 금강 스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미황사를 미얀마 마하시 선원이나 프랑스 플럼빌리지처럼 내외국인은 물론 출가, 재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치유와 휴식을 갖는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을 꾼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위대한 까닭은 사람이 가진 한계, 생 · 노 · 병 · 사에서 비롯된 고뇌를 숙명으로 여겨 절대자인 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한데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도 약물 힘을 빌리거나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수행을 해서 이겨낼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싶어요. 그리고 석가모니부처님이 차별이 없는 '승가' 라는 공동체 모델을 만드셨듯이, 미황사도 출가자만을 위한 수행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태국, 미얀마, 인도 세계도처에 있는 어지간한 수행센터는 거의 다녀왔어요. 여건은 천년이 넘는 역사 기반이 있는 한국이 훨씬 좋아요." 사부대중을 끌어안는 원융회통(圓融回通)을 이루려는 작은 거인 금강 스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마음병을 치유하고 진정으로 자기 삶이 소중함을 일깨우고, 내 행복과 평화로움을 가꾸어야 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깨달음을 주어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하고 싶단다.

그러나 이 같은 성인 프로그램에 앞서 자성을 갖춘 올곧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태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금강 스님, 태교 템플스테이도 준비한다. "어머니가 아이한테 직접 무엇을 해줄 수 있을 때는 뱃속에 있을 때뿐입니다. 이미 태어나 개체가 되었을 때는 해줄 수 없어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할뿐이지. 그러나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느낌으로 바로 전달이 되지요. 절은 새벽 세시부터 여섯시까지 만물이 모두 깨어나는 가장 맑은 시간에 시작하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공간이잖아요. 이 뒤 숲속만 해도 약육강식이 존재하지만 이곳만큼은 싸움과 차별이 없는 순수하고 향기로운 공간이에요. 맑은 물과 천년이 넘게 내려오는 수행 기운들이 넘치는 곳에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와서 잠시 있더라도 맑은 기운을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새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듣는 태교와 음악을 틀어주는 태교는 견줄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합방하기 전에 백일기도를 먼저 했잖아요. 생명을 하나 태어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부처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제로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세상 부처님 씨앗이 모두 움터서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위대한 탄생



동국대 명예교수

위대한 탄생.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그 개념이 막연한 듯 하여 어려운 말로 다가온다. 그러나 부처님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지금의 네팔인 가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탄생한 실달태자를 이르는 말이다. 둘째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비단 실달태자 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평등의 불교가 된 것이다. 마야부인은 흰코끼리가 일곱 색 무지개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불본생경〉에 태자는 태어나 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 삼계개고아당안지"라고 외쳤다고 한다. '천상천하유아독존' 이란 말은 번역된 말이므로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svarāga ham asmi loka 라는 범어를 번역한 것이다. sva는 '스스로' , rāga는 '집착' , ham 은 '버리다' , asmi 는 '내가 존재한다' , loka 는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중생세계를 뜻하는 말이다. 종합해 보면 '집착을 다 버리고 나면 하늘의 광명이 중생세계에 스스로 비쳐 내가 존재한다' 는 말이 된다.

부처님은 애당초 집착을 멀리한다는 것이 수행의 기본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생세계를 달리 사바세계라고도 한다. 사바(saha)가 '참는다' 는 뜻이므로 사바세계란 참는 세계라는 말이다. 일상의 어떤 상황을 놓고 이래저래 헤아려 보아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말을 한다. 부처님의 분상에서 보거나 가르침은 하여튼 참았어야 상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석가 세존은 생사유전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원을 가지고 세상에 몸을 나투셨다. 긴 긴 49년 간 설법하고 교화하는데 앞장섰다. 한 때는 태자가 타락했다고 비난하며 떠났던 다섯 비구를 구제하고자 도를 이룬 부다가야에서 꼬박 열하루 걸려 녹야원에 당도하여 사제법을 설하였다. 어느 곳에서는 45년 동안 설법했다고도 한다. 45년 설법의 경우는 29세에 출가하고 35세에 성도하여 80세에 입적한 것이고, 49년 설법의 경우는 19세에 출가하여 12년 동안 수행을 하고 31세에 성도하여 80세에 입적한 것으로 말한다.

원에는 일반적인 원이 있고 종교적인 원이 있다. 일반적인 원이란 욕망의 소산이다. 욕망은 부표(浮漂)가 없다. 그러므로 욕망 때문에 항상 익사할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반면에 종교적인 원은 나보다 상대를 챙긴다. 그래서 나와 상대가 동시에 불도를 이루기 바라는 '자타일시성불도' 를 발원하는 것이다.

태자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다. 바로 기연을 만난 것이다. 기연이란 시기인연의 줄인 말이다. 범어로 kalā -āśaya 라고 한다. kalā는 '시간' , '순간' 이란 말이고, āśaya 는 '쉰다' , '정지한다' 혹은 '마음의 정리' 라는 말이다. 도를 이루기 전까지의 '그 동안의 잡다한 생각이 한 순간에 정리된다' 는 의미이다. 그래서 별이란 대상을 보는 순간 온갖 망상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조사들의 경우 소리를 듣고 깨닫는 기연을 만나는 사례가 무수히 나오고 있다.

연전에 방송에서 신행상담을 한 적이 있다. 어느 청신녀의 질문내용이 〈금강경〉 법신비상 분의 사구게였다.

약이색견아	若以色見我
이음성구아	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	是人行邪道
불능견여래	不能見如來

부처님, 깨달은 사람이란 의미
'베품의 미덕' 보여주려 출현
불탄일을 '부처님오신날' 로

만일 색신에서 나의 참 모습을 보려 하거나
설법하는 음성서 내 참 모습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빗나간 도를 행하는 자이므로
여래의 참 모습인 법신은 보지 못하리라.

석가여래의 위대한 탄생을 음미해 본다. 세상에는 없어도 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녀리도 그 몫이 있다.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여래는 혼탁한 세상에 빛으로 몸을 나투셨다. 그래서 색신이나 음성으로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소유에 탐닉하는 중생에게 베품의 미덕을 보여주려고 출현하였다. 지니는 즐거움보다 나눔의 즐거움이 더욱 수승하다고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 이 지금과 같이 일반화 되기 전에는 초파일을 불탄일, 욕불일 이라고 하였다. 초파일을 현대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총무원 공모가 있었는데 동국대학교에 근무했던 김운학 스님의 '부처님 오신날' 이 채택되었다. 내친김에 초파일을 맞아 그 내력을 밝혔다.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구글, 명상에 '푹' 빠지다

사내 강좌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인기 급증

자유로운 근무 환경으로 직장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구글(Google)에서도 '업무 스트레스'는 존재하는 것일까?

출근해 비치발리볼 경기에 열중할 수도, 책을 베개 삼아 낮잠을 잘 수도, 자전거를 타고 구글 사옥을 질주할 수도, 카페에 앉아 잡담하거나 먼 산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도 있는 구글의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글 직원들은 지금 '자신을 찾아가는 명상'에 푹 빠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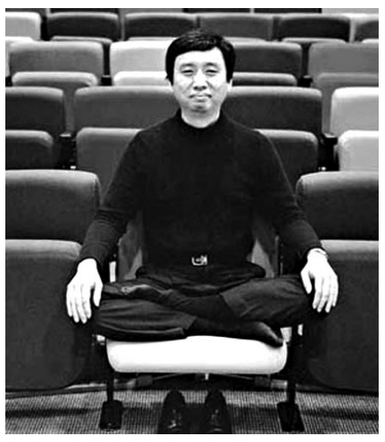
뉴욕타임스(NYT)와 중국일보(China Dialy)는 최근 "구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라(Search Inside Yourself, 이하 SIY)'는 명상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보도해 주목된다.

직원들에게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에는 이미 1000명 이상이 수강했다. 특히 1년에 네 번 있는 강좌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고 있는 사람은 차드 멍 탄(Chade-Meng Tan)씨다."구글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으로서 매우 빠르게 변하는 정보기술 환경 물론 각국의 정보기술 정책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떠나 직원들 모두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설명한 탄 씨는 "그런 여건은 우리의 자아를 깨지기 쉬운 상태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SIY는 그런 환경에서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구글에 입사한 초기 멤버로 검색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8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탄 씨는 이미 명상을 하고 있는 다른 구글 동료 9명과 함께 SIY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1년 4번 강좌에 대기자 줄이어
"자신을 찾는 여유 배워" 호평





구글의 엔지니어인 체드 멩 탄(Chade-Meng Tan · 41 · 사진 왼쪽)은 현재 사내에서 명상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강좌를 들으며 명상중인 구글 직원의 모습(사진 오른쪽)

7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집중(attention training)', '성찰(self-knowledge and self-mastery)', '학습(creation of useful mental habits)' 등 세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조사하고 있는 리차드 페르난데스(Richard Fernandez, 심리학자)는 "참여자 대부분 업무 현장에서 예전보다 깊은 통찰력을 보였고, 하급자의 경우 예전과 비교해 상급자의 요구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등의 정신적 여유를 보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특히 상급자들은 리더로서 탄력성을 보였다"데 주목,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급자 대부분 '더욱 신중하게 듣고', '격앙된 토론장에서도 평온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탄 씨는 '정말 유쾌한 사람(Jolly Good Fellow)'으로 불린다. "최고만을 바라는 사회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고 '한 번뿐인 인생, 심각하게 살지 말자'를 모토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동료들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찾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SYI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자, 〈내면을 찾아라-성공 행복에 이르는 뜻밖의 길(Search Inside Yourself-The Unexpected Path to Achieving Success, Happiness)〉을 펴냈다. 이 책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 한국 · 브라질 · 슬로베니아 등 17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 본사 원형 강의실에서 탄과 맥레서(Marc Lesser) 스님의 공동 강의를 들었다"는 SIY 프로그램 수강생 빌 두안(Bill Duane, 구글 엔지니어)은 "강의 내내 감정을 나누고 정체성에 주목하는 마음의 길을 다지는 훈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 새로운 정보기술에 휘둘리고 얽매이는 자신을 풀어줄 수 있는 여유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두안 씨는 "겉보기와 다르게 이곳 구글 본사는 엄청난 업무 중압감이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곳"이라며 "SIY 강의는 다른 어떤 곳보다 이곳 구글 본사에 필요한 강의"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축구, 불교와 회교의 '대화 아이콘'

태국 빠띠니, 불교와 회교간 축구 경기 열려

2004년 회교도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종교간 유혈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태국 남부지역에서 종교간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방콕 포스터(Bangkok Post)는 21일 "불교를 대표하는 빠띠니 에프씨(Pattani FC)와 회교를 대표하는 나라띠왓 에프씨(Narathiwat FC)가 태구 남부 항구도시인 빠따니(Pattani) 시에서 축구 경기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불교와 회교의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국이 축구를 통해 종교화합을 도모했다. 사진은 경기전 악수를 하고있는 모습

태국 남부에서는 회교 분리주의자들이 2004년 1월 태국 남부 나라티왓을 장악한 이후 얄라(Yala), 하타야이(Hat Yai), 빠띠니 등지에 발생한 총기 및 폭탄 테러로 지금까지 5000여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장기간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회교도가 대다수인 지역 주민과 분리독립 세력을 한 축으로 하고 군 · 경, 민병대, 불교도 주민 등을 다른 축으로 하는 오랜 갈등이 낳고 있는 비극이다.

이번 불교와 회교간 축구 경기는 지난해 9월 21일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재로 태국 정부와 현지 회교 지도자들이 분쟁 종식을 한 이후 종교간 첫 공식 행보라는 점에 주목한 방콕 포스터는 "빠띠니에서 개최된 종교간 축구 경기는 당분간 태국 곳곳에서 진행되며 갈등의 벽을 허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미니 · 비구니 스님, '쿵푸' 수행

네팔 아미타불 두룹파 수녀단, 승단에서의 여성 지위 높인다

네팔에서 불교 수행과 쿵푸 수련을 병행하는 사미니와 비구니 스님들이 화제다. 네팔, 인도, 티베트, 부탄 등지에서 온 9세부터 25세까지 사미니와 비구니 스님들로 구성된 아미타불 두룹파 수녀단(Amitabha Drukpa Nunnery, 이하 ADN)이 그 주인공이다.

파키스탄 온라인 매체 데일리 타임즈(Daily Times)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악지대 인근 지역에서 찾아든 사미니와 비구니 스님들이 불교 수행과 쿵푸 수련을 병행하면서 기존 승단에서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승단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4년 전 ADN에 합류한 지그미 왕척 라모(Jigme Wangchuk Lhamo · 14 · 부탄) 스님은 "과거 승단에서 우리의 역할이란 청소, 세탁, 요리 등의 노동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쿵푸 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다잡고, 불교 수행에 더욱 매진하고 있어 과거보다 더욱 행복한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쿵푸를 배우고있는 네팔 사미니 · 비구니 스님들

아미타불 두룹파 수녀단(Amitabha Drukpa Nunnery)은 현재 사미니와 비구니 스님을 비롯해 여성 불자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Shaolin)의 후원을 받아 쿵푸를 배우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하는 지성

세계의 불교학자(19)

로버트 서먼 美 컬럼비아대 불교학 명예교수



미국 컬럼비아대 불교학과 명예교수 로버트 서먼은 여러 가지로 유명한 사람이다. 서구인 최초로 티베트 승려가 됐고. 환속 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1세대 티베트 불교학자로 이름을 알렸다. 세계적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친구이자 조언자이고, 티베트인 인권을 위한 뉴욕 티베트 하우스 대표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배우 우마 서먼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런 다채로운 이력만큼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1941년 상류층에서 태어난 서먼 교수는 명문 사립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재학시절 쿠바 혁명 게릴라에 지원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거부당하고 학교에서도 퇴학당한다.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1959년 하버드대 영문과에 입학한다. 하지만 대학시절 왼쪽 눈을 다쳐 실명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뀐다.

실명 후 삶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는 1964년 다람살라로 가 달라이라마 만나 출가를 하게 된다. 서먼 교수는 당시를 "나는 2천년 불교공동체에서 깨달음을 찾는 수도자로 머물길 원했다. 내면세계는 풍요로웠고, 삶을 즐거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며 "내가 배운 것들은 서구사회에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회자한다.

하지만 1967년 서먼 교수가 미국으로 귀국했을 때 승려라는 경력으로는 서구사회에 뿌리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환속해 학계로 돌아간다.

그는 중요한 티베트어와 산스크리트 문헌들을 번역해왔으며, 특히 쫑카파 저술에 집중했다. 이밖에도 아시아 불교 승단의 역사, 비판적인 불교철학 등에 대한 저술과 강의에 힘을 쏟았다. 근자에 들어서는 티베트의 정치, 문화, 철학불교에 대한 강연과 저술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1998년 발간한 〈안으로부터의 혁명〉은 그의 평생의 수행과 연구가 현대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에 녹아있는 책이다. 그는 개개인과 사회 양자가 깨달음을 성취할 때, 개인과 사회는 성공적인 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안으로부터의 혁명은 존재의 실체를 통찰할 수 있게 하며, 그 깨달음은 고통받는 존재들을 향한 자비심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개인의 내적인 혁명들이 현대 사회의 진보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고 이를 위한 '깨달음의 운동- 안으로부터의 혁명'을 주장한다.

그의 진보적인 입장은 단순히 강의실에 머물지 않는다.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사회 변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실제 그는 강연과 대중 서적 저술을 통해 미국 내 불교를 전하고 있다. 학계보다는 대중들 속에서 미국의 대중문화와 불교의 교차점을 찾는데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 기어와 티베트인 인권을 위한 티베트 하우스 설립을 주도했고, 이런 활동으로 타임지의 '미국을 움직이는 25인의 명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타임지는 선정 이유로 미국 내 동양정신문화의 정수인 불교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타임지

서구인 최초 티베트 승려
환속 후 쫑카파 번역 집중
미국 내 불교문화 전도사
최근 경허 관련 다큐 출연

에 따르면 "아시아로부터 미국으로 전해져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자이며 활동가, 불법을 펼치는 전사"라고 소개했다. 특히 TV 전도를 통해 미국 기독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한 전도사 빌리 그레이험을 빗대어 불교계의 '빌리 그레이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시아 승단에 많은 관심이 있는 서먼 교수는 최근에는 한국불교와의 인연도 새롭게 쌓아가고 있다.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을 맞아 기획중인 TV 다큐 출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서먼 교수는 경허 선사상이 갖는 시대의 의미에 대해 쫓는다. 특히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의 대담에서는 경허 스님이 한센병 걸린 여인을 데리고 한 방을 쓴 일화가 가장 감동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계율에 얽매이는 사람은 '뭘 하지 마라'에 묶이는 데, 고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경허 선사는 득도를 하신 분이다. 경허 선사가 살아계시다면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불교미술 한류 바람 파리로 향해

스페이스선 '연꽃과 붓다 Lotus et BOUDDHA'

한류 열풍을 타고 불교 미술도 파리로 향했다. 봉축을 맞아 스페이스선+가 주최하는 '연꽃과 붓다 Lotus et BOUDDHA' 전이 6월 9일까지 프랑스 파리 갤러리89에서 열린다. '한국 불교 미술 작가 6인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는 동국대 미대 출신 작가 6인이 참여해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스페이스선+는 "프랑스 갤러리89와 공동기획한 전시다. 자연 생명 환경 등 공생적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불교적 가치들을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개성 있는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파리 현지인들에게 불교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국대 미대를 졸업한 6인의 불교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김수정 '연화무늬'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박경귀 '소원을 말해봐' ▷이상기 '십이각 소반' ▷이승주 '가족' '이루어지기' ▷이해기 '탄생' '적멸' ▷조수연 '연1(蓮)' '춘연(春蓮)' 등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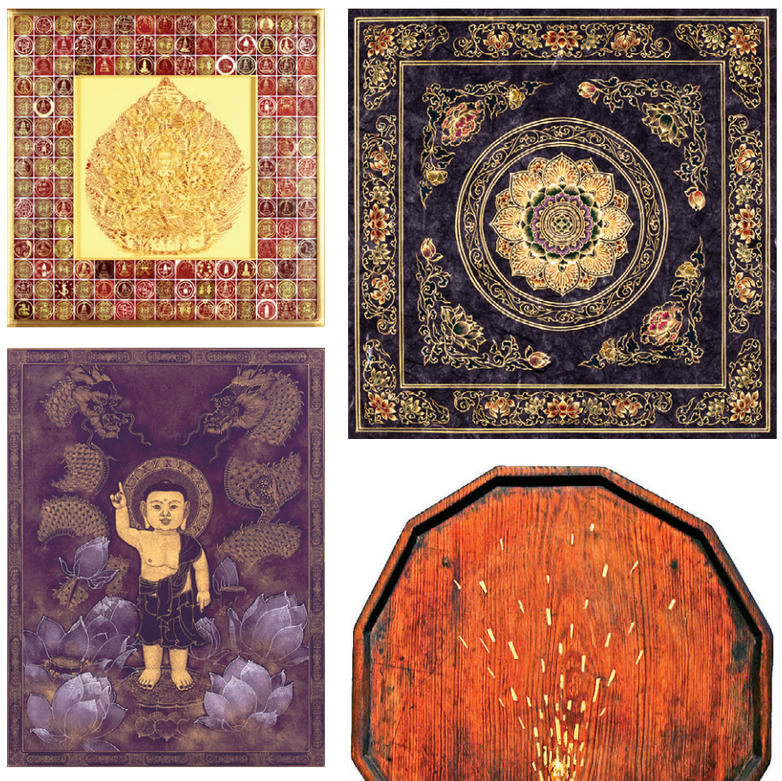
스페이스선은 "참여 작가 모두 불교를 소재로 꾸준히 작업을 해온 작가들이다. 한국 불교미술 역사의 맥락을 잇는 것은 물론 각자 특색 있는 다양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프랑스 현지에 한국 포스트 불교미술의 전개와 방향 그리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불교미술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한국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국대 졸업 불화 작가 6인 모여
프랑스 파리 갤러리 89에서 전시
자연 생명 환경 등 공생 가치 전달
불교미술 방향과 미래 제시

특히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을 다룬 이해기 작가의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먹색과 금색 등으로 표현된 부처님의 모습은 중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모습과 열반에 든 모습을 표현해 붓다의 자취를 그려낸다. 또한 박경귀 작가(스페이스선+원장)는 연속 무늬속 관세음보살과 연꽃을 표현 불성으로의 귀의를 작품으로 승화해 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스페이스선+는 6월 9일까지 프랑스 파리 갤러리89에서 동국대 미대 출신 6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귀 '소원을 말해봐' ▷김수정 '연화무늬' ▷이상기 '십이각 소반' ▷이해기 '탄생'

"불교음악 경쟁력 강화 하겠다"

음악인 한자리 모여…한국불교작곡가협의회 창립

작품 관리 및 후배양성 도모

불교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불교 작곡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불교음악협의회 한국불교작곡가협의회(회장 최영철, 이하 한국불교작곡가협의회)는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식을 갖고 창립총회 및 임원 취임법회를 진행한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회장에 최영철 씨가 취임하며 수석부회장에 정부기 씨, 부회장에 이찬우 조영근 김동환 박범훈 씨 등이 임명된다. 한국불교작곡가협의회는 ▷불교음악의 다양한 발전▷경쟁력 강화 ▷자생력 확보 등을 비전으로 내세운다. 주요사업으로는 ▷불교음악인들의 친목 및 소통 기능 ▷창작활동 ▷전문 작곡가 양성 및 교육 ▷불교음악의 조사 및 평가 ▷전문지식(음악지도) 기부(보시) 사업 ▷작품관리 및 저작권 옹호 등을 내세운다.

황학현 사무총장은 "그동안 불교음악인들이 단체 결성을 위한 시도를 여러번 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각각 흩어졌던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이를 통해 불교 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후배를 이끌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한국불교작곡가협의회는 앞으로 ▷후배 양성 ▷불교음악 정체성 확보 및 위상 재고 ▷찬불가의 분류와 선별 및 수정▷신작 찬불가 제작 독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가 창작 보급 ▷불교음악인의 저작권 보호와 지위향상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황학현 사무총장은 "전국의 불교작곡가와 음악인, 그리고 그동안 불교음악에 관심을 보였던 모든 사부대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우리의 목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 발원하며 불퇴전의 정진을 거듭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아름다운 茶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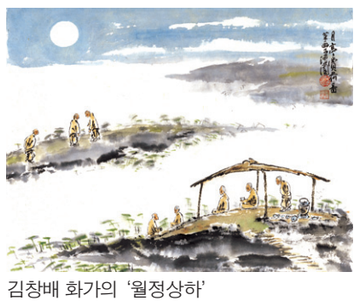
담원 김창배 화백 초대전

'담원 김창배 화백 초대전'이 6월 4일까지 인사동 윤갤러리에서 열린다.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 기획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담원 화백의 '한국 선묵화, 아름다운 차(茶) 展'이라는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동심' '다인' '다일 생애' '차음' '선정' '수심' '월정상하' 등 30 여 작품이 전시된다. '월정상하'는 달빛 아래서 스님들이 연꽃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는 장면을 수묵으로 표현해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차 그림 전문 연구가로 알려진 김 화백은 차와 그림의 접목을 시도한 서적 7권을 펴낸 바 있다.

또한 그림과 불교의 만남을 통한 선화를 연구하는 작가로 선묵화에 대한 8권의 화첩과 책을 엮어 냈다. 정혜숙 기자



김창배 화가의 '월정상하'

유화로 펼친 '만다라'

비공 추상화전 6월 5일까지

비공스님의 '비공추상화전'이 6월 5일까지 물파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만다라를 주제로 작품 31점을 유화의 질감으로 표현했다.

스님 작품의 추상적인 선들은 세상의 온갖 물상 그 가운데서도 살아 있는 상징한다.

미술평론가 신항섭 씨는 "비공스님의 작업은 오로지 순수한 예술가적인 혼을 끄집어내는데 모아진다. 순도 높은 의식은 다양한 이미지의 선으로 표현된다. 그 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일종의 만다라일 수도 있다. 우주만상 또는 자연계의 실상 그 진수를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체계로 통합하는 만다라의 세계를 구현했다"고 평했다. 정혜숙 기자



비공스님 만다라화

소설과 드라마 작가 등 불교문학인 양성에 '최선'

불교문학창작교육원 6월 5일 개강

영상과 활자 매체를 아우르는 불교문학창작교육원(대표 남지심 · 사진)이 문을 연다. 6월 5일부터 템플스테이정보관 3층 문수실에서 진행되는 강의에는 소설가 남지심, 장기오 前KBS PD, 소설가 정찬주 씨 등이 강사로 참여해 소설 · 동화 · 시 · 방송 · 드라마 등을 강의한다.

불교문학창작교육원은 불교와 문학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대표 남지심(소설가) 씨는 "지난 해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심사위원을 보면서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불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불교를 문학에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다"며 개원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남 대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문화다. 그 중에서도 활자매체와 영상매체를 아우르는 문학은 그 어떤 장르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훌륭한 불교문학

불교 인재 양성 필요성 느껴
드라마 · 소설 · 시 등의 장르
접목한 창작교육 제공
부처님사상 대중에게 전하고파

작가가 펼치는 영향력은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을 것"이라며 불교문학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번 강좌 개설로 문학은 불교사상을 받아들여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불교는 문학과 손 잡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폭넓게 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대표는 "문학을 통해 불교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원을 세운 저희 강사진들은 후배 불교문학 작가들을 양성하고자 다시 한번 원을 세우게 되었다"며 "이 일을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막 공양 중 하나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강의는 6월 5일 개강하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6주 동안 진행된다. (010)280-8628

jisimnam@hanmail.net 정혜숙 기자

■ 불교문학 창작교육원 강의내용

강 사	과 목	경 력
김재영 (동방대교수)	부처님 생애 강의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등 불교저서 다수
남지심 (소설가)	소설 동화 반 강의	우담바라 등 소설 수필 일대기 저서 다수
장기오 (전 KBS 대 PD)	방송드라마, 방송 구성작가 반 강의	KBS드라마 제작주간. 제작국장 역임.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대 PD호칭 받음. 대하드라마 등 총 47편 연출. 드라마 바로보기, 바로 쓰기 등 저서 다수
장영우 (동국대 문창과교수)	소설 강독, 작품 분석 강의	문학평론집 등 저서 다수
정찬주 (소설가)	소설 동화 반 강의	산은 산 물은 물, 암자로 가는 길 등 소설 수필집 등 저서 다수
천양희 (시인)	시 수필 강의	마음의 수수밭,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등 시 수필집 저서 다수. 소월시문학상, 현대문학상, 박두진문학상, 공초문학상, 만해 문학상, 대한민국예술상 문학부문 수상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 (상 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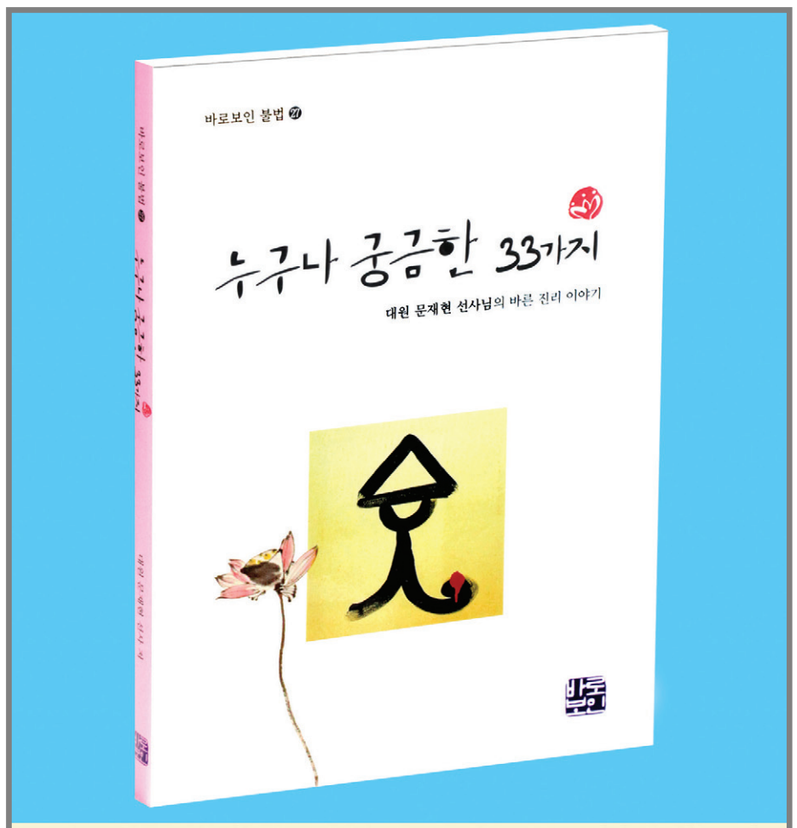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 (교무실) 054)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신간!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권 10,000원
☎ 031-534-3373

필요없는것 과감히 놓아버리는게 수행



티베트 스님의 노 프라블럼
아남 툽텐 린포체 지음
임희근 옮김
문학의 숲 펴냄
1만1500원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진정한 본성은 소멸과 덧없음을 넘어서 있다. 몸은 영속하지 않지만 진정한 본성은 나고 죽음이 없다. 생멸이 없고 신성하며 모든 불완전함을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동등하고 모두 하나이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든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래 아름다우며 인간은 모두 아름답다고 저자는 말한다.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그자가 누구인가?" 화가 나거나 실망할 때 이렇게만 물어보라고 저자는 말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 단순한 물음을 적용하면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물음으로써 내적인 평정심이 어렵지 않게 드러날 수 있고 모든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 '자신'이라는 생각,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속 투쟁이 벌어진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지독한 번뇌를 만들어 내는 주범이 바로 그 생각들이다.

"우리는 마치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에 몸 담그고 있으면서도 지독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과 같습니다. 빈 컵을 들고 누군가와 마주칠 때마다 제발 물 좀 달라고 애원합니다. 강물 속에 서 있는 사람이 강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굳이 이유를 대자면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눈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낮추십시오. 그 즉시 자신이 강물 속에 서 있고 마실 물이 주위에 한없이 넘실대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행의 길은 정말 단순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놓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명상, 쉬고 긴장 푸는 기술
명상 목적은 완전한 열반
진정한 행복은 버리는 것

저자인 아남 툽텐 린포체는 이 책에서 명상을 '쉬고 긴장을 푸는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완벽한 쉼이란 온갖 정신적 노력을 놓아 버리는 일을 포함한다. 쉬는 것은 자아를 놓는 참선 명상의 첫걸음이고, 쉰다 함은 어떤 것도 붙들려 애쓰지 않는 깊은 이완 상태를 말한다.

항상 무엇인가를 하려하고 끝없이 발버둥 치면서 현실을 통제하려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평화롭고 긴장 없는 상태에 머물게 할 것인가. 여기서도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에서 린포체는 말한다. "자신의 참본성과 하나 된 상태를 상실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 이상의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실패한 상태였는데 또 실패한들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하루의 생활을 따라가며 남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켜보면 깨닫게 된다. 지금 여기에 충만히 머물기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붙잡히기 일쑤인 것이 마음임을. 그래서 저자는 "그저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세속 일에서 하듯이 탐색하고 애를 쓰는 수행은 자아의 또 다른 각본이며 망상을 지탱하고 부추기는 것이 될 뿐이라고.

"명상 수행의 유일한 목적은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명상은 기적처럼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는 직통 문입니다."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는 매 순간 개념을 제거하고 한계 짓는 개념이 떠오르면 바로 초월하라고 조언한다.

"만족이란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저걸 원해.' 하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욕망이 완전히 멈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것을 모두 가진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텅 비운 상태입니다.

소유하고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 만들고 싶어 했던 공간이 이미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만족도 이미 거기에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언제나 괴로움을 겪는다. 현실에 맞서 싸우면 꿈꿔 온 것이 성취되리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것만 찾아내면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집요하게 희망을 품는다. 그런 헛된 꿈을 좇고 있다면 매 순간 충실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어느 날 실현하고 싶은 이상적인

끝없이 찾는 삶은 시간 낭비
깨달음 저지하는 것은 없어
자신 구속하는 것은 자신 뿐

삶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 완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끝없이 찾기만 하는 삶은 순간순간이 낭비이다.

그때 우리 삶은 준비로 채워지고 이는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내일은 고사하고 바로 다음 순간에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쉬는 이 숨이 마지막 숨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충만하게 살 때라고 그는 말한다. 찾아 헤매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얻은 듯이 살아야 한다고.

인간이 갈등과 장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찾아낼 수 없다. 그것들이 의식 속에서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상상 속의 온갖 문제를 만들어 내는 공장과 같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받아들임이 없는 상태가 갈등이다. 갈등은 고통이다. 이 고통에 시달리는 한,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릴 여력이 없다. 내적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다. 깨달음이란 한없는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탐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깨어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라고 아남 툽텐 린포체는 이야기한다.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도 자신뿐이다. 그 책임을 받아들일 때 마침내 정신적 성숙에 도달하게 된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필요하며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수행의 길을 갈 준비가 된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단계별 법화수행 소개

나를 찾아 떠나는 법화수행

황명찬 지음 |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3500원



〈소리없는 소리〉〈한 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등 법화경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해 온 저자가 이번에는 법화 수행에 대해 수행적 측면을 자세히 안내한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편의상 수행을 다섯 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법화경과 법화수행을 새로운 방식의 해설로 소개하고 있다.

곧 법화경에 부처님의 모든 사상과 수행법을 포함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첫째, 발원의 단계는 서품, 권지품, 안락행품의 일부 △둘째, 견도(본성인 불지혜를 보고깨닫는 단계) :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화성유품, 수기품 등 △셋째, 수도(바라밀의 수행을 닦아 나아가는 단계) : 안락행품, 법사품, 상불경보살품, 약왕보살본사품 △넷째, 증득(수행하면서 깨쳐알고 가르침대로 확인해가는 것) : 여래수량품, 분별공덕품 등 △다섯째, 행원((처음의 서원대로 배운 바를 실천하는 단계) :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품, 보현보살품 등으로 나눠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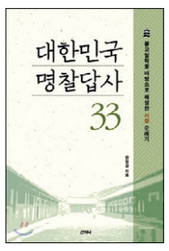
저자는 "부처가 되는 길로 가는 수행을 법화수행이라 하는데 그 방법은 법화경을 믿고 받아들여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하는 것"이라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 수행하면 자연히 불지혜를 얻게 되며 독송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교리 바탕으로 사찰 문화재 설명

대한민국 명찰답사 33

한정갑 지음 | 산지니 펴냄 | 1만5천원



사찰 건축물은 불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열반을 이루기 위한 상징적인 구조물로 조성했다. 해탈교,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수미산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한국의 전통고찰은 나라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당대 최고의 예술성과 기술력이 함축돼 있다. 조상들은 천문지리 기술과 더불어 산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하는 풍수학을 도입해 명산의 기운을 최고로 함축하는 건축물을 만들었다. 불교철학과 더불어 뛰어난 예술성과 기술력이 함축된 명찰은 엄청난 재원과 기술 인력이 동원된 한국 문화유산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사찰문화재에 관한 많은 출판물들 가운데 정작 불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해설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은 사찰을 문화재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불교철학과 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불교사상을 표현한 각종 상징물들을 집대성해놓은 곳이 명찰이라 할 때, 저자는 바로 그런 건축물이나 상징물들이 어떠한 불교적 바탕을 가지고 어떠한 불교사상을 표현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나간다.

전남 해남에 있는 대흥사는 다리 8개를 건너야 대웅전에 이른다. 왜 이렇게 많은 다리가 있는 걸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수미산으로 가려면 쇠로 된 산 7개와 바다 8개를 지나야 하는데 금산 7개를 기둥삼아 다리를 만들어 건너기 때문에 8개 다리가 필요한 것이다.

수덕사 대웅전은 백제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목재건축물로 유명한데, 한국에 현존하는 모든 사찰의 대웅전 가운데 가장 정형적인 신앙 의미를 구현하는 곳이다. 이 수덕사 대웅전의 출입문을 유의 깊게 살펴보면 밀어야 열리는 문 즉, 들어오는 수행자가 스스로 밀어야 열리는 문으로 되어 있다. 이는 수행자의 자력완성을 강조하는 뜻이다.

이 책에는 3대 관음성지, 삼보사찰, 5대 적멸보궁 외에 지역별로 전라도 7군데, 경상도 6군데, 충청도 4군데, 경기도 4군데, 강원도 2군데 사찰을 수록했다.

김주일 기자

사찰 상식 알면 누구나 해설사

나도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다

최동군 지음 | 담디 펴냄 | 1만8천원



아이들을 데리고 사찰을 가더라도 금방 지루해 한다. 비슷한 요사채와 당우, 대웅전의 부처님뿐이라 더 이상 눈이 가기가 쉽지 않다. 한자로 된 현판이라도 읽어주려 하면 아이들은 손사레를 친다. 그렇다면 사찰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그 해답을 알려준다. 예를 들면 사찰의 문에 처음 들어서면 세 가지 문을 만난다. 삼문이다. 보통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을 가리킨다. 산문중에서 첫 번째 일주문은 신성한 사찰로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깨끗이 씻으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처럼 이 책을 읽고 사찰에 가면 사찰의 가람배치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목도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사찰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붙인 것 같다.

책은 크게 '경주답사편' '불교문화일반편'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특히 불교문화편에서는 '불교문화재'의 일반상식을 소개해 유익하다. '후불탱화는 우리나라 사찰에만 있다' '부처님은 서거나 앉아 있는 자세 이외에도 누운 자세도 있다' 등등. 사전식 일반상식의 해설과는 다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6~5/2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받아들임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6	걱정말고 기도하라	법안	은행나무
7	경허	일지	민족사
9	탄허록	탄허	휴
9	깨달음으로 가는 위빠사나 명상	해공	근원출판
10	한계를 넘어서 (묘엄 스님의 생애)	정인영	동국대학교출판부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공덕이란 목이 마른 다음에 우물을 파거나
저수지를 만들듯 베풀지 말며,
미리 쌓은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 미란타왕문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소정의 비용 있습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중고고가 매입
전통사찰 200만원대
한성음향
010-4440-8687

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및
각종 불공
바라작법
스님이 직접 만든 은행 엑기스 판매합니다
011-628-1156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한국불교태고종 범패학인모집

천수바라. 사다라니
복청게. 도량게작법
태징.북.사물다루는법
6개월내 전문가처럼
필요한작법만지도전수
예수재.49재.점안의식
010-3809-43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귀포 정방사)
010-5219-7021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신심있는 사무장(女),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수려한 산중사찰)
010-8954-8033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토굴암자에서 수양하실 분

월세방 있음,
(경기도 포천)
010-9243-0993

경북지역 천년고찰 공양주 모십니다

011-527-0637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심 와 기 도

• 업장을 소멸시키고 운도 바뀌게 하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명리,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60세 이하 신심있는 사무장, 공양주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전통 염불 배우면서 부전하실 분 모십니다

(마산, 55세미만)
010-3428-6665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프리랜서 직원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00명
02)365-7747
010-9468-1714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 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편)입생모집

2012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불 교	차문화컨텐츠	불교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전 공	불교학, 선학	다도 · 제다	사 회 복 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2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구 분
원서 교부 및 접 수	2012 5. 14(월) ~6. 5(화)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 형 일 및 장 소	2012. 6. 16(토) 10: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특 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4학기수료) 수료자는 총장명의의 상제례사 인증 응시자격 부여 및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명상상담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4학기 수료)는 총장명의의 명상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본 대학교 출신자 진학 시 입학금 면제.

■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6,3097 • FAX 02-2260-8627
• http://gsbs.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불자정보 18 | 890호 | 전면광고

2012년 5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80평
- 가액 : 2억

- 위치 : 부산
- 법당 : 33평
- 요사 : 36평
- 부지 : 52평
- 가액 : 3억9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경남 사천 아름다운 토굴(급)

- 총 부지 : 630평
- 건물3동, 법당25평, 요사(방5칸)
- 사천읍내 5분거리
- 가액: 1억8500(은행 7천)

대 사찰 급 양도(반값)

- 총 부지: 약 1000평(평지)
- 건물8동,목조40평 2동, 요사채 방(12개)
- 사천왕 ●종가: 대북, 대종
- 진주공원 부근,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총가액: 9억(은행 6억가능)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수성구
- 부지 : 150명(대지)
- 건평: 50평
- 법당 30평(방3개, 임법당)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 지가(실거래가액) 2억5천만 원 이상, 건축비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도심 사찰임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
- 요사: 2동 60평
- 기타: 산신각, 석불, 석등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 실사용평수는 2500평으로 도심사찰이면서 산과 계곡이 있는 멋진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 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 좌향)
- 가액 : 8억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울주군
- 면적: 약 500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주차장, 텃밭
- 고속도IC 인근 교통편리
- 해운대 30분 울산 20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

010-5346-4138

건 물 안 내

- 포교원하면 정말 좋습니다
- 부산에서 최고자리 지하철역세권
- 대지 550평
- 건물 900평
- 가액 50억

010-8676-277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명곡동
- 전 1,200평, 2500평, 3600평
- 평당 65만원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 통합시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검단 신도시
- 2층건물에 2층(기와기붕)
- 법당: 50평
- 요사채: 38평(방3, 거실2,공양간, 욕실2)
- 삼존불, 신중, 소불, 영단(만년위패), 인등
- 보증금 : 5천만원에 월 60만원
- 4차선대로변,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5282-355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500평, 임법당30평, 요사40평,
-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도량기운 좋음
- 가액 : 2억 7천만원(조정불가)

011-452-8374
010-7164-713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대지 500평
- 법당 30평(단청완료)
- 요사채 약 50평 2동, 산신각 2평
- 가액: 4억

017-802-32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 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

사찰자리(터)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약 600평
- 가옥 3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함
- 선방 ,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2억 8천만원

010-8880-1180
010-8886-060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 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010-3518-395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마산역 5분거리 시장안
- 평수 :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2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5042-1003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역 3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7십만원
- 평수 약 60평
- 3층건물에 2층
- 법당, 시설완벽, 살림가능
- 큰방2, 주방, 화장실 2개
- 가액: 4천 9백만원

010-9939-6966
010-4031-664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임야 2500평, 야산 5000평, 대지 1500평
- 건평 110평, 법당 5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 주차장 2,000평
- 소나무 많고 산세 좋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9433-3543

사 찰 안 내

- 물좋고 공기 좋은 경북 왜관 사찰
- 부지: 2천 500백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대출 1억 6천포함
- 총포함 4억 9천만원

010-7246-0100

전원주택 겸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공서면 거창리
- 평수: 396평
- 가액: 2천 5백만원

010-8852-147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약 600평
- 가옥 3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함
- 선방 ,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2억 8천만원

010-8880-1180
010-8886-060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사찰등록)
- 평수 40평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 별도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비품일체)

010-8940-5858
055)252-3172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010-2501-3671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 평수 약 40평(시유지포함)
- 가액 : 5천 2백만원 비품 일체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9874-483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내동
- 평수 35평
- 지하철 5호선 3분거리
- 시설은 최상급,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5천 5백만원
- 답사 후 절충
- 최고요지. 최고시설

011-440-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 평수: 257평
- 가액:7,000만원

010-6394-735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마산역 5분거리 시장안
- 평수 :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2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5042-100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내
- 대지 130평, 2층법당 30평 (삼존불, 소불200불, 지장불전)
- 삼성각 5평, 5층석탑 1층요사채 60평
- 답사요망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092-4433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범천동
- 33평
- 뒤에 산이 있음
- 기도터로 적합
- 산신, 용왕당, 법당
- 가액: 1억

010-6689-5038
070-8112-236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부지 : 3000평
- 전각: 6채(목조)
- 요사 : 210평
- 가액 : 33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3억8천 5백만원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m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농 가 주 택

경북 영양군 입암면
마을에서 산쪽으로 외딴곳
남향 대지 124평, 앞에 건물 18평
뒤에 건물 18평, 차진입 급수 전기
즉시 입주 가능함 , 주소 공개 주인직
가액: 4800만원

010-8899-8899

불교용품점(급)안내

불교 용품 전문점 (중,대형)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성업중 . 개인 사정상 급 양도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가액: 상담 후 결정

010-6397-9449

사찰(급)안내

- 서부산 낙동동부근 (부산 발전지역임)
- 대지 370평, 건물 (신축 3년)
- 1층 종무소, 2층 법당(기와 40평)
- 종각, 산신, 용왕, 기타
- 부처님 불상은 4분 전부 동불임
- 뒤쪽은 산이고 앞쪽 전망 好
- 주차 20대이상 ● 가액: 5억 8천만원

010-2864-1951

암자.토굴터 안내

- 위치: 경남 거창 남상면3
- 대지 300평
- 소나무산속 정남향 자연경관수려
- 거창지방도로인접
- 가액 8백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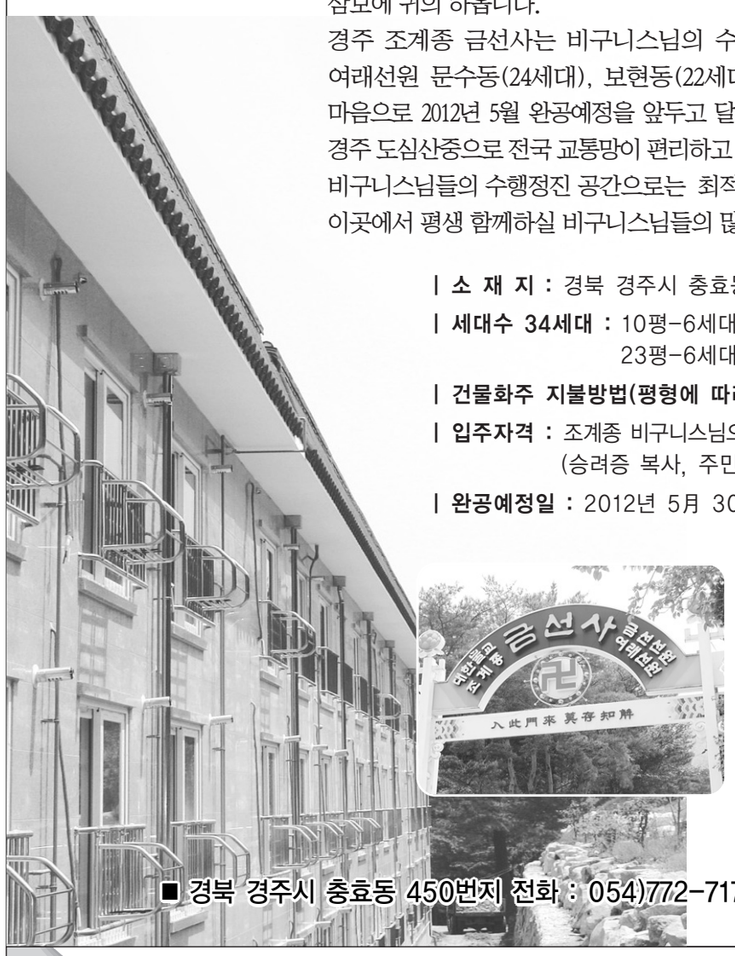
010-2493-2452

토 굴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금호읍
- 대지 192평 , 법당,공양간
- 금호 5분거리
- 주변기도처
- 가액: 8천만원 (대출3천만원안고)

010-2773-8809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2005년 부터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5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4세대)를 건립하게 되여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홍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
- **세대수 34세대 :** 10평-6세대, 12평-6세대, 13평-5세대, 21평-6세대, 23평-6세대, 36평-1세대〈옥상 선방건립(달마선원 30평) 예정〉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람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5月 30日 **입주예정일 :** 2012년 6月 5日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성냄은 독의 근본. 그래서 성냄을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을 모든 성인은 칭찬한다. - 잡아함경 -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시해한 까닭은?

새 변혁 시도하고자 시해 정권 장악

1. 수당 교체기와 고구려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만 기록하는 것일까? 아니면 패자의 편도 배려해 기술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종래의 모든 역사는 승자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승자 독식의 역사는 '반편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역사 이해는 그 이면에 실려있는 패자의 입장까지 기술해야만 한다. 기존의 역사서들은 패자의 왜곡과 과장만 기술되어 있을 뿐, 그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번국(蕃國)의 역사는 제국(帝國)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기록된 사실을 비판의식 없이 수용해 기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승자 혹은 제국의 역사관에 입각해 기록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비판적 기술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역사는 대하처럼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서 흘러오고 있다. 때문에 그 역사적 흐름은 사가의 시대 구분에 의해 기술된 역사인식에 그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가의 '사관'(史觀)과 '주체'(主體)가 된다. 어떠한 역사관에 의해 기술할 것이며 누구를 역사의 주체로 볼 것인가에 따라 역사서는 달리 기술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가의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은 해당 역사서에 깊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사서와 〈삼국사기〉 등 몇몇 사료에서 극단적인

뛰어난 장수인가, 패망 주역인가
당과의 전쟁 승리, 고려영은 고구려 흔적

평가가 받고 있는 고구려의 연개소문(淵蓋蘇文)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할까. '뛰어난 장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최후의 권력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패망으로 이끈 주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버지 동부(東部)대인 대대로(大對盧)가 쉰에 그를 낳았다고 해서 '갓쉰동이'로 알려진 연개소문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갓쉰동이 설화에 의하면 아버지는 반역상(叛逆象)을 타고난 그를 충북 진천 보탑사 아래에 있는 김유신의 생가 앞에 버린 뒤 스무 살이 될 때까지 후견인을 붙여 길렀다고 한다. 김유신 집안의 노비로 성장한 연개소문은 유신의 큰 누이 보희(寶姬)와 정을 통해 잉태시킨 뒤 쫓겨났다. 그 뒤 노예선을 타고 당으로 건너가 훗날 당 태종이 된 이세민(李世民)과 교유하다가 고구려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삼국사기〉에서는 "드러낸 의지(意表)가 세고 굳셌으며, 의로운 기운(意氣)이 크고 넘쳤다"고 했다. 아버지 대대로가 죽자 연개소문이 뒤를 계승하였다. 중국 사서와 『삼국사기』는 그가 "원근을 호령하고 국사를 전제하여 위엄이 놀라웠다. 몸에 다섯 자루의 칼을 차고 있어 좌우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으며[號令遠近, 專制國事, 甚有威嚴, 身佩五刀, 左右莫敢仰時] 매양 말에 오르내릴 적에는 늘 귀족이나 무장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발판으로 삼았다"[每上下馬, 常令貴人武將覆地而履之]고 했다.

연개소문에 대한 사가의 왜곡과 비판 의식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는 고구려의 독재자이자 역성자이며, 권력자이자 폭력자로만 이해하게 된다. 당시 장수들은 모두 다섯 자루의 칼을 찼으며 말을 탈 때에 하마대가 없으면 무장들이 대신 엎드리는 것이 관례였다. 영양왕과 을지문덕 등의 장수들의 지휘에 의해 수나라와의 네 차례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고구려는 긴 남북조 시대를 마감시켰다. 수나라에 이어 전국을 통일한 당나라에 맞서는 유일한 나라는 고구려뿐이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수나라의 패망을 불러일으킨 고구려는 수를 이은 당나라에 유화책을 펼쳤다. 연개소문은 642년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류왕의 동생인 대양(大陽)왕의 아들인 보장(寶臧)을 왕위에 옹립한 뒤 위기의 고구려를 여러 차례 구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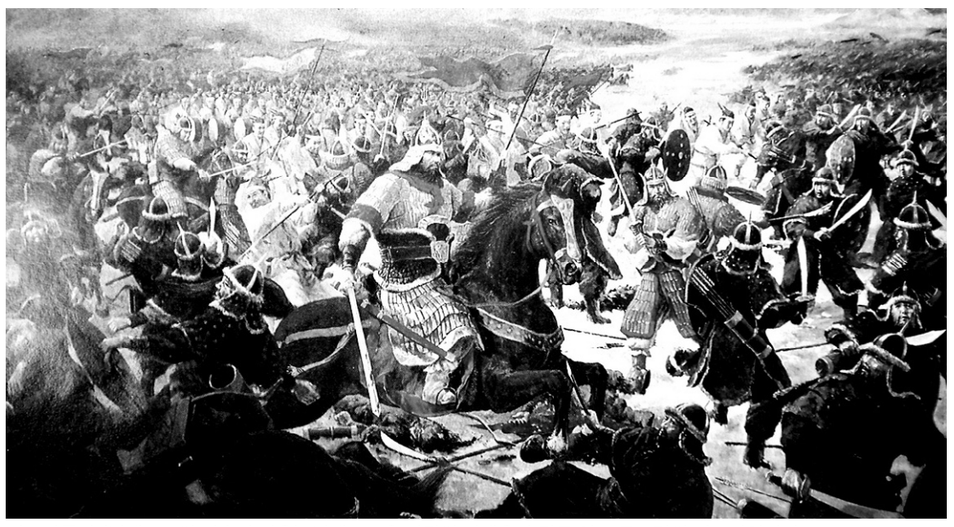
2. 고구려의 자존심

영양왕의 이복동생인 영류왕(榮留王, 建武)은 본디 바다에 능한 장수 출신이었다. 수나라와 네 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국력이 크게 소모됐다. 고구려는 수와의 전쟁에 치중하면서 신라에게 여러 성을 빼앗기고 백제에 공격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이 들어서자 영류왕은 당나라에게 유화책을 썼다. 종래 국제간의 관례에 의해 수나라에 조공(朝貢)을 보내고 책봉(册封)을 받아왔듯이 영류왕 역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였다. 재위 7년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 역서(曆書)를 반포해 줄 것을 청하였다. 재위 9년에는 신라와 백제가 당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가 길을 막고 조회를 못하도록 하며 또 자주 침략한다"고 전하자 당제(唐帝)는 사신 주자사(朱子奢)에게 절(節)을 가지고 타이르게 하였다. 영류왕은 표를 올려 사죄하고 신라와 백제 양국을 평화롭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심지어 재위 11년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태종이 돌궐의 힐리가한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고 겸하여 고구려의 국가기밀인 봉역도(封域圖, 疆域圖)까지 올렸다. 14년에는 수나라 전사자의 해골을 묻고 위령제를 지냈으며 고-수 전쟁의 전승기념물 경관(京觀)을 헐게 했다. 재위 23년에 영류왕은 태자 환권(桓權)을 당에 보내어 조공하였고, 청년 자제들을 당에 보내어 국학(國學)에 입학할 것을 청하였다. 재위 24년에는 당이 고구려 태자의 입조에 대한 답례로 사신 진대덕(陳大德)을 보내자 수령들이 명승과 산수를 좋아한다는 그를 인도하여 고구려 곳곳의 미세한 곳까지 알게 하여 국가의 기밀이 염탐되게 했다. 영류왕 치세하에 고구려의 저자세는 고(高)-수(隋)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고구려 국민들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재위 25년 영류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서부(西部)대인 연개소문을 시켜 장성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해 10월 대당 강경론자였던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보장왕을 옹립했다.

연개소문은 국내 정치질서의 재편과 당나라와의



민족기록화 '연개소문의 사수성 싸움'. 연개소문은 당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구려의 자존심이었다.

유화책을 위해 도교의 국가적인 수용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는 보장왕에게 "유·불·도 삼교는 마치 솥발과 같아서 하나만 빠져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불은 흥왕하여도 도교는 번성하지 못하니 이른바 천하의 도술을 갖췄다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청컨대 사신을 당에 보내어 도교를 구득하여 국민을 가르치소

망국정치가 왜곡 벗어나면
동북아 정세 주도한 영웅 풍모 보여

서"라고 하였다. 보장왕은 그 말을 깊이 깨닫고 당나라에 표(表)를 요청했다. 당 태종은 도사 숙달(叔達) 등 여덟 사람을 파견하고 동시에 노자의 〈도덕경〉을 보내주었다. 왕은 기뻐하여 승사(僧寺)에다 그들을 거처하게 하였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이런 정책은 상대적으로 불교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평양 근교의 반룡사(盤龍寺)에 머무르던 열반학과 방등학의 대가였던 보덕(普德)은 왕에게 주청했다. "좌도(道教)가 들어와 정도(正道)에 맞서면 나라의 기틀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라고 여러 차례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종래에 승려가 맡았던 관직은 도사가 맡았고 기존의 사찰은 도관으로 바뀌면서 불교는 매우 위축됐다. 결국 보덕은 650년 6월에 신통력으로 자신이 머무르던 사방 1장 크기의 방장(方丈, 암자)을 날려 남쪽에 있는 완산주의 고대산으로 옮겨갔다. 이때의 기록은 이자현(李資賢)이 남긴 시와 김부식(金富軾)이 지은 〈보덕화상전〉에 담겨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보덕이 이곳으로 옮겨오자 얼마 뒤 고구려는 망하였다. 뒷날 이곳으로 보덕을 찾아온 원효와 의상은 그에게서 열반의 도를 물었다고 일연(一然)은 시 〈도반룡산연복사예보덕성사비방구지〉(到盤龍山延福寺禮普德聖師飛房舊址)에 전하고 있다.

3. 국난을 구한 영웅

아버지 당 고조에 이어 제위에 오른 태종은 수나라의 치욕을 해소하기 위해 고구려 정벌 준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즈음 당은 주변의 여러 나라를 복속하였지만 고구려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당 태종은 '연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국정을 전제한다'며 고구려 침공을 공공연히 언급하였다. 642년에 이어 영류왕에 이러 보장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해 가을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백제가 우리 40여성을 쳐 빼앗아가고, 다시 또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입조(入朝)하고 길마저 끊으려고 합니다"하며 군사를 내어 구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보장왕은 재위 3년에 당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이에 당제는 "신라는 우리나라에 귀의하여 조공이 끊이지 않으니 너희는 백제와 더불어 각각 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명년에 군사를 내어 그대 나라를 치겠다"고 하였다.

고구려 침공에 대한 명분을 쌓아가던 당 태종은 644년 10월 겨울 드디어 고구려 침공의 깃발을 들었다. 요동의 6개 성 중 먼저 신성을 공략했으나 여의치 않자 백암성과 요동성과 비사성 등을 공략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시성에 집중하였지만 쉽게 공략할 수 없었다. 양만춘을 비롯한 승병(僧兵) 3만의 집요한 방어에 부딪쳐 한 눈을 잃고 등창을 앓으며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 태종은 장안으로 돌아와 이정(李靖)에게 "내가 천하의 병력을 가지고도 조그마한 오랑캐에게 곤욕을 당한 것은 무슨 까닭이오"라고 물었다. 옆에 있던 도종이 당제가 주필산에 있을 당시에 적의 빈 틈을 타서 평양을 빼앗기로 하였던 이야기를 낱낱이 아뢰었다. 당제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당시에 내가 너무 조급해서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649년 당 태종은 유서에서 "다시는 요동을 넘보지 말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전사와 비사를 추적했던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연개소문이 지은 〈해상잡록〉(海上雜錄)과 〈김해병서〉(金海兵書)는 빼어난 명저였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김해병서〉는 중국의 7대 병서 중 하나인 〈이위공병서〉의 모델이 됐다. 신채호는 연개소문이 중국 내륙의 북경(유주)지역까지 제패해 고구려군을 주둔시켰으며 그 흔적이 '고려영'(高麗營)이라고 했다. 북경순위현지의 '고려영진' 조에도 '고려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곳에는 지금도 성을 단단히 하기 위해 석회를 바른 토성(土城)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옛성 주위에는 해자(垓字)의 흔적이 남아있다.

중국의 송원명대 희곡을 모은 〈명설창사화집〉(상해, 1971)에는 '막리지 연개소문비조도'가 실려 있다. 그곳에는 연개소문이 썼던 날아다니는 칼(飛刀)의 춤사위가 일부 남아있다. 중국에서는 이 희곡집의 이야기에 기초한 연개소문 관련 경극이 매우 성행했었다. 이들 경극 속에는 고구려 막리지 연개소문과 당나라 장수 설인귀의 싸움 장면이 담겨있다. 근래에는 연개소문이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적 인물로 연상된다며 북한의 요청에 의해 경극에서 그를 지워버렸다고 전해진다. 국난을 구한 민족 영웅 연개소문을 주체사상을 강조한다는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은 '반편이' 체제의 허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본서기〉에는 '천지천황 3년 冬10월'에 고구려 대신 개금(蓋金, 연개소문)이 죽었다고 전한다. 연개소문은 여러 자식들에게 유언하기를 "너희들 형제는 고기와 물과 같이 화합하여 작위를 다투지 말라.

대당 회유책으로 도교 권장
상대적으로 불교세 쇠락은 흠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말이 씨가 된 것일까. 연개소문이 죽자 남생(男生)은 당나라 이간책에 넘어가 당나라에 투항했다. 이를 막으려는 남건(男建)과 남산(南産)은 다시 또 갈라져 마침대 고구려는 최후를 맞이한다.

일찍이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는 연개소문을 "4천년 역사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영웅"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나라에 이은 당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나라의 위기를 이겨낸 연개소문이 단지 왕을 시해했다는 사실에서 폭군의 이미지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는 강성한 당의 공경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었고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의 자존심이었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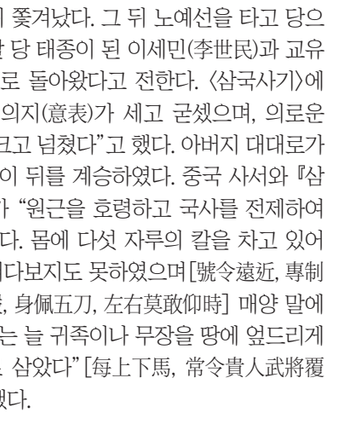
전용신 역주, 〈완역 일본서기〉(일지사, 1987)

역사스페셜, 〈연개소문, 독재자인가, 영웅인가〉(2000. 07. 29)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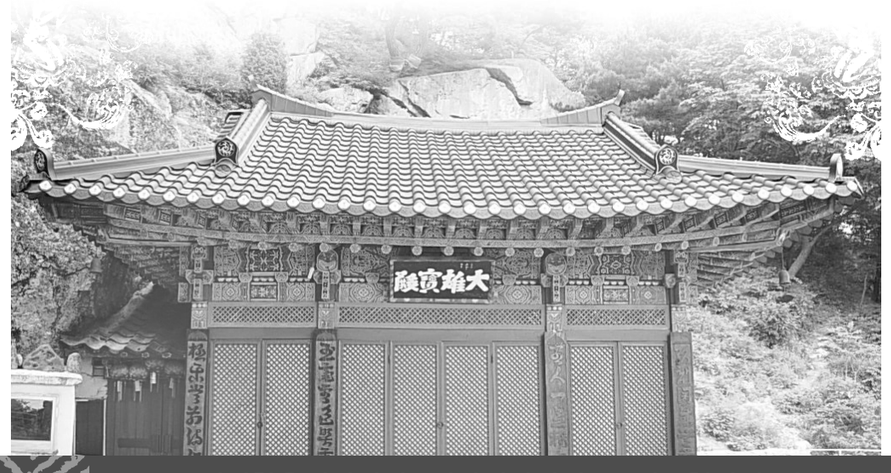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현우경' 이야기 (22)

광대를 사랑한 남자

줄에서 떨어져 여자 품에서 죽겠는가

라자그리하라는 나라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자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됐다. 아들의 이름은 바세질이었다. 바세질은 라자그리하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바세질은 청년이 됐다.

바세질은 친구들과 함께 장터로 놀러가게 됐다. 바세질은 장터를 구경하다 우연히 광대들을 발견하곤, 광대놀이를 하던 한 여자에게 첫 눈에 반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집으로 돌아온 바세질은 장터에서 본 광대여자를 잊을 수 없었다. 결국 바세질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다.

"제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느 가문의 딸이냐."

"그녀는 광대패거리의 딸입니다."

"광대라니! 그런 천한 집 딸과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했다. 바세질은 곧장 여자의 집으로 달려가 청혼했다. 하지만 여자의 집에서도 결혼을 반대했다.

"우리는 천민이다. 어떻게 양반가문의 자식과 우리 딸을 결혼시킨단 말인가."

바세질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부모들은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다.

"내 딸과 꼭 결혼하고 싶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우리처럼 춤과 노래를 익혀 왕 앞에서 광대놀음으로 왕을 웃기게 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바세질은 그날 이후로 열심히 춤과 노래를 익혔다. 얼마 후 나라에 큰 잔치가 열렸다. 왕과 모든 신하, 백성들이 모여 잔치를



삽화 · 강병호

즐겼다. 수많은 광대들이 갖가지 묘기로 잔치의 흥을 돋우었다. 그때 바세질은 왕 앞에서 공연하기 위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바세질은 지금까지 익힌 갖가지 재주를 왕 앞에서 부렸다.

바세질은 모든 공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줄타기를 선보였다. 하지만 왕은 바세질의 줄타기를 공연을 미처 보지 못했다.

"내가 자네의 줄타기 공연을 자세히 보지 못했네. 다시 줄타기를 할 수 있겠는가."

바세질은 공연을 마치고 나니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공중에서 줄을 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땅에 떨어지게 됐다. 그때 하늘에서 마우드갈야야나가 내려와 말했다.

"내가 목숨을 구해주는 대신 출가를 하겠는가? 아니면 지금 땅에 떨어져 저 여자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는가?"

"저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마우드갈야야나는 허공에 계단을 만들어 바세질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바세질은 바로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그리고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받았다. 바세질은 출가 후 열심히 수행해 아라한이 됐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다.

"어째서 바세질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출가하게 된 것입니까?"

아주 먼 옛날 바라나시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자의 하인이 새 알을 하나 가져왔다.

"주인님 제가 바다에 나갔다 새 알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알에서 새가 태어났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아기 새를 선물했다. 새가 점차 커지자 아들은 새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다. 어느 날 아들은 새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던 중 왕궁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을 발견했다.

잔치에는 광대들이 갖가지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광대놀이를 구경하기 위해 잠시 왕궁에 들르게 된 아들은 한 궁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결국 궁녀와 정분이 난 아들은 왕에게 그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 당장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은 부자의 아들을 잡아 그 자리에서 죽이려 했다. 그때 그가 꾀를 냈다.

"왜 그대들은 힘들게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나를 놓아주면 내가 저 나무위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지겠다." 신하들에게 풀려난 그는 나무위에 올라가 새를 타고 다시 도망갔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바세질은 과거 설법하지 못하는 스님을 만나 실망하고, 훗날 자신이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서원해 지금 아라한이 된 것이다."

구성=이은정 기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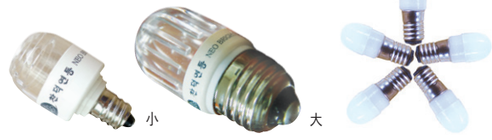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대행 스님

일체 만법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뵌 지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12일 만에 왔는데도 이번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첫째는 이 세상을 바로잡아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고, 또 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서 모두 자유스럽게 끄달리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여러분이 사대(四大)로 흩어져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다음에 뚜껑만 열면은 승(僧)으로서 이 세상을 감당하리만큼, 아마도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모습을 하면서 행도 중용을 하면서…, 아마도 저 깊은 바다가 흘러도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고 남이 없이 용을 하는 것은 바로 법신(法身) 문수(文殊)의 설(說)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푸르른 저 청정한 산과 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승가(僧家)의 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모두 둘이냐 하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푸르름은 절로 푸르르고, 꽃 핀 거는 꽃 핀 것이고, 물 흐르는 것은 물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아집과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이런 위치에서 이런 학위를 땄고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대업을 하고 있고, 내 가정이 돈이 없어서 질질 매지도 않는데 내가 뭐 배울 게 있나.' 이러지마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바로 쭉정이를 낳는 벼이삭과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실천을 옮길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여러분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금도 역시 과거를 현재에 가져왔고 미래는 현재에 가져왔으니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가고 오고, 죽고 살고, 먹고 똥누고 일하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것이 전부 참선이라고 그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참선이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라 하면은 일체 만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결정 지으면서 그 행을 하면서 들이고 내는 것이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것도 답답하지 않은 것도 전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도 답답한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답답하지 않은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또는 즐겁게 생각하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일체 만법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조작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도깨비 장난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법신이 되고 보살이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열두 시에 내려와서 여러분을 접할 때 어떤 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했더라면 내가 답답할 일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내 고통이요, 내 몸이요, 내 모습이니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믿음이 상실되고 내 마음속의 그 믿음이 여지없이 흩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 내에서 끌고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물질세계의 50%만 보고선 항상 바람에 날림과 같이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에 속고 또는 남의 행을 보고선 거기에 쏠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 보니까 자기를 끌고다니는 자기 주처의 참자기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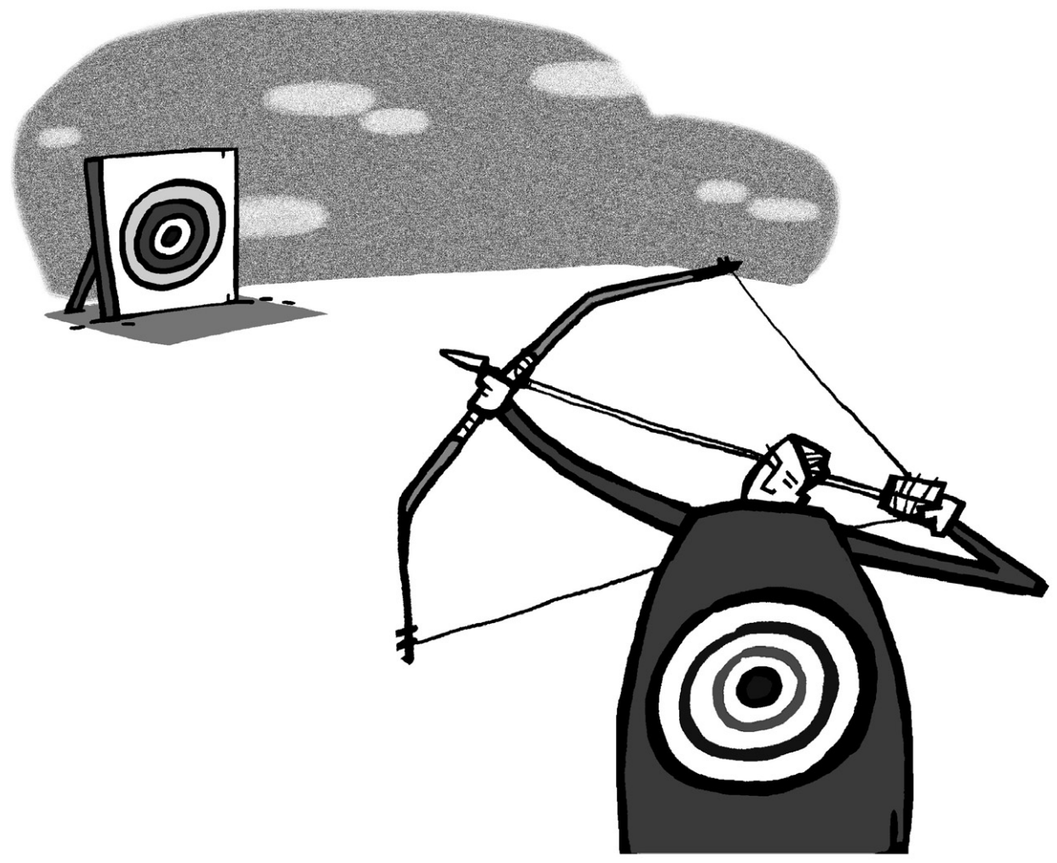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죠.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시여!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자비하신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했습니다. 스무살 안쪽이죠. 그런데 그때 "색경을 봐라! 거기에 있느니라." 색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생긴 내 얼굴만 보이지 도대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하고도, 내가 경(經)을 봤습니까, 설법을 들었습니까? 그랬으니 그걸 모를 수밖에.

그렇게 자비하고 그렇게 같이 하면서도 볼 수 없었으니 그 모습이 그리웠던 겁니다. "당신의 모습은, 얼마나 그렇게 자비한데 당신은 모습이 없고 모습을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색경을 봐라. 네가 손을 쳐들면 거기서도 손을 쳐들고, 네가 찌푸리면 거기서도 찌푸리고, 네가 울면 거기서도 눈물을 흘리느니라. 네가 마음이 괴롭고 언짢으면, 그리고 고독하면 바로 나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네 그릇이 크다면 나도 클 것이고, 네 그릇이 작다면 나도 작을 것이다. 네가 울면 나도 같이 따라 우는 것이고 내가 울면 네가 같이 따라 우는 것이니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도 몸이 고달프다는 생각도 없었고, 못 먹었다는 생각도 없었고, 괴롭다는 생각도 없고, 나 홀로라고 생각을 한 예도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았어도, 여러분과 같이 내가 높이 여기 앉았다고 해서 높이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저렇게 위에 높이 있다고 해서 높이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항상 자비를 베푸시면서 찰나찰나 들고 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의 그 여러 중생들, 이 세상의 보이는 중생, 이 세상의 보이지 않는 중생들을 다 거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대로 미꾸라지처럼 말입니다. 요리 빼끗 조리 빼끗,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물질에 젖고 너무 말 수단에 젖고, 너무 배워서 아는 게 많아서 젖고, 습에 젖어서 그렇게 벗어나질 못하고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그런 이치가 아주 많이 보입니다.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맛볼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아주 죽는다면, 반쯤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죽는다면 생산이 될 것입니다. 아주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아주 죽지 못한다면 고생을 길게 하고 길게 아마 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판(理判)이다 사판(事判)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판 사판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 양으로 그렇게 애를 써야 하죠? 몸으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마음이 죽는다면 몸도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해줄 수 있고, 남들을 이익하게 해줄 수 있고, 일체 만법에 걸림이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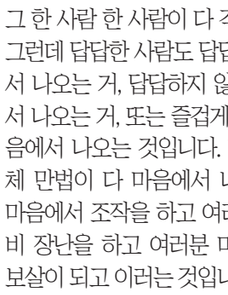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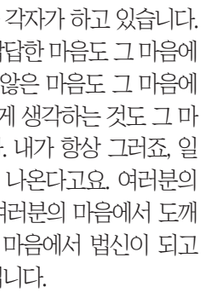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세상 어떻게 맛보겠습니까

☞ 21면에서 계속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이가 알면은 얼마나 알아?' 하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저 스님은 비구니인데,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차원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풀 한 포기도 불교가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으리만큼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의 그 모든 생명들이, 바람과 물과 흙과 불과 산천초목의 나무 한 잎사귀도 불교 아닌 게 없거늘 어찌 사람이 돼서 비구닌데 모자라고 비구닌데 잘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하다못해 돌 하나 굴러가는 걸 봐도 또는 발부리를 채여서 발이 짜개져도 이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로 증득(證得)할 것입니다.

돌도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지금 이 법상도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상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 놨을까요? 그러니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하나가 이심전심으로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에 따라 어김없이 끄달리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우습지도 않고 딱딱하기만 하겠죠. 그러나 딱딱한 것은 바로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웃기기나 하고 과거 얘기나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하실는지, 여러분은 웃고 즐기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속의 여러분은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눈 뜨고 눈 감고, 일어나고 앉고 서고, 생활하는 일체 만법을 바로 여러분이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내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주인공이 무엇인고?' 하고 '그 하는 놈이 무엇인고?' 하기 이전에 그놈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 밝은 세상에 '그놈이 뭣고?' '모두를 이렇게 들이고 내고 있는 놈이 무엇일꼬?' 하기 이전에 '바로 그놈이 하는 것이구나.' 하고 뛰어넘어야 되겠죠. 삼학년까지 공부를 잘하다가 너무 잘하니깐 사학년을 뛰어넘어서 공부를 해도 능히 하더랍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생전에 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감을 알고, 들은 사이 없이 듣는 걸 알고, 말하는 사이 없이 말하는 걸 알고, 책을 보되 보지 않는 걸 알고, 책이 나를 보지 않는 거를 알고, 모든 거 저 구름이 스스로서 오고 가는 걸 알고, 인간이 스스로서 생하고 멸하는 걸 알고, 이 모든 망상이 전부 망상이 아니라 네놈이 한다 하는 거를 모두 증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다음에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올 때는 여지없이 중이 돼서, 중이라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중은 계(戒)·정(定)·혜(慧) 이러는데 계도 정에 들고, 혜도 정에 들어서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중이 돼서 이 소임을 맡든 저 소임을 맡든 수천 수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장부로서 이 세상을 주름잡을 때 비로소 우리 국가의 역사는 거대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머리만 깎고 옷만 입었다고 해서 중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 살면 얼마나 더 살 양으로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 몸으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 마음이 죽는다면 몸도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해줄 수 있고
> 남들을 이익하게 해줄 수 있고
> 일체 만법에 걸림이 없이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산천초목도 쳐다보고 이 가슴속에 흘리는 눈물이 저 한 방울의 피와 같이 바다를 모두 메꿀 수 있는 한 방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과 또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일체 조사의 마음이,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의 마음이 다 한마음으로서 접근이 된다면 이끌어가지 못할 게 없죠.

바로 여러분 마음 하나만이라도 접근이 돼야만이 그 모두가 접근이 되는 것이고 아주 여여하게 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알아주실 수도 있고 일체제불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 역대조사들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는가 하면 천백억화신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 이 산천초목도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 이 모든 마음들을, 바람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요.

본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본래 물도 나쁜 것도 없이 사람의 마음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독이 들고 살아가면서 선인의 일을 하고 그러죠. 팔자 운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팔자를 만들고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얘야!"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스님더러 그랬습니다. "저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보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 안 보이긴 하나 돌아가는 건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요. 그 돌아가는 데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돌아간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모두. 그런데 그 돌아가는 불바퀴, 여러분의 불바퀴에 어떠한 요건의 문제도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맡겨놓으면은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냥 장난삼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과학자들은 아주 여자도 불문에 붙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산다 합디다, 그 연구하느라고.

그렇듯이, 보세요! 모든 것은 보이지는 않으나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진실하게 '너만이 이것을 녹일 수가 있다.' 하고 진실히 믿는다면,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반면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을 하고 그런다면 두려울 게 없죠. 또 남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은 정의로써 아주 진실하게 말을 하되 남이 언짢다 하면은 거짓으로 해서라도 이 사람이 이익하다면 거짓을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통성 있는 지혜라고 보는 것이죠. 모든 게, 사람 사는 것이 가슴이 넓어야 하고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못생겼든 잘생겼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닿기만 하면, 그 프로펠러에 닿기만 하면, 그게 불바퀴라고 한다면, 닿기만 하면 그냥그냥 갈아져버리고 부서져버리고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참 여러분이 홀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분에 한해서는 또 '내가 이만하면은 깨달았지.'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깨달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망상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깨달았다고, 나를 발견했다면 겨우 땅 속에서 씨가 나와서 겨우 싹이 한들한들 하면서 나오는 격입니다. 그것이 다 길러져서 이 세상에 모두 이심전심으로 둘이 아니게 조화를 이루고 돌아갈 때 그때에 바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도 깨달았다고 말은 못 합니다. 열매가 맺어서 온 누리를 두루 하면서 씨가 앉아서 무르익었을 때, 그 씨를 심어서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먹일 수가 있는 그런 실과가 돼야 하고, 남들이 그 익은 실과를 갖다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영원히 그 실과 하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점, 바로 이름해서 구경경지(究竟境地)에 이르러서 과거삼(過去三)·현재삼(現在三)·미래삼(未來三)이 통달해서 인간이 제대로 돼야만이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여기 다니신 지 여러 해가 되는 분들도 많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 질문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지껏 공부한 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만이 잘해나가는 건지 여러분, 대답해보십시오.

신도1(여): 그냥요.

큰스님: 나와서 말해요.

신도1(여): 스님들도 계시고 많은 보살님도 계신데 나이 어린 제가 나와서 떨리기가 한이 없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니다.

큰스님: 그냥?

신도1(여): 예, 그냥.

큰스님: 어, 그래.

신도1(여): 맞았습니까?

큰스님: 맞긴 뭘 맞어? 하하하.

신도1(여): 맞는 것도 놓는 것도 그냥입니다. 그냥입니다.

큰스님: 그냥…. 그래, 그냥 그냥이야.

신도1(여): 예.

큰스님: 그냥 해도 안 되고 그냥 그냥이야. 그대로 해봐!

신도1(여): 감사합니다, 스님. 하해와 같습니다.

큰스님: 그대로 잘 해나가.

신도1(여): 하해와 같습니다.

큰스님: 또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데 어떻게 해야 잘해나가는 겁니까? 다 사람은 차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테니깐요.

신도2(여): 저는 스님 앞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외람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고만 봐도 못 본 체 들어도 못 들은 체 그저….

큰스님: 허허허. (고개를 좌우로 흔드심.)

신도2(여): 그저….

큰스님: 허허허. 하여튼 이제 그만치 해도 알겠으니깐 가보세요. 또 누구 없습니까?

질문자1(남):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십시오. 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자1(남): 예, 바로 그건데. 어떤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보살님이 그냥 한다고 그랬는데….

큰스님: 그거는 댁에서 모르는 일입니다.

질문자1(남): 예,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물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댁한테 지금 하고 싶은 공부를, 어떻게 마음의 공부를 해야 잘하는 건지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6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 해 약 령 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령 사 주지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승단을 지켜내지 못한 죄를 참회합니다.

마이크 목걸이



A타입 ₩65,000
B타입 ₩55,000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 마이크 굵기 직경 38㎜ 이상은 장착이 불가합니다.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불자 세상보기

19대 국회에 바란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

5월 30일에 19대 국회가 개원된다. 초선 의원들은 금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설레임과 기대로 등원을 할 것이다. 재선의원들은 성을 사수한 개선장군의 기분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멍한 시선'으로 그들의 등원을 지켜보고 있다.

그 시선은 기대나 좌절, 기쁨과 분노가 없을 때 나오는 초점 없는 눈빛이다. 개 닭 보듯 하는 시선이다. 국민의 멍한 시선은 절대적인 좌절에서 나오는 비극의 눈망울이다. 그렇다. 19대 국회 개원을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상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적 현실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의회 구성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의회는 국민주권의 상징이고, 민주주의의 동력이다. 이러한 존엄한 명예와 사명을 가진 국회가 새 출발을 하는데 국민들이 무심한 것은 왜 그럴까.

또 그 원인을 어찌 일일이 지적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가 지닌 모든 병폐와 모순이 바로 그 존엄한 명예와 사명을 가진 국회의사당에 진열돼 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는 학문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 또 다른 귀족정치의 변형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와 함께 참여민주주의니 전자민주주의니 하는 또 다른 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의회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큰 척추이다.

척추는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시켜 주는 기능, 즉 집을 지탱해 주는 대들보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금 그 척추가 심하게 비틀어져 디스크가 됐고, 그 상처 또한 매우 깊은 상태이다.

이제 19대 국회개원을 맞으면서 만성 척추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국민의 멍한 시선은 또 다른 형태의 크나큰 관심의 표현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국회가 앓고 있는 만성 척추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해법에는 두 가지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바퀴는 개인윤리적 차원이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에 바탕을 둔 가치관 정립과 그 실천의지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도덕적 가치관 정립 필요
통합과 화합의 정치해야
불교 편견 시각도 사라지길

사회윤리적 차원이다. 여기서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치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근거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 두 차원은 상호보완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했을 경우, 그 사람의 비전과 인격에 공감할 때도 많았지만 막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비도덕적 환경에 개인이 함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그 실천이다. 그것은 하심(下心)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심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우리 국회의 제일 큰 고질병인 자기독선과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연고 정실주의는 하심을 갖지 못한데서 나온다. 물은 아래로 흐르면서 바다를 이룬다. 물이 아래로 흐르기를 포기하면 썩고 만다.

아래로 흘러 내려온 물은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는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제일 푸른 곳이다. 하심을 가지고 바다와 같은 큰 정치가 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하심을 가질 때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와 불교문화재를 종교적 편견으로 보는 시각도 사라지리라 기대한다.

사부대중 칼럼

계율 지켜야 스님답다



혜만 스님
동두천 자재암 주지
前 조계종 호법국장

먼저 승가대중의 도반으로서 사회와 교단을 혼란스럽게 한 부끄러움을 참회한다. 도박이냐 놀이냐는 사회에서 돈과 횟수, 습관성, 전문성에 따라서 판단한다. 하지만 명색이 수행자라 자처한 스님들이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술과 담배를 하면서 놀이를 했다는 것은 믿음의 배신이자 사회의 지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미약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스님들이 일반 사람들의 정신적 리더로서 인식과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다. 놀이라고 하지만 쾌락과 탐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고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어떠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알기에 더욱 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지금 사회에서나 교단에서 도박사건이 최고의 화제다. 이것은 도박이라는 사건에 국한돼 이슈가 된 탓도 있지만 그동안 한국불교의 리더격인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한 불신과 배신이 팽창되면서 더욱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반 사람들도 부끄러워 쉬쉬하는 일들을 정신적 리더라 자처 하면서 자행한 것은 정말 깊이 참회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 ?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혼란한 시국이다. 그래서 어떤 분출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가진 자비와 나눔, 중도의 정신 등이다. 그렇다고 최근에 발생한 도박사건을 옹호하고 정당화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말 이번 일은 부처님앞에 우리 스님들이 참회해야 할 일이다. 총무원과 법원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지만 모든 문제를 떠나서 우리 본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각자 개인마다 부모형제 처자식 다 버리고 출가한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이다. 무엇을 깨달을까? 탐진치 삼독심과 오욕락을 버리고 자성청정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수행자들의 큰 발원이다. 그렇지만 이 결과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힘들다. 하지만 비결은 있다.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팔정도에서 첫번째가 정견이다. 똑바로 보라는 것이다. 고집멸도 사성제를 바로 파악하고 바로 보듯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바로 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본다고 하지만 바로 보는지 안 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계율에 근거해서 보면 된다. 계가 이루어져야지 정이 되고 정에서 혜가 나오며 그다음 해탈, 해탈지견향이 된다. 결국 계 없이는 모든 수행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에 걸림 없이 자유자재한 부처님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욕심내고 성내고 화합을 깨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이익만을 추구했다. 그러면 병폐가 생겨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했다.

계율은 승단 화합과 상호소통, 융화에 필요하며 그리고 개개인의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막아준다. 즉 부처님처럼 자유자재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율장은 우리의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 부처님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계율이 무시된 수행 풍토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온갖 교계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율장에 근거하면 부처님께서는 확인된 일만 옳고 그르게 하면 된다고 했다.

업은 신,구,의 삼업이라 몸도 함부로 놀리지 말고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말도 항상 조심하라고 했다. 언론의 자유는 분명 있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이번 사건도 개인적으로 도박을 한 것은 분명히 참회를 해야 한다. 아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사건 전개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사람을 흔드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 부처님처럼 우리 모두가 청정한가 되묻고 싶다.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구업 짓지 말고 종단과 사회를 흔들지 말고 제자리에서 자기 할 일에만 충실하자.

사부대중 이라한다. 부처님 초기 때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였다. 언제부턴가 대승이라는 이름하에 사부대중이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됐다. 사부대중이란 네 개의 쳇바퀴가 각자의 위치에서 화합하면서 소리 없이 돌아가는게 사부대중이다. 그런데 남의 위치를 탐내면 소리가 난다. 제발 앞으로는 자기 본분을 지키며 부처님처럼 되지 못하더라도 부처님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다. 스님은 스님답게 재가불자는 재가불자 답게 말이다.

社說

아! 시대의 큰 빛 대행 큰스님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 한마음선원장 묘공당 대행 큰 스님이 5월 22일 오전 0시경 원적에 드셨다. 우리 중생들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두 주먹 불끈 쥐며 희망을 주시던 그 용맹스런 사자후를 이제 더 볼 수 없게 됐다. 한마음 법석에서 들리던 그 묘음을 어디서 다시 들을지 비통하다. 스님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포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것을 꼽는다. 대행 스님은 스스로를 미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모든 것을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스스로를 관하며 문제 해결을 하는 한마음 주인공 관법(觀法) 전파를 위해 1971년 안양에 한마음선원 전신인 대한불교회관을 세웠다. 이후 대행 스님은 1982년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으로 개칭하고 선원장으로 취임해 국내외 총 25개 지원을 열고 40여년 간 불법을 홍포했다. 대행 스님의 포교 방편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당시만 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신기원들이었다. 국내 최초 영탑공원 조성, 한글 경전 보급, 법문의 영상 매체화,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인터넷 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 포교, 현대불교 신문 창간, 한마음과학원 설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스님의 전법은 다수의 언어로 번역된 법문집을 출간하며 세계로 뻗어 갔다. 쉽고도 간결하며 깊이 있고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스님 법문에 세계인들이 주목했다. 수많은 이들이 스님에게 삶의 길을 물었고 스님은 실천적 해법을 명쾌하게 주셨다. 이제 스님은 떠나셨고 우리는 남았다. 남겨진 이들에겐 분명 그 이유가 있다. 스님이 남기신 '일승원음'을 깊이 새겨 서로 다투고 반목하는 세상을 원융과 조화의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큰 스님이 평생 포교 일선에서 흘리신 고귀한 땀방울의 의미다.

조계종 더이상 부끄럽지 말자

시끄러운 한 주였다. 2010년 불조(佛祖)를 뵙기 죄송하다고 승려증도 반납한 채 잠적한 수경 스님이 10명의 수좌 스님과 함께 성명서를 들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들 스님들은 "수임기구 설립과 종단 안정 후 총무원장은 용퇴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출재가 단체가 함께 하는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도 5월 24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개괄적 입장만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총무원의 추진상황을 보고 입장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여론에 조계종 총무원은 정면 돌파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5월 25일 열린 '승가 공동체 회복과 종단 안전을 위한 교구본사주지 108배 참회 정진' 인사말에서 "재임에 관심이 없고,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승 스님의 발언으로 현재 불거질 대로 불거진 '원장 용퇴론'과 각종 폭로 후폭풍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 같다. 대신 결사추진본부 자문회의, 사부대중 연대회의 등에서 제시한 종단 혁신과제 등은 자승 스님의 또 다른 숙제가 됐다.

수경 스님과 수좌 스님, 시민단체, 총무원 집행부 역시 고민하는 것은 대략 비슷하다. 종헌에 입각한 사부대중 공동체로 종단 시스템이 재편해 출가자는 수행, 재가자는 종단 운영을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함께 거론되는 종회 계파 해산까지 알면서도 그냥 넘긴 해묵은 과제다.

과제는 정해졌고, 이제는 풀어내는 일만 남았다. 기득권이든 비기득권이든, 출가든 재가든 이제 정말 한국불교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봐야할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영업사원 모집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ILDONG 일동생활건강

신이 주신 선물 – 세계10대푸드 선정

인터넷주문 www.idlife.kr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블루베리」

눈건강! 블루베리 장수식품으로 각광!



일동 블루베리 프리미엄 300셋트 파격할인판매!

신이 주신 건강덩어리 '블루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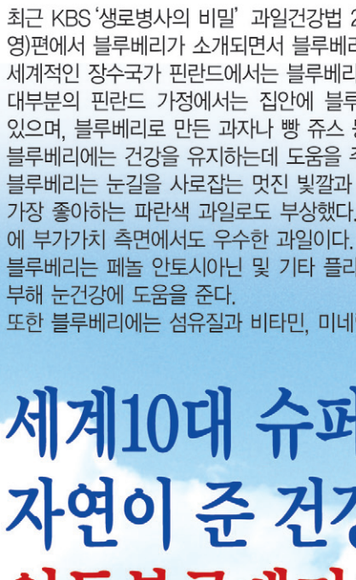
요즘 눈건강의 최대 화두는 블루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루베리는 타임지 선정 10대푸드로 선정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과일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건강과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KBS생로병사의 비밀, 뉴스타임 등에 방영되어 점차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블루베리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철쭉과의 관목으로 열매는 하늘색, 검은색 등으로 한국에서는 정금나무, 산앵두나무 북한에서는 들쭉나무가 있어 열매는 6월~8월에 열리는 과일로 제철에는 생과로 먹기도 한다.

특히 블루베리는 가열을 하거나 냉동을 하여도 영양소 파괴가 되지 않아 쨈, 주스, 과일주, 베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으며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에는 안토시아닌이 다량(복분자의 20배, 포도의 30배) 함유되어 신이 주신 건강덩어리라 할 만하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블루베리 다 이유가 있다"

눈건강으로 주목받는 블루베리, 건강에는 더 좋아…



오랜세월 아메리카 원주민의 비타민 보급원으로 건강지킴이 역활을 해온 블루베리는 우연한 기회에 유럽으로 부터 연구하게 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중의 한 영국전투기 조종사가 블루베리 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매일 다량으로 섭취했었는데 이 조종사가 '계속되는 야간비행과 새벽 전투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확실하게 앞이 보였는데 이것은 블루베리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라고 언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블루베리의 기능성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눈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것으로 알게 되었다.

그 후로도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진 오랜 연구를 통하여 블루베리의 높은 건강효과와 다양한 기능성이 알려지게 되어 '경의의 과일' 이라고도 불리워지게 되었으며 이에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과 주목을 이끌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독일,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게 되어 과일나무로서 크게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블루베리의 성분은 각종 비타민 A · B · C · E,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슈퍼푸드로 불린다.

상담문의 : 080-800-0022

언론이 극찬한 블루베리

- KBS 생로병사의 비밀 블루베리 2009. 10.15
- 신이 주신 건강덩어리 블루베리 매일경제 2009. 8.10
- 세계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 2009. 8.26
- 천연 OOO 블루베리 조선일보 2009. 7.27
- 블루베리 매일 먹으면 당신의 O가 웃는다 헤럴드경제 2009. 5.8



KBS 생로병사의 비밀 「단골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효능소개 / 자연이 준 종합영양제 컬러 과일을 먹어라편 / '눈이 내리는 서리, 노안' 편 안토시아닌효능 2009년 10월15일 방송 / '눈이 내리는 서리, 노안' 편 망막색소증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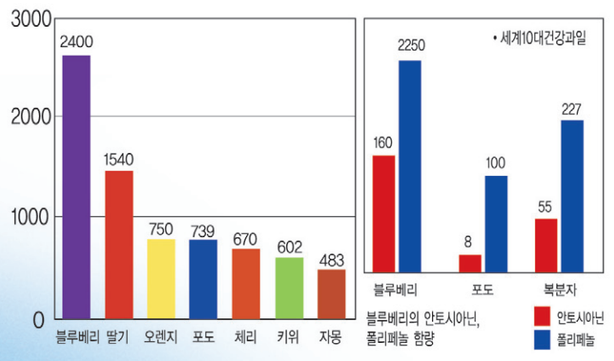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한 분
-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눈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눈 영양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및 수험생
- 온 몸이 천근 만근 하신 분
- 과중한 업무에 지친 남편을 위해
-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 · 장년
- 장기간 렌즈를 착용하거나 눈건강이 예민한 분
- 부모님 효도선물로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장수열매' 관심 증폭

최근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과일건강법 2부 젊음의 파트너 '보라(8월 10일 방영)편에서 블루베리가 소개되면서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 핀란드에서는 블루베리가 최고의 건강과일로 통한다.
대부분의 핀란드 가정에서는 집안에 블루베리를 보관하며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블루베리로 만든 과자나 빵 쥬스 등 가공식품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블루베리에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질' 이 함유되어 있다.
블루베리는 눈길을 사로잡는 멋진 빛깔과 달콤한 맛을 지닌 덕분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과일로도 부상했다. 건강에 좋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우수한 과일이다.
블루베리는 페놀 안토시아닌 및 기타 플라보노이드 같은 피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해 눈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다.

젊음의 과일 블루베리 안토시안(anthocyanin) 덩어리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타임지에서도 보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떤 과일이나 채소보다도 산화방지제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며, 주요 성분으로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과 피토케미컬(phytochemical)로 구성 되어 있다. 안토시아닌은 눈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이 자외선 등 환경 변화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물질인데 우리 인체에도 이로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포도보다 30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 안토시아닌을 통한 건강 관리에는 그 어떤 과일보다도 이롭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10대 건강식품

이탈리아에서는 안토시아닌의 효능을 인정해 이미 1970년대부터 이를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유명 일간지 〈뉴욕타임지〉는 세계 10대 건강 장수식품 중 하나로 블루베리를 꼽아 눈 건강뿐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블루베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좋다.

세계10대 슈퍼푸드 선정
자연이 준 건강덩어리
일동블루베리프리미엄 탄생!



판매원 ILDONG 일동생활건강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일동 블루베리진액 프리미엄 탄생!
100% 보장합니다.

일동 블루베리프리미엄은 순수 블루베리만을 넣어 만들었으며, 1포에는 씨, 껍질, 열매 등을 통째로 진액으로 만들어 영양성분이 우리의 몸에서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널리 보급하는 일동생활건강
제품의 자신감으로 후불제 전격실시!

300셋트 한정!!
2박스를 더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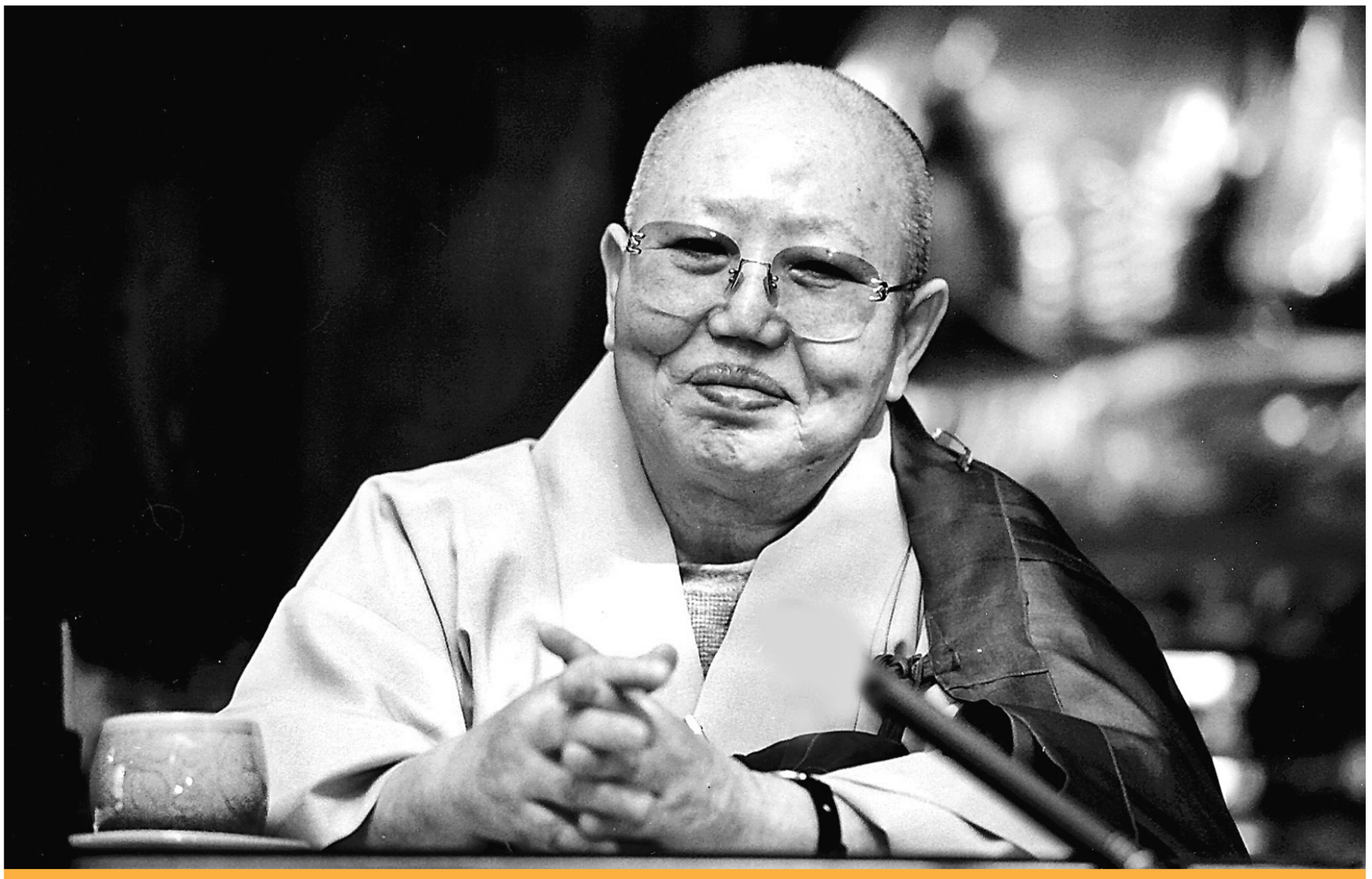
■ 제품명 : 일동블루베리 프리미엄 ■ 내용량 : 70㎖×150포

문의 및 주문 : 080-800-0022

圓寂

현대불교 890호

불기2556년 5월 30일 수요일



‘나’를 알려면 ‘나’를 내려놓으세요

묘공당 대행선사

1927~2012

열반, 대행으로 보이신 묘공의 이치

“기쁘게 삽시다. 싱그럽고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여러분이 슬플 때 나도 슬프니 그것은 우리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걸어갑시다. 영원토록 같이 걸어갑시다.

헤어진다 해도 마음이 하나일 때 그곳에 헤어짐은 없습니다.

설령 죽음이 갈라놓는다 해도 한마음에서는 이별이 없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이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아픔이라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스님은 삶과 죽음을 둘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63년 수행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법(法)이었다.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고, 선과 악을 둘로 보지 않는 대행(大行)은 일체가 한마음에서 들고 나는 묘공(妙空)의 도리였다. ‘설령 죽음이 갈라놓는다 해도 한마음에서는 이별이 없다’ 고 했으니 스님이 이승을 다녀간 86년, 불문(佛門) 안의 63년 생활은 본래 없는 시간에 본래 없는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중생계의 관심은 스님의 실존적 시간에 더 많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거쳐 온 대행 스님의 생애는 ‘길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 걸어 온 자취일 뿐이다. 한마음선원이 발표한 스님의 행장과 〈한마음 요전〉 등을 통해 스님의 자취를 더듬어 본다.

유년, 마음속 아빠에게 우주의 근본 묻다

스님은 1927년 음력 1월 2일(양력 2월 3일) 지금의 서울 이태원에서 부친 노백천(盧伯千)과 모친 백간난의 3남 2녀 중 셋째인 장녀로 태어났다. 속성은 교하(交河) 노씨(盧氏)이며 오른쪽 발목 부위에 붉은 반점이 있어 이름을 점순(点順)이라 했다.

스님이 일곱 살 되던 해에 가산이 몰락했다. 조부와 부친이 무관출신이었고, 부친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군인 출신이었다. 그런 부친의 항일 운동이 빌미가 되어 윤택하던 집안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몰수되고 거리로 나 앉은 것. 정작 일곱 살의 스님을 힘들게 한 것은 가난보다 부친의 엄한 가르침이었다.

가족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산으로 들로 나물과 이삭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모진 시간 속에서 스님은 풀이나 들짐승 등과 대화 하는 법을 터득했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마음의 눈이 생겼다. 그때 마음속의 ‘아빠’를 세워두고 수시로 ‘아빠’와 마주서 인생과 우주의 근본을 캐물었다.

‘세상 조화가 팔만대장경’ 임을 감지

스님은 14살 나던 해에 상원사 인근의 외가에 갔다가 한암 큰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선승 한암 큰스님과의 인연은 불교라는 거대한 운명과의 만남이었다.

스님이 이산 저산을 떠돌며 수행 하던중 6·25가 발발했다. 포화를 뚫고 찾아 간 곳은 서울의 흑석동 숲이었다. 굶주리면 굶주린 그대로의 자성을 보았고 목마르면 목마른 그대로의 성품을 보며 산을 헤매는 사이 전쟁은 끝났고 잠시 가족들과 만났지만 이내 발길은 산을 향했다.

그로부터 만행의 시간이었다. 전쟁의 참상, 끈질긴 가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모든 것이 비정상인 시대에 오직 산길을 걷고 굶주림과 맞섰다. 그 길에 ‘아빠’가 있었고 늘 깨침의 종소리를 갈구했다.

“산으로 돌아다닐 때 여기저기 돌도 있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곰팡이 냄새나는 썩은 나무도 있고 잘생긴 나무, 비틀어진 나무도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의 조화를 느꼈다. 거기서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조화가 바로 팔만대장경이란 걸 알았다. 경전을 읽어 보지 않았어도 한두 마디 들어보면 다 포착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조화의 이치를 알았던 결과였다.”

이생(利生), 널리 생명을 이롭게 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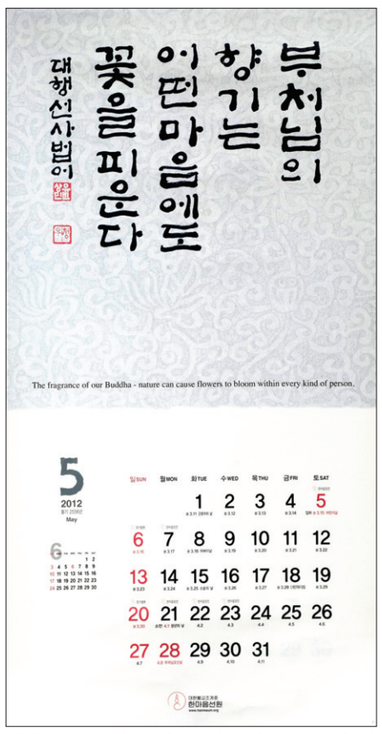
나이 서른을 넘으면서도 산과 들을 돌아다니는 만행은 계속됐다.

만나야 할 내면의 ‘아빠’를 더 사무치게 만나야 했고 내면을 불태우는 구도열은 펄펄 끓기만 했다. 홀몸으로 자성의 발길을 따라 걸음을 놓으니 화장사(現 지장사), 국립묘지, 한강변, 관악산, 광나루, 헌인릉, 청계산을 거쳐 남한산성, 경기도 이천, 강원도 춘천, 영월, 충북 제천 백련사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시간에 이르는 만행이 이어졌다.

치악산으로 들어가 일체를 내려놓고 수행에 목숨을 던졌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상원사 중창불사를 마친 것이 1963년이었다. 그 무렵 사람들은 스님을 ‘이생님’이라 불렀다. 이생이란 널리 생명을 이롭게 하는 삶이다. 누구에게나 “너도 이생(利生), 나도 이생이니 전부가 다 이생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대행 스님의 20대와 30대는 만행으로 채워졌다. 그 ‘길 없는 길’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다.

박대하고 핍박하는 사람, 광녀(狂女)와 거지 취급 하며 놀리고 때리는 사람, 찬 밥 한 덩이 주는 사람,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더러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도 했다.

스님이 처방전을 준 사람들이 기적처럼 병고를 벗어나기도 했다. 그러는 가운데 스님 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병을 고치는 등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스님을 ‘도인’이라고 여기고 받들기까지 했다. 스님은 분명하게 밝혔다. 2면으로 계속



대행 스님이 가신 5월의 달력. ‘부처님의 향기는 어떤 마음에도 꽃을 피운다’는 스님의 법문이 이달의 법향으로 피어나고 있다.

■ 대행 스님 49재 일정

- 5월 28일 초재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오후 3시
- 6월 4일 2재
- 6월 11일 3재
- 6월 18일 4재
- 6월 25일 5재
- 7월 2일 6재
- 7월 9일 49재

한마음선원 선원장
현대불교신문 회장
묘공당 대행 스님의
원적을 추모합니다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www.hyunbulnews.com

■ 묘공당 대행선사 연보

1927년 정묘(丁卯)년 1월 2일(음력) 지금의 서울 이태원에서 출생
1950년 상원사에서 방한암(方漢岩) 스님을 친견하고 출가의 뜻을 세움
1950~1960년 강원도 경기도 일대 산야에서 10여 년간 산중 고행

1960년 탄허스님을 계사(戒師)로 월정사에서 사미니계 수지
1961년 탄허스님을 계사로 월정사에서 비구니계, 보살계 수지
1963년 치악산 상원사 중창 불사

1972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대한불교회관」 건립

1981년 무량사 우진(宇振)스님을 은사로, 탄허(呑虛)스님을 계사로 소실된 승적 재정리
1982년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찰 등록
한마음선원으로 개칭, 선원장으로 취임
1982년 충북 음성군 금왕에 첫 국내지원 개원
제5차 국제불교학술회의에 증명법사로 참석 (중국불교연구원 주최)
1984년 본원 합창단을 창단, 선시(禪詩)와 법어로 만든 선법가(禪法歌)를 통한 음성 포교 시작
각 지원에서 어머니, 어린이, 청년합창단 창단
1985년 비디오 법문을 통한 영상포교 시작
1986년 금왕지원에 최초의 한마음 영탑공원 설립, 현대적인 불교장례문화를 선도
이후 제주, 진주, 중부경남지원에 영탑공원 조성
1987년 〈천수경(千手經)〉과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뜻으로 풀이한 한글 경전 보급
미국 캘리포니아에 첫 국외 지원 개원 (모건힐지원)

1990년 남성 신도들을 위한 법형제 법회 매월 개최(본원)
1992년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설립
1994년 주간 불교신문인 「현대불교」 창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주창
불교서적 출판사를 겸한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설립
불교계 최초의 거사합창단 설립(본원)
1995년 〈뜻으로 푼 한글 금강경〉 발표
1996년 국내 최대의 불교 포털사이트 부다피아 'buddhapia' 개설, 불교계 최초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온라인 포교를 시작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출판부 설립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 설립
첫 유럽지원인 독일 카스트(Kaarst) 지원 개원
1999년 안양 본원 대법당 준공
불교인터넷방송국 HBTV 한마음불교방송국 개설

2000년 8월 UN본부 세계종교지도자 회의 참석
2001년 국제 포교 및 외국어 법어집 제작을 위한 한마음국제문화원 설립
스리랑카 종교복지재단 'LJSSS'에서 세계적으로 불교를 널리 알린 외국 스님에게 시상하는 사르보다야 명예상 수상
제1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한마음합창제 '임의 소식' 개최 (세종문화회관)
2002년 본원 도량에 구정탑(九淨塔) 건립
UN에서 제정한 '위대한 불교 여성상' 수상
격월간 수행포교 寺報 '한마음저널' 발간
2004년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비구니의 수행과 삶' 개최 (본원)
제2회 간암환자돕기 한마음합창제 '그 마음 그대로' 개최 (세종문화회관)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국제문화원 매년 참가
2006년 제2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송년의 밤 음악회 개최 (안양문예회관)
2009년 한마음불교문화회관 준공
2011년 제22회 포교대상 수상(대한불교조계종 종정상)
제3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한마음음악제' 개최 (세종문화회관)
2012년 현재 부산 광주, 통영 강릉 등 15곳의 국내 지원과 독일, 캐나다, 태국 등 9곳의 국외 지원을 개원, 국내외 150여 출가 제자들과 나라와 지역, 사상과 종교를 뛰어넘어 '자기 마음의 근본을 믿고 맡기고 지켜보라'는 생활 속 관법 수행을 가르치시며 안양 본원에 주석해 오심
2012년 5월 22일 세납 86세 법랍 63세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입적(入寂)

■ 법회

1971년 이후 30여 년간 연일 담선 법회 개최
1986 ~ 2001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적인 대중법회 개최
1982 ~ 2001 국내에서 약 80여 회의 초청대법회를 개최
1987 ~ 2001 약 70여 회의 국외 초청 법회 개최
1990 ~ 2001 매월 거사들을 위한 법형제법회 개최
1991 ~ 2000 청년들을 위한 전국연합청년법회 개최
1996 ~ 2000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을 위한 학술법회 개최



스님은 젊은이를 만나면 젊은이의 마음이 되어 진리를 전하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픈 사람에 맞게 상대와 하나가 되어주었다.

공생·공심 가르침 '세계일화' 꽃 피운다

포교 원력 도량 한마음선원
국내 15곳 · 해외 10곳 지원 발전
영상 · 매체 포교에도 신기원
비구니회관 건립에 85억 쾌척
무주상 보시 솔선 "둘로 보지 말라"

"이는 나의 힘이 아니고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자성불(自性佛)의 위신력이라, 스스로에게 갖춰진 능력으로 이루어진 공덕이니 스스로의 자성에 감사하라."

하산, 전법도생의 행화를 펼치다

스님은 1961년에 비구니계를 받았다. 탄허 스님이 계사(戒師)였다. 1965년에 산을 내려 왔다. 사람들의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 법(法)을 전하고자 함이었다. 원주 인근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을 하고 안양으로 거처를 옮겨 '대한불교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법당을 건립한 것이 1972년이고 지금의 한마음선원 자리다.

1970년대, 마을마다 새벽종이 울리고 '새마을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 때에 전법도생의 행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1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왔고 불교에 귀의했다.

1982년 조계종에 사찰을 등록하고 '한마음선원'으로 이름을 고쳤다. 스님이 선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해에 충북 음성군 금왕에 첫 국내 지원이 개원됐다. 인연 있는 불자가 운영하던 사찰과 토지를 기증한 것이다. 이로부터 제주, 부산, 광주, 온양, 울산, 대구, 마산, 진주 등 전국 15곳에 지원이 속속 개원됐다. 이들 지원은 안양 본원의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불자들이 스스로 발심하여 건립한 것이다. 해외 지원도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모건힐지원이 설립된 이후 독일 브라질 태국 등 10개국에 지원이 설립되었다. 스님은 지원이 생길 때마다 기꺼이 순회하며 법문을 하고 제자들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살폈다.

전법, 세상에 없던 것이 생기는 기쁨

이제 한마음선원이 하는 일은 뭐든지 시초가 됐다. 세상에 없던 것들이 스님의 회상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1986년 금왕지원에는 영탑공원을 조성했는데, 7평 규모의 부지에 1기의 탑을 세우고 그 안에 3대까지의 유골을 봉안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영탑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 받았다.

합창단을 통한 신행과 포교 그리고 문화사업도 한마음 선원이 선두가 됐다. 스님은 1984년에 본원 합창단을 창단했다. 선시와 법어로 만든 선법가를 통한 음성포교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각 지원에도 합창단이 생겼다. 합창의 열기는 어린이 합창단부터 어머니합창단, 거사합창단의 창단으로 이어졌다.

합창은 단순히 하모니를 맞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화음을 통해 화합과 우애를 배우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겸손을 배운다. 그리고 가사의 뜻을 화두처럼 되새기며 만법의 이치를 궁구하고 남을 위한 보살행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선법가 합창의 공덕이고 수행이다. 물론 듣는 사람은 듣는 즐거움 속에 감동과 깨침의 맛을 보게 된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불교계 대표적인 합창단으로 자리매김 하며 2001년부터는 소아암 환자 돕기, 소년소녀 돕기 등 테마 합창제를 주관하여 세상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비디오 영상 포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포교 방법으로 주목 받았다. 스님은 20년 후에 도래한 정보화 사회를 미리 실천에 옮긴 것이다. 영상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포교도 단연 선두였다. 1996년에 불교종합 포털 부다피아를 개설해 불교 정보화 시대를 개척해 나갔고 1999년에는 HBTV 한마음불교방송국을 개국했다.

스님이 드러낸 매체 포교 열정은 주간 불교전문 신문 '현대불교'의 창간으로 꽃피었다. 1994년 10월 15일자로 창간된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를 표방하며 참신한 내용과 편집으로 기존의 불교계 신문매체들을 단숨에 능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공생, 지구촌으로 퍼지는 법향

안양 본원이 설립된 뒤부터 소식지나 책자 등 간행물을 조금씩 발간해 오던 한마음선원은 출판 분야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지켜 나갔다. 스님은 "나는 말한 예가 없으니 남긴다 할 것도 없으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편이 필요한 고로 책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며 격려했다. 〈금강경〉 〈천수경〉 등 경전들을 뜻으로 푼 한글 경전도 보급하기 시작했다. 1996년 한마음선원 출판부가 개설되어 본격적으로 스님의 가르침들을 출판 보급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글로벌 시대인 21세기에 들어 한마음국제문화원을 세워(1999년) 법어집 등을 영어 독어 프랑스어 등 각국어로 번역해 출판 보급했다. 세계가 한 가족으로 변화해 가는 시점에 종교인들 동서양의 구별이 있겠느냐는 혜안이 불교의 세계화를 주도한 것이다. 스님의 책들은 해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출품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문화와 역사, 정서가 다른 이국인들에게 이질감 없이 스며드는 스님의 법어는 철저한 생활언어를 근간으로 한다. 종교 이전의 종교를 설하는 스님의 가르침이 다양한 형태의 책을 통해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마음의 원리를 연구하는 '한마음과학원'도 2001년에 문을 열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신 스님은 8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회관 건립비로 내놓으며 "불자들의 심부름을 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한 심부름이 어디 한 두 번이었을까? 스님에게는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도 많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 어느 누구도 박대하지 않고 손이나 주머니를 채워서 돌려보냈고 종종 "내가 가진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구니의 수행에 대한 학술적 조명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스님은 크고 작은 학술행사를 지원하고 한마음선원에서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비구니의 수행과 삶'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2004년)하기도 했다.

행함이 없는 행이요, 설함이 없는 법문일지라도 그에는 반드시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2011년 조계종 종정상인 제22회 포교대상을 수상한 것도 스님이 펼친 전법도생의 삶을 치하하는 뜨거운 박수였다. UN이 제정한 '위대한 불교여성상'(2001년)과 스리랑카 종교복지재단 LJSSS가 시상하는 '사르보다야' 명예상도 그러한 맥락이다.

이제 육신으로의 대행 스님은 누구도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책과 사진, 영상물 등을 통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일깨운 선지식의 자취가 첨단 메커니즘에 부합되어 있음이다.

대행 스님은 '임종게'를 따로 남기지 않았다. 평생 들려준 법문 모두가 그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임연태 〈본지 논설위원〉



만나고 헤어지는 마음들을 한데 모아 한마음으로 올리오니
세세생생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하시기를 발원하옵니다.

한마음선원 신도회 합장 구배

한마음에는 이별이 없다고 하셨지만…


한마음선원의 신도가 분향소 앞에서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조문은 엄숙하게 진행됐다.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만장을 쓰며 대행 스님을 회고했다.

각계 인사·불자 조문 애도

안양 한마음선원장 대행 큰스님이 원적에 드셨다.

대행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는 입적 소식을 들은 전국의 신도들과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5월 22일 오전 10시, 원적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대행 스님은 맑고 깨끗한 지혜를 가지셨던 분이었다"며 "스님은 평소 오고감이 없는 도리를 늘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스님은 "그 경지에서 자유자재로 생사에 임하셨다. 우리 사부대중들도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하자"고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22일 오후 3시에는 제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입관식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8시 경에는 안양본원 4층 법당에 재단을 국화로 장식한 공식분향소가 마련됐으며, 임시 분향소로 사용되던 3층 법당에는 대행 스님의 온화하신 생전 영상 법회 모습이 상영돼 신도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종무원, 인천경기지역 포교사단 포교사들과 한마음선원을 찾아 분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이날 한마음선원은 조문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이외에는 다른 화환은 받지 않고 돌려 보내기도 했다.

비구니 승단의 큰 어른 스님 입적 소식에 후배 비구니 스님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등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빈소를 찾은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어른 스님이 조금 더 계셨어야 하는데…"라고 울먹이며 끝내 말문을 잇지 못했다.

정목 스님은 "스님의 초재가 부처님오신날 진행되는데 평소 '한마음으로 주인공 자리를 찾아 너 스스로 눈을 뜨라' 는 말씀처럼 단순히 기쁜 부처님오신날이 아닌 자신을 성찰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남겼다.

23일 오전에는 학계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스님의 분향소를 찾았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前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봉녕사 승가대학장 도혜 스님, 경주 동국대 박물관장 청원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 · 혜원 스님 등이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추모했다.

분향을 하며 스님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아낸 아태불교문화연구원장 법산 스님(前 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대행 스님의 현대적 교육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대행 스님은 교육방식이 신선했다.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모아 새로운 불교과학을 개발 연구하고 해외포교를 하는 등 기존 조계종단의 교육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복지계 인사들도 대거 분향소를 찾았다. 정토마을 자제병원 능행 스님, 더프라미스 공동대표 도진 · 종화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이 스님을 추모했다. 이와 함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내원사 선원장 자광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등이 방문했다. 이밖에 최대호 안양시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평소 오고감이 없는 가르침을 펼치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선원 신도들은 스님의 열반소식에도 담담했다. 하지만 현실 속 깊이 다가온 스님의 큰 자리를 지울 수는 없어 보였다.

강미남 보살은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을 잃은 것같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대행 스님이 계실 때나 안계실 때나 항상 스님 말씀대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 라는 각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나동현 씨는 "대행 스님은 내게 부모님과도 같다. 그런 스님이 열반하셔서 마음 아프지만 분향소에서 스님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또다른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원내 구정탑을 돌고 3층 법당에서 영상법문을 들으며 스님의 원적에 대한 슬픔을 달래기도 했다.

노덕현 · 이나은 기자

조 사

무생법인 하옵소서

푸른빛을 더해가는 산과 들에 맑은 바람이 불어 물은 잔잔하고 구름은 한가한데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선사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이 산천을 굽어보고 계십니까?

정녕, 큰스님께서는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걸어 부처도 중생도 없는 열반의 땅으로 떠나시어 다시는 뵐 수가 없는 것입니까?

창졸지간(倉卒之間)에 듣게 된 큰스님의 열반소식은 대지의 풀들이 드러눕고, 하늘을 날던 새들이 날개를 접으며, 흐르던 물줄기가 멈춰 서는 일 밖의 일이요 꿈 밖의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음의 법석에서 들리던 묘음(妙音)이 아직 귓가에 생생한데, 그 자애로운 법음은 이제 어디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을 지 눈앞이 아득할 뿐입니다.

오늘 스님의 영전 앞에서 숱한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몸을 가눌 수 없고 마음을 다잡을 수 없어 비틀거릴 뿐입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병원 건립 불사를 위해 큰 성금을 쾌척(快擲)해 주시던 일, 한마음선원 법회에 불러 강연의 기회를 주시고 학교와 병원을 걱정해 주시던 그 자상함, 불교와 과학의 둘 아닌 도리를 깨우쳐 주시며 후학 양성이 인류의 미래임을 강조하시던 모습, 힘들고 지칠 때면 용케도 아시고 한마음의 깊은 통찰을 통해 세상살이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내리시던 큰스님! 그 물심양면의 따뜻한 가르침과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몹시 힘든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큰스님, 대행 큰스님!

번뇌가 없이 어떻게 보리를 이룰 수 있으며, 보리를 탐하는 마음에 어찌 번뇌가 없을 수 있느냐며 껄껄 웃으시던 그 기상(氣象)이 뼈에 사무칩니다.

수차례의 결집으로 전승되어 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이라면, 큰스님께서 일생동안 베푸신 법구(法句)는 한마디 한마디가 대장경의 날개가 되어 고금(古今)의 일승원음(一乘圓音)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큰스님의 그 깊은 선지와 활활발발한 기상을 문자 속의 문자로 친견하고 언어 밖의 언어로 배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다투고 반목하고 투쟁하는 세상을, 화해하고 화합하여 원융과 조화의 세상으로 바꾸는 묘약(妙藥)으로 삼겠습니다.

부디, 부디, 무생법인(無生法忍) 하소서!

불기 2556년 5월 26일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추모사

한마음 도리 밝힌 우리시대 큰 빛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큰스님!

비구니 스님들의 큰 어른이시며 사부대중의 큰 스승이신 스님께서 이렇듯 원적에 드시니 세간은 일시에 어둠에 싸이고 중생들은 큰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대중들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시며 자유인으로 패기 있고 싱그럽게 살라고 하시던 그 사자후를 이제 어디서 들어야 합니까?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니 걸음걸음이 모두 만행(萬行)이요, 발길 닿는 곳마다 만행화(萬行華)를 피워 내어 중생의 삶을 장엄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안양에 한마음선원을 건립한 이래 전국에 여러 지원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포교에도 선구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인터넷 포교는 물론 한글 뜻풀이 경전의 보급, 영상매체를 통한 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 포교, 현대불교 신문 창간, 한마음과학원 설립 등 최초, 최고라는 수많은 업적을 이룩하며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편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비구니회관, 중앙승가대학교, 팔만대장경 전산화 등 스님 일생에 남긴 대작불사의 공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여전할 것입니다. 스님의 원력으로 인해 불교는 더욱 대중화되었고 계층포교와 매체포교는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대지를 사르는 거대한 들불도 그 시작은 작은 불씨인 것처럼, 한 점의 불씨로 만 가지 꽃을 피우신 대행 큰스님! 다함이 없는 보현보살의 큰 행원을 다시 펼치기 위해 길없는 길을 따라 발 없는 발로 한시 바삐 돌아오소서.

불기 2556년 5월 26일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조 사

광도 중생 대보살로 화현하시길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큰스님!

스님의 열반은 인연으로 화합된 스님의 육신이 다시 본래의 모습대로, 저 망망한 법계의 바다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달이 기울었다면 달은 자리를 바꾸었을 뿐 없어지거나 멸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혁혁한 빛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큰 슬픔은 깊은 강이 되어 흐릅니다.

이제 가고 옮에 진정 자재하셨으니 정토와 예토를 오가시며 그윽한 법음을 토해내어 저희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러러 생각건대, 스님은 갖가지 사람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시고 손수 어께를 다독여 주시며 고통에서 건네주셨습니다.

포교의 불모지에 불법을 펼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심에 그 끝없는 덕화가 하늘처럼 가없습니다.

스님의 언 가슴을 녹이는 따뜻한 법문에 사람들은 환희용약했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감로 법문에 실의에 찬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스님의 넉넉한 품은 가진 사람, 못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관계없이 그릇대로 법비를 내리시어 한 마음의 차별 없는 참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스님께서는 산천이 연푸른 초록으로 물들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이 찬란한 오월에 푸르른 산 빛을 뒤로 하고 비로정상에 올라 반열반의 하늘에 유유자적 하셨으니, 법희 선열 깊이 수용하시고 법계를 두루 비치사 발고여락 광도중생의 대보살로 화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푸른 계절, 부처님오신날에 함께 화신으로 몸을 나투사 이 세상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하소서.

불기 2556년 5월 26일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영결사

만공의 달이 되어 세상 비추소서

평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도리 가르치시고 홀연히 가신 스님이시여!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변한 것이 없는데 이제 다시는 스님을 뵐 수 없다니 참으로 황망하고 먹먹한 이 심정을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습니다. 삶이란 본디 한 조각 뜬구름처럼 이렇게 허망한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바의 중생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목말라하고 있는데 스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초록은 짙푸르고 꽃은 만발하여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에 이제 어디로 가야만 스님의 불이법문을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묘공당 대행큰스님!

6.000여비구니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에 큰 역할을 해주셨고, 한국불교 최초의 인터넷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포교 등 한국불교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실천해오셨습니다.

살아서 열반이 진짜 열반이라고 하셨던 스님께서 이제 생멸의 문을 자유자재로 건너시었으니 걱정과 슬픔으로 헤메이는 이 땅에 만공의 달이 되어 두루 세상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는 영원한 스승으로 한자리에 하시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한마음으로 모아 주신 이 원력의 도량에서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잘 받들어 불국정토 이루는 날에 스님께서도 발원하신 전법향상과 포교 원력을 잊지 마시고 하루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오소서.

불기 2556년 5월 26일

명우 전국비구니회장



큰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삼세의 어두운 마음들을
광명으로 화하게 하는 법바퀴이십니다.

가없는 큰스님의 법향이 일체 생명들에게
가고 오는 사이 없이 전달될 수 있게
쉼없는 정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합장 구배



“자신의 불성을 믿고 내려놓자”

만가지 꽃이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관음보살님
내 한마음에 계시오니
항상 감사하옵니다.

일체제불 원력이 내 한마음 원력되어
항상 일상생활 걸림 없이
해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일체제불 마음이
내 한마음 법이오니
그 만족함 광대무변하도다.

삼심(三心)이
일심(一心)되니
몰락 전부 놓는다면
일심조차 세울 게 없도다.

천지의 근본도
내 한마음이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내 한마음이 근본이라
어찌 모든 세상
두루 살피지를 못하리오.

일체심이 곧 일심이니
찰나찰나 나투며 길을 밝히도다.

본래부터
마음에는 문이 없어
넘어들 것 없으므로
넘어갈 것 또한 없어
한마음이 근본이니
그대로가 생활이며 법이로다.

내 한마음 믿으오며
한마음의 진실한 뜻
따른다면 자유자재하리이다.

내 한마음 그대로 관세음이신 고로
내 한마음에 귀의하오니

이 한마음 믿고 믿어 원을 세우오니
일체가 다 이루어지이다.

오로지 내 한마음 믿고 따르면
찰나찰나 나투는
모든 중생 그대로
건지리다.

내 한마음 그대로
관세음이신 고로
내 한마음에
귀의하오니

오로지
내 한마음에
모든 원을 세운다면
성불하리라.



대행 스님 ‘주인공 관법’

“자기 자신의 부처가 될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근본 마음을 철저히 믿고 귀의하십시오. 나는 수십 년 간 오로지 이 말만 되풀이해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말만 되풀이 할 것입니다.”
– 대행 스님 법문 中

대행 스님은 대중에게 오로지 마음공부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마음’ ‘주인공’ ‘믿고 맡기다’ ‘관(觀)하다’ 등 다양한 표현으로 법문을 펼치면서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했다.

스님이 주창한 주인공(主人空) 관법은, 관념으로 궁리하는 이론이 아니라, 수박을 쪼개어 그 자리에서 직접 맛을 봄으로써 수박의 실체를 그대로 믿고 알게 하는 진리의 실천이다. 자신의 참다운 주체인 불성을 믿고 의지해 2500년 전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맛보고 증득할 수 있는 마음 도리인 것이다.

이러한 스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좌표를 몰라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길을 일러주는 이정표이자, 내면의 보배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고 있다.

대행 스님이 일러준 마음공부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에 관련한 법문을 통해 내 근본 에너지인 불성, 즉 주인공을 찾아가보도록 하자. 정리= 이나은 기자

근본 에너지 불성 발현하는 마음공부

주인공 관법은 한마음선원의 대표적 수행법이다. 쉽게 ‘나’로부터 생각해보면 된다.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 보고 듣고 느끼는 자기가 있어 상대도 있고 세상도 있다. 잘했든 못했든 울고 웃게 된 것도 그 모두가 자기가 있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나의 근본 ‘참나’가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러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佛性)이라고도 하고 진아(眞我)라고도 한다. 바로 나를 생성시킨 근본이며 이것은 곧 우주를 생성시킨 근본 에너지를 말한다.

대행 스님은 내 모든 것을 진짜로 하는 그 불성자리를 일러 주인공이라 이름하고 내 근원인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마음공부를 시작하라고 가르쳤다. 무한한 에너지의 보고(寶庫)인 주인공은 꽉 차 있으면서도 내세울 실체가 없어 주인공(主人空)이라 했다.

“먼저 나를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야 그냥 나이지 뭐겠느냐 싶을지도 모르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뜻인데 나는 그런 물질적인 결합일 뿐인가. 아닙니다. 그러한 나가 아닌 진정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 싹을 틔워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까? 나를 싹틔운 그는 누구입니까? 곧 참나, 주인공입니다. 사람의 뿌리는 모습이 없어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의 뿌리가 없다고 단정할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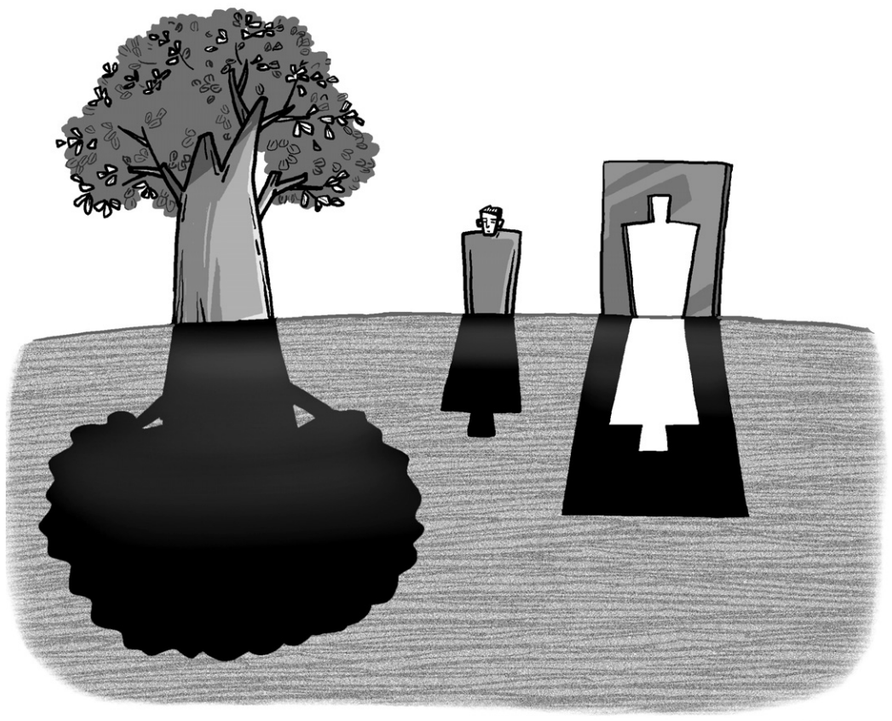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무에 비유해 내가 열매라면 주인공은 열매를 있게 한 꼭지와 같고, 내가 꼭지라면 주인공은 그 꼭지가 매달린 가지와 같으며, 내가 가지라면 주인공은 그 가지가 돋아 나온 줄기와 같습니다. 내가 줄기라면 주인공은 비유하건대 뿌리와 같으니 뿌리는 나무가 있게 된 근본이라 그로부터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나왔듯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활동, 나의 모든 공덕이 그 주인공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공은 나의 참된 근본입니다. 내 몸, 내 생각은 돋아났다가 곧 스러지는 가지, 잎과 같으니 뿌리는 가지와 잎이 떨어지고 꺾이면 새로운 가지와 잎을 돋게 하듯이 주인공도 그러합니다.”

주인공 관법은 진리의 실천
‘참나’ = ‘불성’ = ‘주인공’
내려 놓음은 관념을 타파해

그대로 믿고 놓는 것도 관법

나무에서 꽃이 핀다고 해서 나무를 잘라내어 그 속에서 꽃을 찾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꽃을 피우는 성품은 분명히 그 속에 있다. 그 성품이 있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놓는 것이 관법이다. 이때 놓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짓는 관념을 타파하는 것이다. 즉, 너 나 높고 낮음 잘났음 못났음 좋고 싫음 등 내 생각으로 지어서 분별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갓난아기가 부모를 무조건 믿듯이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듯이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세요. 믿는다, 맡긴다 하는 생각조차 붙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맡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일임하게 되면 왜 일이 잘풀리는가. 그것은 근본 자리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우러나와서 유위의 법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자리는 본래 부동이지만 그 같은 나툼의 묘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그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놓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살다보면 앞뒤 좌우가 모두 꽉 막혀 어떻게 손을 써 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공부가 뒷걸음 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생 · 공심 · 공용 등이 깨달음
모든 것 놓는 ‘집착 버림’이
겸손과 하심 자유인 만들어

그런가 하면 더욱 더 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에 깊이 새겨야 할 점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이끄는 것은 주인공일 수 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곧, 직면한 어려움이야말로 주인공이 나를 위해 공부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왜냐? 어려움을 준 쪽에서 결국은 풀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참된 삶 살 수 있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에 얽매여 쩔쩔매지 말고 ‘주인공! 잘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주인공의 뜻일 뿐이니 모든 것을 주인공 근본에 맡깁니다.’ 하고 관(觀)하는 것이다. 또한 관법은 좋은 일에는 ‘주인공 감사하구나’ 하고 놓고, 좋지 않은 일은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당신일 뿐이야.’ 하고 돌려놓는 것이다. 그 두가지를 마음속으로 부지런히 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좋은 일과 좋지 않는 일이 본래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

“지금 처한 당장의 경계부터 푹 쉬어 보십시오.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싫은 것에서 벗어나 푹 쉬어보세요. 지난날의 모든 업도 지금 이 순간의 내 속에 실려 있으니 지금 한생각에 크게 놓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셈이 됩니다. 그러다가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놓아 버리면 당신의 잠재 컴퓨터는 점점 짐이 가벼워져 결국은 텅 빈 듯 홀가분하게 될 것입니다.”

“언짢은 일, 괴로운 일이 닥쳤다, 혹은 닥쳐올 것이다 했을 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근본을 찾아 안으로 굴려 놓는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기복으로 나가거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놓고 나아가노라면 생수가 터져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놓아라’ 하니까 ‘놓고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놓았기 때문에 참으로 살 수가 있는 법입니다. 중생의 마음 씀씀이는 일일이 생각을 지어서 일을 해야만 이치에 맞는 줄로 여기지만 도인의 마음씀은 일일이 생각을 내지 않고 푹 쉬어 있으면서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법에 맞게 됩니다. 놓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어서 하는 어떤 행보다도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고 깊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이익된 행을 하게 된다는 사실은 한 치의 착오도 없는 진리입니다.”

자신 돌아보고 낮춰 함께 이익된 삶 살자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지켜보며 믿고 맡기다 보면 물도 주고 영양분도 공급받은 나무가 차츰차츰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나와 주인공이 하나가 돼 그 열매가 만 생명을 먹여 살리고도 되남는 이치를 알게 된다. 온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의 삶이야말로 진리 그대로의 삶이자 깨달음의 길이다.

“마음이 넓으면 이 세상을 다 안고도 남음이 있지만 좁으면 바늘 끝도 안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갖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요, 제 마음자리이지 세상 여러 사람들의 마음은 아닙니다. 제 고집을 앞세워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춰보십시오. 겸손과 하심만이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저 넓은 들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가 없는 들판에 온갖 생물이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넓다면 나의 삶은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울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차원대로 살고 이 세상은 그 차원을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높다고 높게 생각하지 말고 낮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자비스럽게,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분으로 살지 말고 전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의 눈 · 귀 · 코 · 입 따위가 각각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혼란이고 번뇌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행하게도 얼굴 전체의 입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움직일 때는 눈은 눈으로서 움직이고, 귀 · 코 · 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마음의 과학, 깊고 아름답고 선(善)한 참과학
정신계와 물질계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둘 아니게 공생하는
마음의 과학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겠습니다.

한마음과학원 합장 구배



화합재에 참석한 대행 스님과 제자들. 대행 스님은 150여명의 출가제자들에게 한마음 생활선 '주인공 관법'을 지도하며, 다함께 공생하는 공심의 도리를 전해왔다.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대법당. 우뚝솟은 7개의 금색 구형 칠보탑은 생명의 생성을 뜻하며 일명 우주탑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행 스님

황금새는 너울너울 춤을 췄소이다

– 대행 스님 게송 中 –



원로비구니 스님들이 담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 비구니회장 광우 스님, 전 비구니회 부회장 진관 스님, 대행 스님, 전 비구니회 부회장 법운 스님.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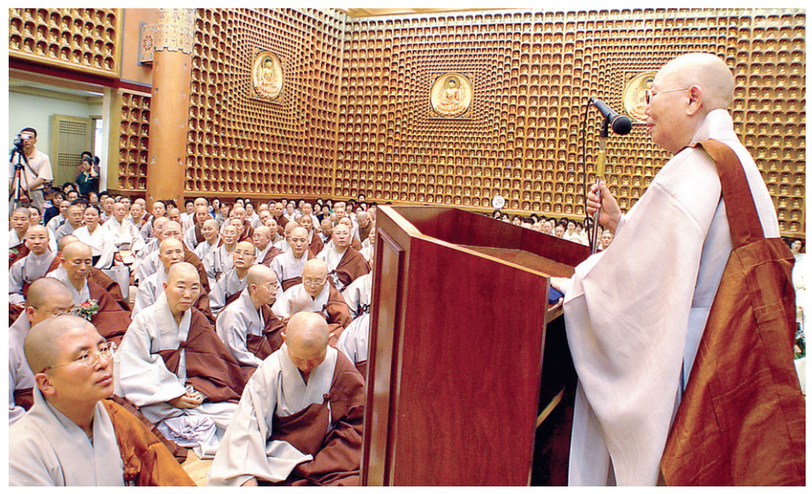
운문사 학인들에게 법문을 하시는 스님.



미국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 일행에게 마음 공부에 대한 법문을 하는 대행 스님



본지를 창간한 대행 스님(본지 회장)이 주지 혜원 스님(사진 왼쪽)과 고은 시인,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김광삼 초대 사장과 함께 1994년 현대불교신문 현판제막식을 하고있다.



2002년 5월 4일 전국비구니회관 만불전 봉불식에서 법문하는 대행 스님.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내일을 위한 대작 불사 차원에서 대행 스님은 비구니회관 건립에 85억원을 쾌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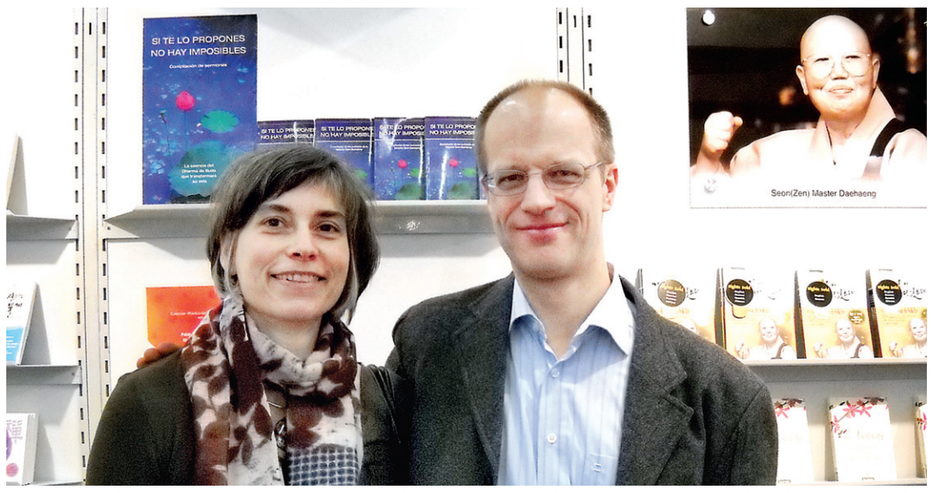
산처럼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과
물처럼 걸림없이 흐르는 지혜로움,
큰스님 자비의 깊은 뜻
온누리 두루두루 세세생생 전하겠습니다.

한마음국제문화원 합장 구배

내가 만난 대행 스님

거룩한 법의 씨앗 널리 뿌리겠어요

독일 베를린 의대 한스욕 교수



대행 스님의 법문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한스욕 교수(사진 오른쪽)는 아내 베티나씨와 함께 독일 지원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심장병으로 생사 위기 처했던 가족
99년 스님 친견 후 마음 공부로
행복 찾으며 새로운 삶 얻어
"바람결 속에도 큰스님 계셔요"

독일인 의사 한스욕 에플레씨와 그의 아내 베티나 뮌희 에플레 씨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의 회장 부회장직을 각각 맡으며 포교 전도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들은 대행 스님 법문을 늘 생활 속에 되새기며 내면의 불성을 찾고 있는 수행자이기에 어느 누구보다 대행 스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때문에 스님의 원적 소식은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다.

한스욕 씨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냥 멍하기만 했지요. 그러다가 큰스님께서 먼 길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충격은 제 마음 속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저는 '세상의 빛이 우리들로부터 가버렸다' 는 어디선가 읽었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베티나 씨는 큰스님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을 때 회사일로 출장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 있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에 잠겼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나뭇잎 하나, 밀 한알, 햇빛 한 줄기,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결 속에도 큰스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께서 마침내 몸을 벗으심으로써, 어떠한 한계도 없이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 전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가 나무 아래서 명상에 들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느 한 순간 완전한 고요함 속에 잠겼다. 온 세상이 멈추어 선 듯 했다.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도 없었고 새들의 지저귐도 없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다.

한스욕은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얘기한다. "어느 정도 충격의 마비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저는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함이 저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관대함으로 말입니다. 큰스님께서는 모든 행하심 속에서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저 역시 이것을 제 내면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동안 큰스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항상 같이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내 베티나 씨는 올해 연등점등식에서 한국에와 큰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충만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제가 당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큰스님의 육신도 어떤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제가 큰스님과 스님의 가르침을 이 생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이 길을 꼭 가리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1999년 봄 그들 가족이 한국에 처음 방문했던 당시를 회고한다. "그때 제 남편과 아들딸은 심장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었어요. 스스로 제 안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당시는 삶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떤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스님을 친견하고 10여년 세월이 지난 지금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가피를 얻었다고 전한다. "저희들은 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우리가 직접 맛 보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큰스님과 한국에 계신 스님들 그리고 한국의 도반 여러분들, 즉 한마음 공동체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스욕 씨 역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만나 한 인간으로서 또 의사라는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회고한다. "의사로서 제 직업적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는 단 몇 문장의 말로는 표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큰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 사람 모두가 서로 모두 연결돼 있고, 그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걷고자 한다. 한스욕 씨는 "나는 큰스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또 내가 경험했던 자유를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반들과 함께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씨앗을 뿌릴 것"이라며 다짐의 말을 전했다.

이제 병마에서 벗어난 아들 모리츠와 딸 한나는 어엿한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각각 성장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대학생이 되면 물리학을 전공해 심성과학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학시절, 초발심 잃지 말라고 '격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심원 스님



"출가후 10년이 지나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스님의 신분으로 세속으로 나와 학교를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때에 대행 스님의 법문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심원 스님은 대행 스님과의 인연을 이렇게 얘기했다. 대학 진학 후 마음 고생이 심했던 1990년 즈음 스님에게 대행 스님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되었다.

심원 스님은 "대행 스님께서는 수행자로서 본심을 잃지 말고 초발심으로 꾸준히 정진 하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며 "매우 친근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셨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수행정진하고 있다"며 감회를 전한다.

대행 스님을 자주 친견하고 싶었지만 늘 많은 대중들이 스님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스님을 친견한 횟수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늘 책과 방송 등을 통해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고 한다. "스님의 법문은 대중의 삶과 밀접해 있어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법문은 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보통 수행자들이 돈 얘기를 꺼려하는데 스님은 돈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누군가 보시를 하면 당신 개인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유용한 곳을 찾아 전달한다' 는 말씀은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이어 그는 "그렇게 스님께서 사심 없이 세상을 위해 보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스님의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거 같다. 불교계의 크고 작은 불사도 묵묵히 해주셨다. 그렇게 재물이 적절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원리에 대한 법문은 참 좋았다"고 전한다.

현대불교신문의 독자라고도 말하는 심원 스님은 대행 스님의 언론출판 활동에 대해서도 극찬을 했다. "현대불교신문은 대행 스님의 원력이 잘 반영된 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님의 크신 원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혜숙 기자

"장애마저 감사하다는 깨달음 얻었죠"

어록 달력 15년 만든 서예가 윤상민 씨



"참나는 누구나 다 있기에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2012년 한마음선원 달력 첫장에 담긴 대행 스님의 법어다. 매년 연말연시면 한마음선원에서는 대행 스님의 법어가 담긴 달력이 나온다. 스님의 뜻을 힘찬 필체에 담아 대중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는 이 달력은 많은 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연말연시 선물 중 하나다. 그리고 15년 동안 법어를 붓글씨로 옮기는 이가 바로 서예가 윤상민 씨다.

대행 스님의 속가 조카이기도 한 그는 스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전한다. "소아마비로 남과 다른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 있어 스님의 '길고 짧은 게 둘이 아니다' 라는 법문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스스로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때 처음 스님을 뵌 그가 스님의 법문을 들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고 한다. 당시 노량진에 살았던 그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매일 버스를 타고 청량리에서 봉행되던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러 다녔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스님의 법문이 너무 좋았다"며 당시를 회고한다.

이후 그는 스님의 신도가 되어 한마음선원의 학생회와 청년회를 조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스님을 통해 활기찬 삶을 살았던 그에게도 아픈 추억이 있다. 바로 한의사를 꿈 꾸었지만 신체의 장애로 좌절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스님은 "의사는 다 방편이다. 결국 병도 다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는 법문은 그에게 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결국 큰스님 말씀대로 된 거 같다. 달력으로 스님의 법문을 전하며 신도들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으니 내가 마음의 치유자가 된 거나 다름 없다"고 전했다.

이제 그는 장애마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스님께서는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어요. 스님의 큰 법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받고 살아왔어요. 스님을 만난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정혜숙 기자

다시 듣는 대행 스님 법문

자기 자신의 부처 될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2001년 동국대 정각원 초청대법회에서 '죽어야 나를 보리라' 라는 주제로 대행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닥쳐오는 모든 거를 그저 한 구덩이, 한 군데다가 전부 맡겨놓고, 안 되는 건 되게끔 굴려 놓고, 매사 걸 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게 속에서 일어나더라도, 바깥에서 어떠한 게 부닥쳐 오더라도 모든 것은 내 근본에서 내가 어찌하나 보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에 넘치게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싫어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묵묵히, 내 앞에 닥치는 거는 내 일이다 하고 그저 묵묵히 하십시오. 남한테는 부드럽게 대답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생각해서 거기 맡겨놓고. 그것이 자꾸 자꾸 쌓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능숙해지는 때가 올 때 비로소 내가 있는 소식이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확고부동하게 실험해봤기에 나는 이렇게 떳떳이 말하는 것입니다. 전선줄 속에 있는 알맹이만이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항상 그 알맹이를 싸고 돌면서 거기다가 모든 걸 굴려 놓는 것이 바로 나를 완성시키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이나 재물도 한 순간 생겨났다 사라지고 지식이나 학식도 영원한 것이 아니니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체가 한 자리에서 들고남을 알아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천하 만물만생이 다 내 아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구를 안정하게 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길임을 명심 또 명심하여 한마음으로 지극히 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사람도 빠짐없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일체생명 살리는 길 아닌 길 걸어가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부처 될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근본 마음을 철저히 믿고 그에 귀의하십시오. 나는 수십 년간 오로지 이 말만 되풀이해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말만 되풀이 할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어저께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뛰어서 심부름을 '극진히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와서 한번 갈 거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거 서러워하지 마시고 팽개친다면 세세생생을 얻습니다."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졌고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낫게 할 수 있고, 바로 너를 지켜주는 보디가드는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모든 걸 남을 위해서 산다면 오히려 내가 위해집니다. 마음의 병을 고친다면 육신의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중생이 있는 것만큼 부처가 있습니다. 안되고 되는 것을 쥐고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면 한마음이 돼줄 수 있습니다. 근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의 뿌리가 없다고 단정할 것입니까? 내 내면의 일을 알아야 바깥의 일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나를 위하고 상대를 녹이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려놓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어지는 통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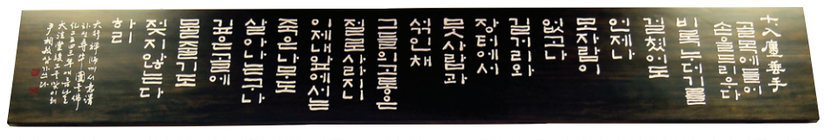
"참된 마음공부는 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묵연히 그저 걸어갈 뿐이라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몽땅 놔버려야 합니다. 한 생에 알고 넘어가려면 오직 주인공에 모두 놓아라 내가 있는 한 부처님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집결돼 있습니다."

" '나' 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거를 주인공에 놓을때 비로소 그 안에서 모든 그 생명들의 의식들이 모두 그 마음을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편안하고 너그러워지고 자꾸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 바로 그게 조복입니다."

365일 새기는 달력 속 어록

"자신의 삶 속에서 맛보고 증득하라"

"불법이란 만물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일체 경계를 둘로 보지 말라 모든 것이 다 주인공의 나툼이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고 안되는 것을 다 쉬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다"
"생활을 떠난 도는 도가 아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원리를 갖고 있다"
"주인공이라는 그 줄을 잡고 물러서지 마라 당신을 구할 것이다"
"잘난 부처보다 못난 네가 낫느니라 네 자신 참 주인공을 스승으로 하라"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주인공 하나를 쥐고 일념으로 들어가다보면 비로소 홀연히 참나가 드러난다"
"내가 나서서 노심초사 하는 것보다 턱 주인공에 맡겨두고 처리하는 것이 명쾌한 답이다"
"주인공만이 주인공을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을 굳게 믿고 들어가는 것이 관이다"
"마음은 체가 없어 광대한 우주를 싸고도 남으나 내가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문아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생사를 알려거든 생사를 다 놓아라"
"참나찰나 다가드는 경계를 사량으로 헤아리지 말라 그대로 믿고 맡겨놓고 가라"
"참 자기에게 스스로가 미쳐야 한다. 사무치도록 애절하게 미쳐야 한다. 미쳤다는 소리 한마디쯤 안듣고는 이 공부하기 어렵다"
"생활 속에서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 진실히 관하면 생활이 그대로 수행인 것이다"
"마음은 일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나 하나만 알면 전체를 알게 된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라. 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바위나 언덕을 만나면 끼고 돌아 흐른다. 참나를 찾는 공부도 그와 같아야 한다"
"내 집부터 전화를 놓아야 걸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년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
"생각나기 이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생각나기 이전은 생각될 수 없으므로 사량심을 버리고 일체 경계를 다 본래 자리에 맡겨 놓으라는 것이다"
"미물에게도 마음을 보내고 진실한 자비심을 갖는게 방생이다"


선원 곳곳에는 스님의 어록이 걸려있다. 신도들은 이 어록들을 마음으로 새기며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책으로 만나는 대행 스님 가르침

쉽고 명확한 불법 온세상 퍼지네

대행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힘든 시절을 살았지만, 삶의 진리를 꿰뚫는 스님의 간명한 말씀은 중생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소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쉽게 이끌어주고 있다.

스님은 삶의 진리와 불법을 많은 사람들이 글로 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어려운 한문으로 쓰인 예불 의식문을 한글로 쉽게 풀었으며,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많은 불서를 보급했다.

특히 30여 년 전부터 세계인들에게 불법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1999년 '한마음국제문화원'을 설립했다. 이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해 출간하고 있다. 스님은 일찍이 마음공부에 목말라 하는 전 세계인들을 간파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스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



대행 스님은 30여 년 동안 불서 포교에 전념했다. 사진은 그동안 스님이 펴낸 불서 표지들.

출판부 설립해 불서포교 본격화

대행 스님은 일반 불자들을 위한 법어집과 스님들을 위한 수행지침서 등 포교관련 서적을 기획·출판하기 위해 '한마음선원 출판부'를 1996년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대행 스님이 30여 년간 설법한 육성 법문을 묶어낸 전집 〈허공을 걷는 길〉과 스님의 전기와 법어, 선시 등을 집대성한 〈한마음요전〉,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필요한 지침서를 담은 〈신행요전〉 등 20여 권의 불서를 출간했다.

〈한마음요전〉에서는 스님의 구도기와 스님이 1970~1991년 20여 년간 법문한 내용을 주제별로 간추려 놓았다. 이 책은 스님이 강조한 ▷마음의 원리 ▷수행의 방법 ▷생활 속에서의 실천 등에 관한 불법 공부의 핵심을 담았다.

〈허공을 걷는 길〉은 지구 생태계의 문제서부터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근본을 깨달아 자유인의 길에 이르게 하는 스님의 가르침을 정기·국내·국외·법형제회 등 법회별로 모은 것이다.

대행 스님은 〈삶은 고가 아니다〉를 통해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으니 더 이상 삶이 고통이 아님을 전하고 있다. 초심자들뿐 아니라 불법의 진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행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그냥 무조건이야!〉는 제자스님들과 나누는 생생한 법담을 담은 책이다. 어떤 생명도 부처 아님이 없으며 어떤 시간도 깨달음의 시간이 아닐 수 없음을 가르치는 스님의 법훈 가운데 수시로 읽고 외우며 가슴에 새겨야 할 금언 들을 골라 묶은 것이다.

한글로 쉽게 풀어 경전의 바른 뜻 전해

대행 스님은 불교계에서 예불 의식문이나 경전의 한글 번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경전이 지닌 의미를 바로 알리기 위해 한글 뜻풀이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을 펴냈다. 스님은 경전의 한글화를 통해 자성을 믿고 생활 속에서 깨칠 수 있음을 알려 나와 남을 모두 이익 되게 하는 뜻을 알리고자 했다. 뜻으로 푼 한글 경전은 경구를 외우는 것만으로 수행을 삼던 불자들에게 예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치는 수행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세계인들에게 불법의 진리 알려

"신도들만 읽는 책을 만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 나아가 전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라."

대행 스님은 한마음선원 설립 초부터 책을 통해 해외 포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서구지역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공부를 갈망해온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1999년 '한마음국제문화원'을 설립하고 스님의 법문을 외국어로 번역·출판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불법의 진리를 전파했다.

이곳에서는 대행 스님의 법문을 영어책으로 먼저 만들어 출판하고 그 뒤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버전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책들은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내 마음은 금부처〉〈생활 속의 참선수행(시리즈)〉 등 20여 개의 서적이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대행 스님 번역불서를 2005년부터 세계 7500여 개 출판사가 참가하는 명망있는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소개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해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대행 스님의 법문으로만 구성된 책을 들고 부스를 개설해 매년 참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에 한국화를 그리는 임효 화백의 삽화를 넣어 시화집 형식으로 출간한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는 200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박람회에 출품돼 현지 출판사들과 언론 및 방문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불교의 해외포교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천수경〉을 통해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은 시인은 추천사에서 "대행노사의 회통으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대비심다라니경이 아기의 젖인 듯 어미의 눈물이듯 일천의 눈 일천의 손 잔치 열리더이다"며 책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 책은 2009년 13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독일의 디더리히스(Diederichs)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출판사 총편집장 눈에 띄어 책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출판사는 삽화가 들어가는 그림책은 출판한 전례가 없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 책은 2010년 9월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일 뿐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시상식중 하나다.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책들은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최근 대행 스님의 영어법문집을 에스토니아어로 번역·발간하는가 하면 중동국가인 리비아에서 관심을 보인 것이 그 예다.

청고 스님은 "리비아 등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문화내의 출판사와 가톨릭 정교국가 출판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고 있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마음 수행을 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도 전달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구촌이 보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계로 변화되기를 발원하는 대행 스님의 노력과 가르침의 씨앗이 책을 통해 전세계에 발현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행 스님 책 해외 서평

간단하지만 심오한 불교경지 드러내

다음은 대행 스님의 저서에 대한 편집장 및 저명인사들의 서평이다. 소개된 내용은 흔히 출판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aid-review(돈을 지불하고 서평을 요청 한 것)가 아니다.

"대행 스님이 풀어 놓은 경전들은 군더더기가 없고 진리의 핵을 단번에 꿰뚫어 놓으셨으니 눈 멀고 귀 먼 자라 하더라도 접하기만 하면 진리의 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 前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의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서평 中

"대행 선사는 서구의 독자들에게 지금 당장 접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혜의 세계가 언제나 여기에 있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있으니, 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오라 손짓합니다. 선사는 〈No River to Cross〉에서 철저히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출발하는 매우 참신한 마음 수행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그 가르침은 놀랍도록 심오합니다."
– 위즈덤 출판사 편집장 〈No River to Cross〉 서평 中

"〈No River to Cross〉는 불교수행에 대한 복잡한 설명들과 개념들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마음을 밝혀주는 우리들 생활에서 선별된 일례들이 위의 개념들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줍니다."
– 데이비드 맥칸, 美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원장, 만해상 수상자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마음을 닦아나갈 수 있는 재료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대행 스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이야말로 현대불교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선사이자 일반인이 다가가기 쉬운 큰 스승님들 중 한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로버트 버스웰, UCLA 불교학연구소장

"스즈키 순류의 〈Zen Mind, Beginner's Mind〉처럼 〈No River to Cross〉는 참으로 오롯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이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말로 사람의 폐부를 꿰뚫는 대행 선사의 역량으로 이 책은 〈Zen Mind, Beginner's Mind〉와 같은 장기 스테디셀러로서의 수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프란시스카 조, 美 조지타운대 교수

"한국 비구니 스님이 전하는 참신한 가르침의 맛을 처음으로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분명 더 많은 가르침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는 심정을 참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샴발라 썬 편집장 (샴발라 썬은 정신, 명상수행과 관련한 지명도 높은 잡지다.)

대행 스님의 저술서들

구 분	제 목
국내서적	내 마음은 금부처 (상 · 하)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 그냥 무조건이야 삶은 고가 아니다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꽃을 피우는 나무 허공을 걷는길–국내지원법회1 · 2 · 3 허공을 걷는길–법형제법회1 · 2 허공을 걷는길–정기법회1 · 2 · 3 · 4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뜻으로 푼 우리말 천수경 신행요전 한마음요전
해외서적	No River to Cross(건널강이 어디있으랴)영어/독일어/스페인어/중국어/러시아어 The Furance Within Yourself(일체를 용광로에 넣어라) Mind, Treasure House of Happiness(마음은 보이지 않는 행복의 창고) Let's Go and Observe(맡겨놓고 지켜봐라) Walking Without a Trace(함이 없는 도리) To Discover Your True Self, 'I' Must Die(죽어야 나를 보리라) Wo immer du bidst, ist Buddha(내가 알기에 전체가 안다) 독일어 El Camino Interior(내면의 길) 스페인어 Ensenanzas de la Maestra Daehaeng(대행 스님의 가르침) 스페인어 Vida de la Maestra Seon Daehaeng(대행 스님의 행장기)스페인어 My Heart is a Golden Buddha(내마음은 금부처) 영어 It's Hard to Say(대행스님께서 법회중 들려주신 이야기들) 영어 Wake Up and Laugh!(깨어나 웃어라) 영어/독어 Si te lo propones no hay imposibles (일체는 마음먹기 달렸다)스페인어 Una semilla inherente alimenta el universo (온 우주를 살리는 마음의 불씨)스페인어

마음과 과학은 둘이 아니다

전문 분야 학자들이 마음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해

한마음과학원 설립해 마음공부 다각적 조명

"마음의 과학이야말로 깊고 아름답고 선(善)한 참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법은 무위(無爲)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학은 유위법을 다루어 이치를 밝힙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마음법은 보이지 않는 원리,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치까지도 밝혀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완전한 상태로 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 대행 스님 법문 中

대행 스님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닌 그 근본이 같음을 일찍이 깨닫고, 그 원리를 연구하고 증명해내기 위해 1996년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했다.

한마음과학원에서는 100여 명의 전문학자들이 인문·사회·자연·의학·공학·교육 6개 분과와 수행그룹 '선수행실천연구회'를 중심으로 마음공부를 대의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질병,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대행 스님이 강조한 마음공부를 통해 해결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불교식 명상을 통한 질병 회복경험' 'K대학생의 시험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관(觀)의 효과'를 주제로 대한간호학회지, 대한스트레스학회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한마음과학원 소속 연구원들은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마음공부포럼 ▷한나무인성교육 ▷한마음아버지마당 등을 마련해 일반인·청소년·교사·중장년층 아버지 등 다양한 계층이 보다 쉽게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주인공' '관법' 학술 논문 주제로 연구

대행 스님은 스스로 수행하고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때그때 대중들의 근기와 인연에 맞추어 독자적인 언어로 법문을 펼쳤다. 이러한 스님의 독특한 표현방식을 통한 불교적 가르침과 사상은 많은 불교학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가 됐으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 수는 10여 가지가 된다.

독일 종교학자 롤랑 피취(Roland Pietsch) 교수는 '대행 선사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사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독일의 저명한 종교학자가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중세독일의 대표적인 기독교적 신비주의 사상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가르침을 비교한 글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염준근 씨는 '불교의 일심에 대한 과학적 고찰'을 주제로 동국대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했다. 염 씨는 논문을 통해 대행 스님의 '주인공' 개념과 관법수행을 대장경과 선어록의 가르침과 대조하고, 스님의 가르침과 전통불교의 가르침이 그 근본에 있어서 같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혜선 스님은 '한마음사상과 선수행체계 연구'를 주제로 동국대 선학과 박사논문을 썼다. 논문에서 스님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아함부경전〉과 중국 천태종 화엄종, 한국 선종 등에서 가르치는 일심사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전통불교의 가르침과 근본이 동일함을 주장했다.


한마음과학원에서는 일반인·청소년·교사·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보다 쉽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2011년 한마음 아버지 마당에 참가한 중장년층 아버지들이 마음공부에 대한 토론를 하고 있다.

미국인 마르시 미들 브룩은 '한마음선원과 대행 스님의 주인공 개념연구'를 주제로 서울대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해 '주인공' 개념을 전통불교의 가르침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고미라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은 '탈이분법적 여성주의 인식론을 향하여'를 주제로 중관사상과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관련지어 여성학을 논했으며 '낙태문제를 불교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주제논문으로 계간지 〈문·사·철〉에 발표해 스님의 사상을 통해 낙태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영탑, 장엄등, 도량탑 등도 연구주제

이 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대행 스님의 사상을 담고 있는 한마음선원 법당, 단청, 영탑, 도량탑, 장엄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현대 도심포교의 성장과정에 관한연구'에서 한마음선원의 활발한 포교활동을 다뤘으며, 송인정 씨는 '공간구성 변화에 따른 단청문양의 재구성'의 논문에서 한마음선원 법당의 단청을 주 내용으로 다뤘다.

또한 박기태 씨는 '연등축제 기록화 방안'에서 한마음선원 장엄등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김기상 씨는 '한마음선원 도량탑의 전통문양과 상징성'을 주제로, 정태경 씨는 '우리나라 장묘형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한마음선원의 도량탑 및 영탑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나은 기자

스승님! 일체가 '나' 아님이 없다는 가르침, 저희는 진정코 실천해 가겠습니다

한마음선원 사부대중 일동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한 마 음 선 원

• 안양본원 주지 혜원 스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본원 및 국내지원

• 광명선원 청백 스님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 제주지원 혜묘 스님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 부산지원 혜도 스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 광주지원 혜월 스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 울산지원 혜안 스님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 대구지원 혜솔 스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 중부경남지원 혜보 스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 진주지원 혜근 스님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 공주지원 혜능 스님 (충남 공주 사곡면 신영3리 152-3)
• 포항지원 혜문 스님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 청주지원 청봉 스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 강릉지원 혜인 스님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 통영지원 혜진 스님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 목포지원 혜당 스님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 문경지원 청호 스님 (경북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

■ 해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 혜봉 스님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 미국 워싱톤지원 혜양 스님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 혜중 스님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 미국 시카고지원 혜지 스님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 캐나다 토론토지원 청각 스님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 혜동 스님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 청묵 스님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 독일지원 혜진 스님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 태국지원 혜단 스님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